

법상 스님(조계종 포교연구실장)
'正定' 하면 매순간 집중
정화의 꽃 피운다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3월 1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42호 2015년 4월 30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말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하라.

올해 연등회 키워드는 세계 평화·한반도 통일

연등회 세부 일정 발표… 29일 광화문 점등식으로 시작

불기2559(2015)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는 광복70주년을 맞아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법석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연등회에서는 세계 종교인 평화 선언과 불교 통일론을 주제로 한 한반도 통일 선언이 발표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부처님오신날 주요 봉축행사와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공식 일정 등을 공개했다.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봉축행사는 4월 29일 광화문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전국에서 다채롭게 진행된다. 특히 광복 70년을 맞아 함께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현대사회의 화두를 되짚고 이를 간화선을 통해 구현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광화문 점등식은 지난해 선보였던 익산 미륵사지 석탑 장엄등이 다시 사용되며 4월 29일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서울의 심장부를 환하게 밝히게 된다. 이 시기에 맞춰 서울 시내는 오색 가로 연등이 걸리며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한다.

봉축행사의 백미로 불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는 5월 15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6일 제등행렬, 17일 전통문화공연마당 등의 순으로 서울 조계사 우정국로와 종로,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다.

5월15일 조계사 옆 우정공원과 삼성동 봉은사, 청계천에서는 전통등 전시회가 열린다. 특히 청계천에는 '깨달음'을 주제로 한 전문 작가들의 장엄등이 불을 밝히게 된다. 16일 오후 3시30분부터는 동국대 운동장에서 어울림마당이 진행되며, 40여 개 단체 1000여명의 연희 율동단이 참여해 흥겨운 춤과 율동을 선사한다. 오후 6시부터는 하이라이트인 제등행렬이 진행된다. 동국대를 시작으로 동대문, 종로를 거쳐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제등행렬은 10만개의 행렬등과 장엄등이 서울의 밤거리를 화려하게 수놓게 된다.



연등회·기원대회 주요 일정

4월 29일
- 광화문 점등식

5월 15~26일
- 전통등 전시회 (조계사, 봉은사, 청계천)

5월 16~17일
- 연등회(어울림마당, 연등행렬 등)
-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간화선 무차대회, 수륙무차대재 등)

무차대회 개최로 의미 더해
광화문서 20만명 운집 예정

평화 염원 담은 종교인 선언
불교 통일론 주제 선언 발표
연등회엔 태극기·한반도燈
평화·통일 메시지 담아

연등회 제등행렬도 평화·통일의 의미를 담아낼 계획이다. 올해에는 광복70주년을 기념하는 '태극기 등'이 행렬등으로 등장하며, 장엄등의 경우도 '평화통일 한반도등', 평화 화합의 의미를 담은 '마애삼존불등'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KTO)가 주관하는 외국 관광객 등만들기대회에서는 3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자신의 등을 만들어 제등행렬에 참여하며, 행렬 이후에는 기원대회에도 참석해 평화를 기원하게 된다.

연등회와 함께 진행되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일정도 눈길을 끈다. 기원대회는 세계 20개국 해외 고승과 이웃종교지도자 300명이 참석하며 5월 15일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이 자리에서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만찬사를 할 예정이다.

300명의 종교지도자들은 5월 16일 오전 10시 현충원을 방문하며, 오후 2시부터는 세계 불교와 이웃종교를 대표하는 20인이 모여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제임스 코왈스키 세인트 존 더 디바인 성당 수석 사제를 비롯한 이웃종교지도자와 텝 봉캄보디아 승왕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회의를 거쳐 '세계 평화 기원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연등회 제등행렬이 마무리가 되면 기원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가 이어진다. 오후 8시부터 진행되는 무차대회에서는 조계종이 지난해부터 준비 중인 '한반도 통일선언'이 발표된다. 불교통일 담론이 담길 예정인 한반도 통일선언은 '합심·공존·상생'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최종 문안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도 무차대회에서 발표된다.

또한 최고의 선승(禪僧)으로 추앙받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법어는 간화선의 우수성을 되새기게 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 앞서 참가 대중 모두가 10분간 선정을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돼 간화선을 체험할 수 있게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 같은 모습은 공중파를 통해 1시간동안 생중계될 예정이다.

5월17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계사에서는 한국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수륙무차대재'를 봉행한다.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사절 등 국내외 불자 20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세계 고승 및 종교지도자 300명과 사부대중 20만 명이 함께 하는 연등회와 기원대회는 한국불교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연등회와 기원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3면〉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는 4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공존과 화합을 위한 '2015이웃종교화합대회'를 개막했다. 사진은 7대 종교 지도자들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알리는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범종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본격화

KCRP, 23일 이웃종교화합대회 개막… 운동 중앙본부 출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국내 7대 종교가 자신을 본분을 다해 '답게' 살겠다는 운동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 이하 KCRP)는 4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공존과 화합을 위한 '2015이웃종교화합대회'를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소속 신도들의 범종교인 운동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중앙본부도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KCRP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회사에서 "사회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더 막중하다"며 "생명존중과 정의가 지켜져야 하는 때일수록 다양한 종교가 서로 이해와 화합을 통해 상생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은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있다"며 "종교인들이 솔선수범해 사회에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각자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며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회 개막과 함께 이날 '답게 살겠습니다' 중앙본부는 본격적으로 출범으로 알리고 대표 회장으로 권길중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 협의회장을 선임했다.

'답게 살겠습니다' 중앙 본부는 7대 종단 평신도 대표들이 공동회장을 맡아 운영하며 7대 종단 각각 10명의 운영위원과 2명의 실행위원을 두게 된다. 불교 측 중앙본부 임원으로는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실행위원으로는 중앙신도회 회원 이송·이근혁 회원이 각각 위촉됐다.

한편, 종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이웃종교화합대회는 오는 7월과 8월 각 종단 시설에서 이웃종교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공감대를 높이는 '이웃종교스테이', 10월 전국 종교인들이 모여 나눔을 실천하는 '전국종교인화합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선학원 추진위 매월 1회 회의열고 '소통'

추진위 상임위 23일 1차 회의서 결의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매달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선학원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 이후에는 1박 2일 워크숍도 개최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선학원정상화 상임위원회는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위는 추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첫 상임위원회 회의임에도 참석이 저조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한 후 "그간 선학원과의 대화를 위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 왔다. 상임위원회가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경책과 논의를 이어가 추진위 활동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상임위는 추진위 활동 경과를 보고받은 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법등스님은 "지난 원로회의에서 원로 스님들께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셨다"며 "현재 총림방장 스님을 친견하고 의견을 여쭙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는 앞으로 월 1회 회의를 열어 선학원 임원진과의 대화 요청, 공감대 마련을 위한 지역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법등 스님은 이날 총무원 기획실에 선학원 기관지 불교저널에 대한 출입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법등스님은 "우리가 선학원과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언론을 출입금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의 의견과 논의가 직접 전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출입금지 해제를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선학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출입금지를 결정했다. 부실장 회의를 거쳐 해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신성민 기자

1042호 INDEX

시방세계 5
5월 관광 주간 가족과 山寺로



광복70년 불교70년 12·13
한국불교 역경 70년



海印叢林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해인총림
제9대 방장 추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방장 벽산당 원각 대선사 추대법회

| 일 시 | 불기 2559(2015)년 5월 7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
| 법회내용 | 봉행사 – 추대사 – 축사 – 불자·법장 봉정 – 법어

• 증명_ 법원 진제 대종사

불기 2559(2015)년 4월

해인총림 방장추대준비위원회 위원장 : 선해, 향적, 원택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문의 : 방장 사서실(010-8591-6371) / 해인사 종무소(055-934-3000)





신도 최고품계 '선혜품계' 첫 품서
종단 신도 지도자로서 역할 당부

조계종 포교원, 18일 조계사서 품서식… 260여 명 품서받아

"종단의 부름으로 여기 있는 선혜품계 품수자들은 다시 초발심을 일으켜 그간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스스로 지혜를 깊이 앎으로써, 화엄보살 10위로 설하신 선혜의 경지를 체득해 모든 이를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조계종 신도품계제도의 최고단계인 선혜 품계자들이 처음으로 배출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4월 1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한 주요 소임자 스님과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선혜품계 특례 품서식' 을 거행했다.

품서식은 헌화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고불문 낭독, 십선계 수지, 치사, 품서의례 대중발원문 낭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은 십선업도(十善業道)를 행하는 것을 계율로 삼은 십선계를 설하며 수계자들이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신도 지도자인 선혜품계가 정식 시행하게 된 것은 종단 포교 역사에서 큰 경사다. 종단이 출범 당시 종헌정신과 규정에 따라 선포한 사부대중 공동체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오늘 품수를 계기로 오랜 기간 해온 자신의 역할을 더 높이고, 일상 속 신심향상에도 진력해 주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진리를 참구하고 고통 받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임을 다시금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2011년 이후 신도조직화를 위해 시행된 신도품계제도는 명실공이 사부대중 공동체를 향한 종단의 방침이고 종단 신도조직화의 첫 발걸음"이라며 "오늘 교육과 품서식 대상자로 확정돼 이 자리에 오신 불자님들은 종단의 자랑이자 보배"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는 종단의 신도지도자들로서 위의를 바로 세우며 지금까지 노력해 온 각양각처의 분야에서 종단 발전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불자가 되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선혜 품계 품수 대상자 357명 가운데 260여 명이 참석해 금색 신도 휘장을 받았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곽명희 포교사단장,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권익현 초대 국회 정각회장이 대표로 휘장을 받았으며, 김상인 공무원불자연합회장,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 선진규 · 백창기 전 중앙신도회장 등이 선혜품계를 품수했다. 선혜 품계 품수자는 종단 신도 지도인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종단 신도 교육 · 조직화 초석

품서자, 신도 지도인력 자격

선진규 前 중앙신도회장(정토원 원장)은 "불교를 위해 헌신한 불자들을 위해 조계종에서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을 마련했다. 이번 품수식을 계기로 전국의 불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불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계종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수 안양 한마음선원 신도회장은 "오계 보다 더 높은 단계인 십선계를 받았으므로 불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불교중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품수식에 앞서 포교원은 선혜품계자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지도자교육 특례과정을 실시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지도자의 자세' 를, 前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이 '대승보살 원력' 을 주제로 특례교육을 진행했다.

이나은 기자



〈사진 오른쪽부터〉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곽명희 포교사단장, 권익현 초대 국회 정각회장이 대표로 휘장을 받고 있다.

"韓 전통산사 세계유산 가치 충분"

이상해 교수, 24일 등재추진위 세미나서 주장

"한국의 전통산사는 조선 후기 한국불교만이 가지는 사상과 신앙으로 수행, 예배, 생활 등의 측면에서 현재까지 그 기능이 유지 · 지속되고 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에서 요구하는 진정성 및 완전성을 충족시킨다."

한국 전통산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요건인 '탁월한 보편 가치(OUV)' 에 충족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4월 24일 공주 마곡사에서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등재추진위)가 주최한 '종교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교수는 한국 전통산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유산적 가치를 분석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추진 중인 한국의 전통산사는 속리산 법주사, 태화산 마곡사, 조계산 선암사, 두륜산 대흥사, 천등산 봉전사, 봉황산 부석사, 영축산 통도사 등 7개 사찰이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이 교수는 "전각을 포함해서 불교 교리, 의례, 역사, 정신, 승속이 아우러져 있는 곳이 한국의 산사"라면서 △동아시아 불교 교류 입증 △불교 신앙 전승 과정 확인 △자연과 조화를 이룬 유기적 가람 배치 △조선 후기 불교 신앙, 수행, 의례의 전승 등을 공통적 유산적 가치로 꼽았다.

동아시아 불교 교류 궤적 담겨

자연 · 문화 습합 이뤄 '독특'

수행 · 생활 공간으로 보존돼

'탁월한 보편 가치' 에 충족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한국의 전통산사는 자연과 앙상블을 이루는 한국 전통건축의 전형"이라면서 "조선 후기에 정착한 전통산사의 건축 유형은 삼국시대 사찰들의 계율학적 성격이나 중심축을 갖는 좌우대칭의 기하학적 배치 구도에서 벗어나서 숭유억불 정책으로 크게 위축됐던 불교가 새로운 자구책을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는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유산적 가치 이외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에서 요구하는 진정성 및 완전성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조선 후기에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한 한국의 전통산사는 여러 신앙체계가 서로 습합 · 원융되는 모습을 지닌다"면서 "또한 신앙 이외에도 한국의 산사에는 승려들의 수행공간, 생활공간, 재가 신도들의 공간을 수용하고 있으며, 연속 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하는 산사들은 모두 6~7세기에 창건돼 17~18세기에 현재 모습으로 정착해 완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구오 짠 이코모스중국위원회 부회장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종교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개관' 주제 발제를 통해 "문화유산 원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역사에 대한 신뢰성 있는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불교 유산의 살아 있는 특성과 진정성을 포함하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술대회 이후에는 등재 대상 사찰인 법주사와 마곡사 일원에 대한 답사가 이뤄졌다.

한편, 등재추진위는 이번 국제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등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10월 경에는 '불교유산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를 주제로 세계 불교유산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학술대회를 한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오는 2017년까지 등재를 위한 연구와 조사, 국내외 학술회의를 열고 유네스코의 현지 실사를 거친 후 2018년 세계 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월호의 두 번째 기적을 꿈꾸다

생명평화 기원 걷기명상

4월 21일 100회차 맞아

시민사회 · 붓다로살자 등 참여

2013년 5월부터 매주 진행해

통일 · 노사 · 전쟁 등 주제 다양

"쇄신을 위한 기도이자 실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활동가들과 결사 모임 '붓다로 살자' 회원과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이 참가하는 '한반도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걷기 명상' 은 4월 21일 100회 걷기 명상을 진행했다.

4월 21일 정오 서울 조계사. 60명의 사람들이 커다랗게 원을 두르고 대웅전 앞마당에 섰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회와 기적을 바라는 서원의 기도문을 읽고 내려간 이들은 형형색색 손 피켓을 들고 이내 일주문을 나와 걷기 명상을 진행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활동가들과 결사 모임 '붓다로 살자' 회원과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이 참가하는 '한반도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걷기 명상' 은 4월 21일 100회 걷기 명상을 진행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생명 존중 사회를 기원했다.

이날 걷기 명상에는 조계종 자성과쇄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과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도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국민은 진상규명과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중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불교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쇄신이다. 걷기명상은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쇄신을 위한 수행이자 기도이며 실천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일주문을 거쳐 안국동 사거리, 수송공원 등을 걸으며 세월호가 생명평화로 승화되길 기원했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세월호 문제를 잊지 않기 위해 걷기명상을 했다"면서 "우리의 메시지가 희망으로 다가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걷기 명상' 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결사모임 붓다로살자를 중심으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진행해왔다.

걷기명상은 '내 일터부터 평화를 만들자' 는 취지로 시작해 그간 △남북이 대화합시다 △개성공단 재개합시다 △이산가족 상봉합시다 △철도문제 대화로 풉시다 등 사회 갈등 문제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이뤄졌다.

박상진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그물코 팀장은 "앞으로는 대중적 동참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추대법회, 5월 7일 개최

10일 임회서 확정…추대위 구성

해인총림 해인사 제9대 방장 벽산당 원각 스님의 추대 법회가 오는 5월 7일 오전11시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행된다.

해인총림 해인사는 4월10일 임회에서 방장추대위를 구성하고 5월 7일 방장 스님 추대법회를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방장추대위 대표는 해인사 주지 선해, 백련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전 조계종 종회의장 향적 스님이 공동으로 맡게 됐다.

해인총림 방장추대위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과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등 각 총림의 방장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종단 대표 스님을 비롯해 제방 대덕 스님들이 다수 초청될 것"이라며 "지역 기관 대표들도 두루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인총림은 지난 3월 7일 방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원각 스님을 차기 방장 후보로 추대했으며 3월 17일 조계종 임시 중앙종회를 통해 추대가 확정됐다.

한편,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범산)는 4월 22일 열린 35차 회의에서 성공 스님이 제기한 '인사심의특별위원회의 해인사 방장 자격심사' 와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에 관한 소청 심사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신성민 기자

圓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종정 영산당 일공 대종사 寂

大韓佛教 **圓融宗 宗正 靈山堂 一空 大宗師** 영결식에 同參하여주신 각 종단 총무원장 대덕 큰스님과 각기관 단체장등 사부대중 모든 분들께 우선 지면을 통하여 합장 정례하여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원융종 전 종도는 열반하신 종정예하의 유지를 잘 받들어 종도가 화합하여 원융무애 사상을 면면히 이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큰스님의 49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 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초재 4월22일(음) 3월 4일 수요일
2재 4월29일(음) 3월 11일 수요일
3재 5월 6일(음) 3월 18일 수요일
4재 5월13일(음) 3월 25일 수요일
5재 5월20일(음) 4월 3일 수요일
6재 5월27일(음) 4월 10일 수요일
49재 6월 3일(음) 4월 17일 수요일

■ 장소 : 원융종 총본산 원융사

장위위원
- 증 명 : 유념 법신
- 고 문 : 평신 , 성인 , 체의 , 성관 , 법성
- 자문위원 : 서의현 큰스님, 전운덕 큰스님, 홍파 큰스님, 전남정 큰스님, 도산 큰스님
- 봉행위원장 : 總務院長 원찬당 진호
- 부위원장 : 대천
- 봉행위원 : 원송, 도현, 혜민, 혜광, 해운, 체정, 체선, 체명, 선덕, 도선, 효진, 법성, 월암, 원덕.
- 집행위원장 : 원견
- 부위원장 : 석우 성수
- 집행위원 : 태상, 담원, 혜철. 우담. 성군. 의성. 추광, 법붕, 지성, 혜일, 무영
- 문 도

은상좌 : 체의, 체법, 체명, 체선, 체관, 체상, 체원, 체성, 체두, 체은, 체효, 체민.
법상좌 : 원산, 원선, 원정, 원법, 원견, 원담, 원성, 원관, 원보, 원홍, 원조, 원해, 원행, 원봉, 원대, 원전, 원덕, 원경, 원송, 원무, 원묘, 원강, 원당, 원엄, 원 은.
손상좌 : 해안, 진여, 진월, 진광, 해천, 세심, 세안, 금파, 화동, 해암, 선국, 선일, 성군, 연화, 진곡, 진율, 진명, 진홍, 진원, 연하, 불성, 홍법, 명진, 보정, 보각, 보운, 보선, 보타, 혜은, 보민, 보문, 보련, 보화, 보연, 보성, 보해, 보륜, 진조, 보명, 보광, 보현, 보경.
속가상좌 (세속인연) : 배석재, 배계자, 배진수, 배귀미, 박승식, 은희종, 김병국, 이은선, 일공 문도회, 비구니회, 원융사 신도회, 거사림회, 관음회, 자은합창단,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진흥회.

(社)大韓佛教 圓融圓(宗) 宗團葬 葬儀 委員會 문의 : 원융종 총무원 02-853-0531

법문 잘하는 노하우 전문 강사에게 듣다

비구니승가硏, 법륭사서 연수

법문을 잘하는 노하우를 배우는 전문 연수 강좌가 진행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는 4월 22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륭사에서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21세기 불교리더십과 명법문 노하우' 에 대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가 '희망의 불교교육을 위한 새로운 법문 노하우' 를 주제로 법문의 교수법(Teaching Method)적 관점 이해, 설법자(교수자)로서 역할 정립 방법,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고 답하는 기술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하오선 동국대 교수법 연구초빙교수가 '명법문과 학습의 이해' 를 주제로 신청자들의 학습심리유형을 사전 조사 후, 이를 분석하여 법문방법의 수월성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했다.

비구니회는 "스피치 유형을 분석해 효과적인 법문방법을 습득하고 의사소통 및 스피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번 연수를 통해서 21세기 불교여성지도자로서 비구니스님의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는 4월 22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륭사에서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21세기 불교리더십과 명법문 노하우' 연수를 개최했다.

조계종 진흥원 특위 진흥원 재방문 한다

4차 소위서… 정관 자료 요청

조계종 중앙종회 '대한불교진흥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념, 이하 진흥원 특위)' 가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재방문을 추진한다.

진흥원 특위 소위원회는 4월 21일 4차 회의를 열고 진흥원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한 2차 방문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진흥원 특위는 빠른 시간 내 진흥원 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4월 30일 안으로 방문 날짜를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진흥원 특위는 20일 진흥원으로 정관과 예 · 결산서 등 재정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신성민 기자

"이제 학교 발전 위해 사부대중 '힘' 모을 때"

인터뷰 – 동국대 신임 이사장 일 면 스님



'총장 선출' 시급한 당면과제

지금까지 갈등, 발전 위한 과정

"합리적이고 공명한 태도로 헌신"

이사장 등기 마쳐…학내 안정 우선

"동국대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급한 일은 학교를 실제로 이끌어 나갈 총장을 선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학교구성원들을 비롯해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사진〉은 4월 21일 동국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동국대는 학교 운영에 대한 종단 개입을 비판하는 구성원들과 빠른 학교 안정화를 주장하는 구성원들이 대립하며 내홍에 싸여 있었다. 지난 4월 14일 법원의 판결 이후 일면 스님은 학교법인 이사장 등기를 마쳤다. 아직 취임식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학교는 신임 이사장 일면 스님을 중심으로 안정돼가고 있다.

스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새로운 동국대의 백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며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태도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일면 스님 체제 하에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최대한 빨리 연다는 계획이다. 동국대는 당초 4월 25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했지만 학생들의 집회신고로 인해 연기된 상황이다.

동국대 승가학과(선학과 전신)를 나온 동문이기도 한 일면 스님은 "더 이상 반목하면 학교 발전은 요원해 질 뿐"이라며 "조속히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 총장을 중심으로 동문과 교직원, 학생들 등 구성원들과 조계종단 스님들과 불자들이 손잡고 뛰어가야 한다"고 학교 정상화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동국대는 총장 선출 외에도 현재 다양한 현안 문제가 있다. 학령인구감소로 교육부가 4월부터 대학평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올해로 개원 10년을 맞는 의료원 발전 문제, 지난해 개원한 바이오생명공학대 정착 등이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스님은 "현재 학교 내에 경영시스템팀이 구성돼 교육부 평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매일 지속 보고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스님은 오히려 학교 측이 대비를 하고 있기에 총장 선출 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좋은 평가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현 국면에서 종단과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스님은 필요하다면 오히려 종단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동국대는 해인사, 통도사 등에서 십시일반하여 만든 종립대학으로 수많은 불자들의 피눈물과 근현대 고승대덕들의 향훈이 서려있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저의 힘보다 종단의 힘은 100배 많다. 동대 발전을 위해 이사장과 총장의 힘이 부족하다면 종정 스님을 비롯해 종단의 원로스님, 총무원장 스님 등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일면 스님은 종립학교 법인인 광동학원 이사장으로 분규에 처해 있었던 학교를 안정화시키고 발전으로 이끈 전례가 있다. 1993년 봉선사에서 만장일치로 분규 중이었던 광동학원 이사장을 맡아 학교 발전을 이끌었다.

당시 봉선사 사중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취임한 후 학교 안정화를 이끌고 이후 18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얻는 등 발전에 기여했다.

소위 '맨 땅에 헤딩' 이라던 불교계 장기기증활동도 마찬가지다. 일면 스님이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이 되고서 매월 후원자와 장기기증자가 늘고 10억원 상당의 사무실을 갖추는 등 기반을 다졌다. 군포교 분야에서도 초대군종교구장을 맡아 매년 10만명 수계를 달성하고 조계종의 군종교구 지원액의 10배를 직접 발로 뛰며 화주하기도 했다.

스님은 "규모면에서도 동국대는 학교뿐만 아니라 산하 중고등학교와 병원 등을 거느리고 있는 불교계 핵심교육기관"이라며 "인재양성의 산실인 점에는 같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소임임을 알고 있다. 일류동대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다"며 거듭 원을 세웠다.

스님은 끝으로 "그동안 동국대 내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참회한다. 속담에도 비오면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동국대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라며 종립 동국대 발전에 불자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5월, 전국은 연등 물결

교구본사 · 사암련 부처님오신날 행사 '다채'

부처님오신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사찰과 지역 봉축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봉축행사가 진행돼 눈길을 끈다.

먼저 불도(佛都) 부산은 부산시 불교연합회를 중심으로 봉축행사가 준비 중이다. 5월 1일에 부산시민공원에서 점등식이 진행되며, 3일까지 전통문화체험마당과 공연마당이 펼쳐진다. 부산의 제등행렬은 5월 17일 열리며 구덕운동장에서 출발해 국제시장, 부산근대역사관을 지나게 된다.

부산 기장사암연합회도 5월 10일 기장중학교에서 연등문화축제를 열고 법요식과 문화체험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대구는 5월 9일 대구 지역 연등행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불교총연합회는 5월 2일 인천시청 앞에서 점등식을 개최하며 분수광장에서는 미추홀 예술축제를 진행한다. 또한 5월 9일에는 영산재와 합창제, 미추홀 힐링음악회, 봉축법요식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광주는 광주불교연합회를 중심으로 봉축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오는 5월 2일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점등식이 열리며,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공원 앞 광주천에서 전통등 전시회가 진행된다. 광주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5월 23일에 개최되는 행사들이다. 이날에는 관등법회와 연등행렬,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관등 음악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잇달아 광주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전불교사암연합회는 불교연합합창제를 4월 30일 우송예술회관에서 개최하며, 5월 11일 서대전역 광장 일원에서 연등 점등법회를 연다. 또한 5월 17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봉축법회와 연등행렬을 진행한다.

가톨릭 순교성지인 해미읍성에서 연등축제가 진행되기도 한다. 조계종 서산시주지협의회는 5월 9일 서산시민과 함께하는 2015년 연등축제를 해미읍성에서 개최한다. 제등행렬은 법요식 후 오후 7시30분부터 진행되며 해미읍성의 성곽 1.8km 구간에서 실시된다.

서울에서도 다양한 봉축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5월 9일에는 조계사와 전국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철야 정진이 진행되며, 불교중앙박물관에서는 불전장엄을 주제로 특별전을 5월 15일부터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지방봉축행사 일정

봉축위원회	행사명	일시	장소	연락처
부산	점등식, 탑돌이	5월 1일	송상현광장 (부산시민공원)	051)867-0501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전통문화체험마당, 공연한마당	5월 1일~3일	송상현광장 체험존, 특설무대	
	전통등 전시회	5월 1일~17일	송상현 광장, 중구 광복로, 거리연등 전시	
	불교사진 전시회	5월 1일~17일	송상현광장 일원	
	전통, 창작등 공모전	5월 1일~17일	송상현광장 야외 전시장	
	어울림마당	5월 17일	구덕종합운동장	
	연등행렬	5월 17일	구덕종합운동장→국제시장→부산근대역사관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	5월 25일	범어사 및 각 사찰	
(부산) 기장	연등문화축제 (문화체험, 법요식, 문화공연)	5월 10일	기장중학교	051)727-2393 (장안사) 기장사암연합회
대구	동지승 삭발식 및 수계법회	4월 14일	팔공총림 동화사	053)623-6388 대구봉축위원회
	달구벌 점등식	4월 18일	국채보상공원	
	달구벌 연등놀이 (문화체험, 공연, 등전시)	5월 2일~5일	중등교 신천둔치일대	
	법요식 및 연등행렬	5월 9일	두류야구장→반월당 네거리	
인천	점등식, 올해년 소원지 쓰기	5월 2일	인천시청 앞	032)529-0108 인천불교 총연합회
	미추홀 문화예술 축제	5월 2일~9일	시청앞 분수대광장	
	전통등 전시회	5월 8일~9일	인천종합 문화예술회관	
	전통문화체험, 영산 · 수륙재, 합창제	5월 9일		
	봉축법요식			
	미추홀 힐링음악회			
광주	어린이 사생대회(연꽃문화제)	4월 26일	무각사 앞 주차장	062)385-1311 광주불교연합회
	점등식	5월 2일	아시아문화전당 앞	
	전통등 전시회	5월 15일~27일 5월 16일~27일	광주광역시청 광주공원 앞 광주천	
	관등법회, 연등행렬	5월 23일	광주공원, 시내일원	
	빛고을 찻자리 경연대회, 시연회	5월 23일	광주공원 앞 특설무대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			
	관동음악회			
	외국인 문화체험, 전통문화체험	5월 23일	광주공원 앞 광주천	
	전시회	미정	빛고을 시민문화관	

봉축위원회	행사명	일시	장소	연락처
대전	불교 연합 합창제	4월 30일	우송예술회관	042)526-1080 대전불교 사암연합회
	4.8 봉축연등 점등법회	5월 11일	서대전역 광장	
	4.8 봉축대법회	5월 17일	서대전 시민공원	
	연등행렬	5월 17일	시민공원→대전역	
울산	불교한마당잔치	5월 9일	태화강둔치	052)266-3318 울산광역시 봉축위원회
	태화강연등축제	5월 10일	태화강둔치	
	연등행렬	5월 10일	울산시내일원	
	연등달기(만등불사)	5월 1일~13일	울산태화강 일원	
속초	격오지 소초 방문	4월 8일~5월 25일	22사단	033)636-7393 (신흥사) 속초사암연합회
	점등탑 점등식	4월 25일	구)소방서앞 전광탑	
	동자승 수계식	5월 1일	신흥사 극락보전	
	설악산 신흥사배 축구 · 야구대회 전통문화 가족한마당 축제	5월 2일~3일	속초시 종합경기장	
	22사단 수계법회 산생교육대 위문법회	5월 중	운학사	
	4.8 봉축 연등행렬, 자비나눔전달식	5월 16일	엑스포광장(상징탑)→시청→동명항	
	설악산국립공원사랑 사생 및 글짓기 대회	5월 16일	속초시 종합경기장	
	4.8 봉축 법요식	5월 25일	신흥사	
창원	봉축탑 점등식	5월 3일	창원시청광장	055)222-1393 창원시불교연합회
	다문화, 외국인 이주민 한마당축제	5월 17일	진해 중원쉼터	
	연등행렬	5월 17일	진해 중원쉼터	
	봉축 법요식, 음악회	5월 22일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장	
김해	점등식	5월 9일	시민의종 광장 옆	055)322-0088 김해불교 사암연합회
	시민 연등축제, 행렬	5월 16일	시민의종 광장 앞	
전주, 전북	기원탑 점등식	4월 25일	종합경기장	063)277-3497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전북어린이 큰잔치	5월 2일	덕진공원	
	6탄약창 연등제	5월 14일	6탄약창	
	전북불교연합 합창제	5월 15일	솜리예술회관	
	연등행렬	5월 23일	시청광장	
	법요식	5월 25일	각 법당	
	청소년 모악축제	5월 30일	금산사	
서산	체험행사, 문화공연, 관불의식	5월 9일	해미읍성	041)688-0812
	연등행렬	5월 9일	서산시 주지협의회	
제주	봉축탑 점등식	4월 25일	해태동산 6호광장	064)759-1080 제주불교연합회
	봉축연합 합창제	5월 9일	제주 아트센터	
	봉축대법회 및 제등행렬	5월 16일	제주 종합경기장 광장	

동남아 오지 학교건립 및 장학금 조성을 위한 천호월서선사 산수전

千湖月叙禪師傘壽展

• 전시기간 : 2015. 4. 29(수) ~ 5. 5(화) • 전시장소 : 인사동 한국미술관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원 • 주관 : 천호희망재단

초대의 말씀



인생 팔십을 되돌아볼 때 佛法의 本參公案을 確徹大悟하지 못한 小衲이 傘壽展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산수전은 小衲이 필생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동남아 오지 학교건립 및 장학금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하여, 鏡虛 · 滿空 · 曉峰禪師 등 근현대 선지식 스님의 오도송을 비롯한 4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분망하신 중에도 꽃향기 가득한 계절에 펼쳐지는 금번 산수전에 왕림하셔서 그윽한 묵향과 함께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산수전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열악한 여건과 가난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남아 오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시기를 앙청합니다.

2015년 4월

千湖希望財團 千湖堂 月叙 合掌

조계종 대종사(大宗師) 월서선사의 혼신을 다한 서예작품 430여 점!!

– 동남아 오지 교육불사를 위한 자비의 실천
– 근·현대 선지식 스님들의 오도송, 열반송을 쓰다
– 정통서법에 근간을 둔 선묵(禪墨), 선필(禪筆)
– 한국 불교 큰 스님들의 찬조 출품
– 순간순간의 깨달음을 이어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수행정진



〈인사동 한국미술관 교통편 안내〉

▶지하철
–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인사동사거리 방면으로 도보 150m
– 1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에서 인사동 방면으로 도보 150m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12 대일빌딩 2층 Tel. 02-720-1161



應無所住而生其心 137×35cm



佛心 65×95cm



漢岩禪師 悟道頌 35×136cm



映岩任性禪師 涅槃頌 35×136cm



曉峰元明禪師 涅槃頌 35×136cm



月庵正大禪師 悟道頌 35×136cm

일 주 문



제805주기 보조국사 종재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5월 14~15일 제805주기 보조국사 종재와 보살계 수계산림을 진행한다. (061) 755-0107



난치병어린이돕기 3천배 정진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5월 2일 오후 2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돕기 3천배 정진기도를 봉행한다. (055)382-7182



동산스님 열반50주기 행사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5월 3일 범어사에서 동산스님 열반 50주기 문도교학대회와 11일 추모다례재를 개최한다. (051)508-3122



해인만다라 글그림 대회

합천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은 5월 23일 오전 10시 해인사 일원에서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 · 그림대회 '해인만다라' 를 개최한다. (055)934-9004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대구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5월 2~5일 대구 신천 일대에서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를 진행한다. (053) 982-0101



제3회 어린이연등꾸미기 경연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5월 2일까지 '제3회 어린이 연등꾸미기 경연대회' 응모작을 모집한다. 수상자는 5월 7일 발표된다. (02)3218-4817



관음사 괘불 점안법회

청주 관음사 주지 함현 스님은 5월 10일 오전 10시 청주 관음사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을 법사로 괘불 점안법회를 개최한다. (043)256-6254



'당당한 신노인 바운스' 행사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5월 7일 복지관 관내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당당한 신노인 바운스' 행사를 개최한다.



BBS불교방송 25주년 특별방송

이채원 BBS불교방송 사장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창사25주년 특별생방송을 마련한다.



제7회 대전불교합창제

이혜경 대전불교합창단연합 회장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4월 30일 오후 6시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제7회 대전불교합창제' 를 개최한다.

"7분 집중하면 긍정 에너지 분출돼"

'생활 선' 대중화 위해 '부처님마을' 개원한 보현 스님



매주 화토일 생활선 명상법회 열어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 펴내기도
1:1 개인 맞춤 생활선도 집중 지도

"차분히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긍정 에너지와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의 방향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전환하려면 업에 의해 고착화된 습관적 에너지를 바꿔야 가능해집니다."

〈생활 선(禪) 안내서〉를 펴낸 유명가수 출신 보현 스님이 최근 서울 평창동에 힐링 명상선 수행도량 '부처님마을' 을 개설해 호응을 얻고 있다. '부처님마을' 은 매주 화 · 토 · 일 요일 오전 10시마다 '행복한 생활선, 성공선' 을 주제로 한 명상법회를 연다. 보현 스님은 "경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심신이 지쳐있다. 이들에게 이제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바쁜 일과 속에서 따로 시간 내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딱맞는 '생활 선' 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도심 속에 도량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스님은 이어 생활선에 대해 설명했다.

"많은 시간 수행하는 것보다 하루 7분 정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을 집중하는 7분 수행을 하면 무슨 일이라도 안정된 상태로 잘 할 수 있습니다."

보현 스님은 법회나 개인 상담을 통해 불자들이 7분 명상을 비롯해 마음공부와 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보현 스님은 자신의 수행을 '애벌레 선' 이라고 명명했다. 지리산서 수행할 때 눈앞에서 사뿐히 날아오르던 흰나비를 보고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였다고 한다. 배추벌레조차 나비가 되어 대자유를 찾아 떠나는데 우리 중생들도 번데기 속에만 갇혀 있지 말고 마음공부를 통해 훨훨 날아오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마음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선 무엇부터 잘못 됐는지 원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내 본래의 진면목을 보려면 내가 옳다는 생각부터 없애야 하지요. 자기만 옳다고 집착하는 만큼 아픔과 고통은 점점 더 커지는 법입니다. '부처님마을' 서 가르치는 애벌레선은 참나를 올바르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생활인이 해야 합니다."

보현 스님의 이런 마음수행은 과거 자신의 독특한 이력과도 무관치 않다. 스님은 "인기 절정이었던 톱스타 시절에도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수행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여고생 시절 친구와 서울 남산에 산책을 갔다 영화진흥공사 기획자 눈에 띄어 '이경미' 란 이름으로 연예계에 발을 디뎠다. 이후 1984년 가요대상 신인상 후보에 올랐고, 인기 절정이던 1987년 김혜수 · 길용우 주연의 KBS 인기드라마 '사모곡' 주제가를 부른 뒤 홀연히 사라졌다. 선원(禪院)인 수덕사 견성암에서 법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보현스님은 줄곧 선 공부와 수행에 힘쓴 것이다.

스님은 좀 더 대중속으로 들어가 생활선을 통해 마음치유 하는 큰 원을 세웠다.

"좋지 않은 생각은 버리고,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조금씩 모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데 집중해 보세요. 좋은 일이 계속될 때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참된 마음을 찾을 때 부처님 가피도 따라 오듯이 자기 생각을 관찰하고 스스로 진단하는 능력이 되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모두 떨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마을 (02)379-2010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원주 치악산 성문사, 일주문 낙성 법회

상월대조사 오도송 새긴 성문법어벽 제막도



천태종 원주 성문사가 사찰의 관문인 일주문을 낙성했다. 또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의 오도송, 2대 종정 대충대종사와 현 도용 종정예하의 법어, 천태지자대사 교설과 화엄경을 새긴 성문법어벽도 완공, 공개했다.

천태종 원주 성문사(주지 도원 스님)는 4월 22일 신축 일주문 앞서 낙성식을 봉행했다. 낙성식에는 천태종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해 원로원장 운덕 대종사, 총무원장 춘광 스님, 김기선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만희 원주부시장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 일주문 낙성을 축하했다.

이날 도용 종정예하는 "한량없는 신통의 문이 세워졌으니 일체중생 포섭하는 자비의 문이요, 무량한 공덕을 일으키는 지혜의 문이며 생사윤회 벗어나는 해탈의 문이구나. 범부와 성인이 함께 드나드는 문이라 허망한 분별을 버리고 또 버려라. 거룩한 빛은 신령하고 신령하여 본래부터 나고 죽음이 없구나"라고 법어를 내렸다.

이에 앞서 주지 도원 스님은 불사를 원만히 마치는데 도움을 준 김만국 도편수, 단청불사를 맡은 한문수 씨, 각자를 한 이채우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전달 후 개회사에서 "성문사는 넓은 경내에 큰 법당이 건립되었지만 도로와 인접한 출입구에 성문의 경계를 알리는 일주문이 없음을 아쉬워하던 차에 종정예하의 재가를 얻어 불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일주문 건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심 하나로 이 불사를 이루도록 노력해주신 신도회장을 비롯한 간부님들, 성문사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일주문과 성문법어벽을 갖춘 성문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구법 수행하는 많은 불자 법손들이 찾아오는 영서제일의 도량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의 뜻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 낙성

착공 4년만에, 연건평 9300㎡ 4층 규모



분당 대광사(주지 월도 스님)는 4월 21일 전통명상수련센터 및 지관전 낙성법요식을 봉행했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삼존불 및 상월원각조사 존상 봉안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천태종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해 운덕 대종사,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BTN불교TV 이사장 성우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 스님, 남경필 경기도지사, 나종민 문체부 종무실장, 이재명 성남시장, 전하진 · 강석훈 국회의원, 박권종 성남시의회의장 등 정관계 인사, 대광사 신도 및 불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낙성법요식에서는 대광사신도회가 불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종정 스님의 표창패를 받았다. **김주일 기자**

군종교구, 1300명에 자장면 공양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은 4월 10일 제26사단 포병여단(여단장 대령 안종영)을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 자장면 공양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병여단 자장면 공양은 총 1300명 분이 제공됐다. 행사에는 26사단장, 6포병여단장, 26사단 포병여단장 및 대대장들과 6군단 예하 법사님들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법왕사 29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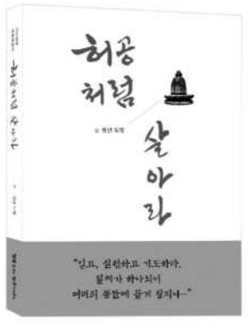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4월 20일 강주 일진 스님을 법사로 제29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식을 개최했다. 법왕사는 7월 28일까지 100일간 법사스님들을 초대해 설법회를 갖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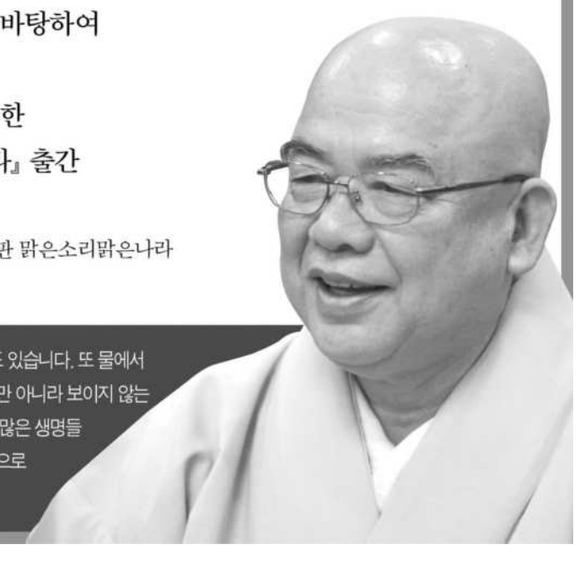
원산 도명스님 법문집
『허공처럼 살아라』 출판기념법회

일 시 2015년 5월 6일 수요일 오후 4시
장 소 국제신문 4층 대연회장(대강당)
문 의 통도사 종무소 055-382-7182



원산스님이 지계 정신에 바탕하여
선禪과 교敎를 수행하고
주지 소임을 살면서 체험한
산 법문 『허공처럼 살아라』 출간

글 원산 도명 | 펴낸곳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300쪽 | 15,000원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태에서 난 생명도 있고, 알에서 난 생명도 있습니다. 또 물에서 난 생명도 있고, 태의 변화로 난 생명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까지 합친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자 행운인 것입니다. - 본문중에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온 가족 함께 山寺로 가서 '만원의 행복'을 만끽하세요

문화사업단, 5월 관광주간 '행복 만원 템플스테이'

오는 5월 12일까지 1만명 접수
전국 77곳 사찰서 만날 수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 '원기 충전'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한숨은 깊다. 어린이날, 어버이날까지 주머니 사정은 가벼워만 진다. 버스, 지하철, 식당, 커피숍은 늘 만원(滿員)이다. 여유와 쉼 없는 삶 속은 나를 지치게 하고 가벼운 주머니는 나를 서럽게 만든다. 어디론가 가고 싶어도 마음도 주머니도 여유가 없다.

하지만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관광주간에는 주머니 사정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둬도 될 듯하다. 단돈 1만원으로 행복과 소망을 충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전국 사찰에 열리기 때문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2015 봄 관광주간을 맞아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1만원에 체험할 수 있는 '행복만원(幸福滿願) 템플스테이'를 연다.

이번 행사는 2015년 5월 1일(금)부터 14일(목)까지, 봄 관광주간과 발 맞춰 진행되며, 14일간 전국 각지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77곳(수도권 27곳, 강원도 7곳, 경상도 19곳, 전라도 17곳, 충청도 7곳)에서 아름다운 산사의 봄을 만끽해 볼 수 있다.

봄을 맞아 재정비된 각 사찰의 대표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참선, 스님과의 차담, 108배 등 지친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가는 수행 프로그램은 물론, 찻잎 따기, 선무도 수련, 역할극, 손수건 염색, 만다라 명상 등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특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한 트레킹과 숲 명상은 꽃놀이가 그리운 이들에게 제격이다.

서울에서는 관광주간동안 지난해 가을 진행돼 호평을 받았던 '템플스테이 위크'가 진행된다. '템플스테이 위크' 대상 사찰은 조계사, 봉은사, 국제선센터, 화계사, 길상사, 관문사, 금선사, 묘각사이다. 이들 역시 행복만원 템플스테이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2일(화) 17시까지이며,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전용 예약 페이지(spring.templestay.com)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선착순 신청자 10,000명에 한하여 당일 템플스테이는 5천원,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1만원에 제공된다.

한편 대서양을 넘나들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온 청년 멘토 혜민 스님과의 만남도 놓칠 수 없는 혜택 중의 하나.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참가자에 한하여 혜민 스님과 함께 하는 '행복토크콘서트' 무료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그 동안 단순한 체험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행복 여행으로 진화해왔다"며 "이번 봄 관광주간을 맞아 온 국민이 청정한 자연 속에서 행복의 의미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관광 100선도 가볼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한국인이 좋아하고,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관광지를 선정해 발표한 '한국관광 100선'도 주목할만 하다. 올해 100선에는 명찰 6곳이 포함됐다. 선정된 사찰들은 양양 낙산사, 보은 법주사, 여수 향일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영주 부석사, 합천 해인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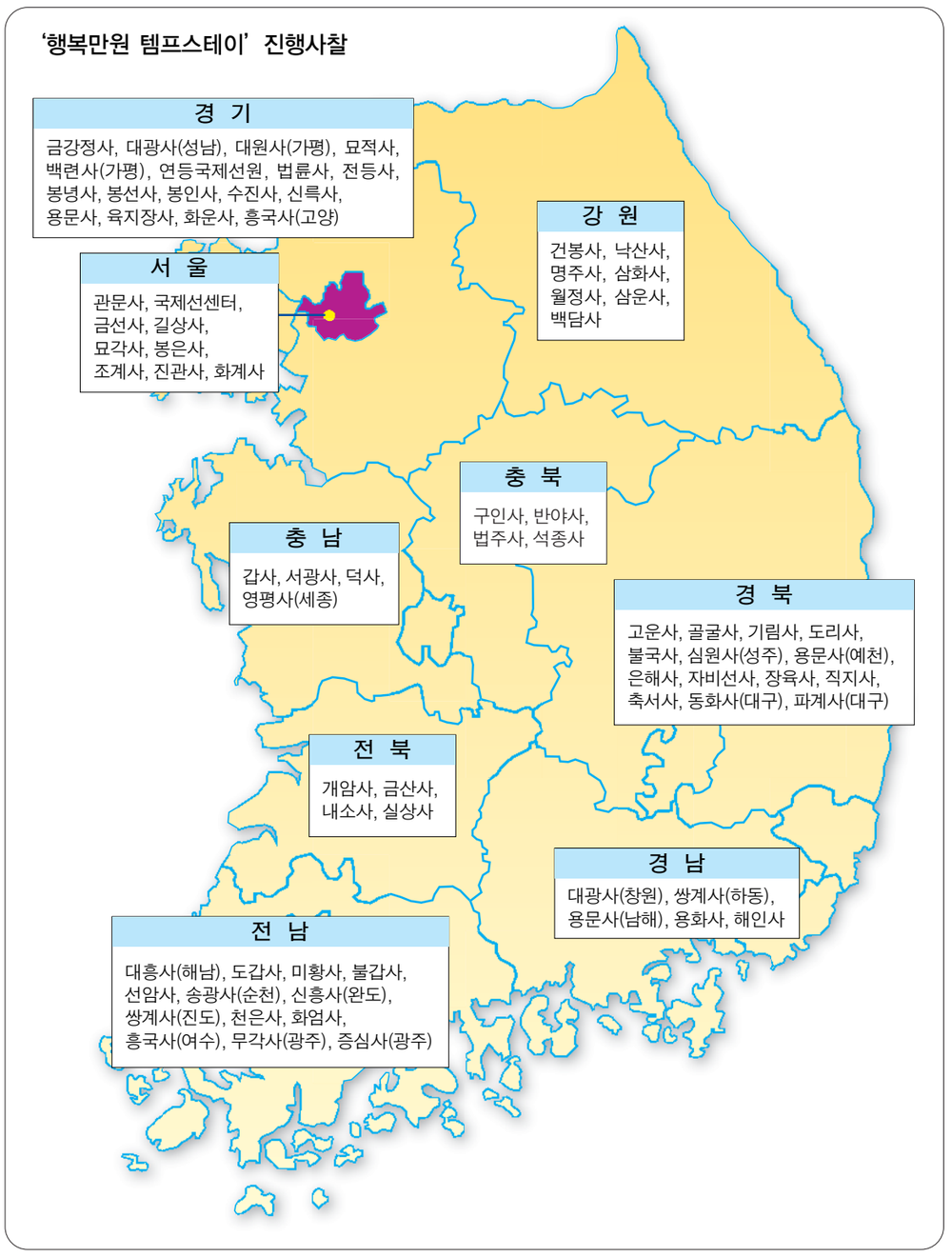
'한국관광 100선'은 지역에서 인정받는 명소와 국민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한 대표 관광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8개, 강원권 15개, 충청권 10개, 전라권 18개, 경상권 28개, 제주 11개이다.

선정을 위해 문체부는 지자체의 지역 대표 관광지 추천과 블로그, 트위터, 커뮤니티 등 온라인 내 거대 자료(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후보를 도출했다.

서울 5대 고궁, 양평 두물머리, 설악산, 보은 속리산 법주사, 덕유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창녕 우포늪, 우도 등 39개의 관광지는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100선에 선정됐다.

문체부는 "거대자료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테마여행보다는 지역여행을 선호한다는 점, 최근 여행과 관련해 여행기, 여행계획 등을 직접 기록하는 자기 주도적 여행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등, 우리 국민들의 여행 최신 경향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관광 100선 in 사찰

4대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

양양군 북쪽 해안에 위치한 낙산사(洛山寺)는 오봉산(五峰山)을 배경으로 하여 신라 고승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의 계시를 받고 지은 절이다. 한국 4대 관음성지(觀音聖地)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05년 강풍을 타고 넘어온 화마로 사찰이 전소됐으나 10년여의 복원불사 끝에 제 모습을 찾았다. 주위에는 낙산, 설악 해수욕장이 있으며, 항구도 가까워 먹을 거리도 많다.





아름다워라 팔상전 보은 법주사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는 1400년전 신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24년째인 진흥왕 14년(서기 553년)에 의신조사가 창건됐다. 이후 776년 진표 및 영심 스님 대에 중창을 하였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해 사찰의 거의 모든 건물이 전소됐다. 이후 1624년에 이르러 벽암 스님에 의해 또다시 중창을 하게 되었다. 법주사는 산채비빔밥으로 잘 알려있다. 현재는 산채비빔밥 거리도 조성돼 있다.

무량수전 앞에 서서 영주 부석사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 화엄종의 종조(宗祖)인 의상대사가 왕명으로 창건한 화엄종의 수사찰(首寺刹)이다. 고려시대에는 선달사(善達寺) 혹은 흥교사(興敎寺)라 불리웠다. 경내에는 유명한 무량수전(국보 제18호)부터 무량수전 앞 석등(국보 제17호), 조사당(국보 제19호), 소조여래좌상(국보 제45호), 조사당 벽화(국보46호) 등 무수히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추억이 새록새록 불국사·석굴암

'불국사와 석굴암을 가지 않고 경주에 왔다고 할 수 없다.' 경주 토함산 자락의 불국사와 석굴암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불국사와 석굴암은 경주에서 꼭 둘러봐야 하는 필수 답사 코스로 신라시대 불교문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석굴암 너머 장항리사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걸작으로 평가받는 오층석탑을 만날 수 있다.

부처님 법이 곳곳에 합천 해인사

해인사는 법보종찰이요, 화엄십찰의 하나이다. 최치원의 가야산 해인사선안주원 벽기에 의하면 해인사는 순응, 이정 스님에 의하여 신라 애장왕 3년(802)에 창건되었는데, 그때 왕의 조대비 성목태후가 대시주였다고 한다. 해인사를 우리나라 삼보사찰의 하나인 법보사찰이라 부르는 것은 해인사 대장경판전에 고려대장경판인 법보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해 일출 명소 여수 향일암

644년 신라의 원효대사가 창건한 여수 향일암은 남해 일출 명소다. 12월 31일에서 1월 1일까지 향일암 일출제가 열리고 있어 이곳 일출 광경을 보기위해 찾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나오는 길엔 방죽포 등 해수욕장이 많고, 돌산공원, 무술목전적지, 고니 도래지, 흥국사 등이 가까이 있다. 향일암에는 7개의 바위동굴 혹은 바위틈이 있는데 그 곳을 모두 통과하면 소원 한가지는 반드시 이뤄진다는 전설이 있다.



신행 · 포교 소식

서울의 역사를 한번에 살핀다

시민행성 인문프로젝트 4월 29일부터 개최

실천적 인문공동체 시민행성은 이화여대 인문한국연구소와 공동으로 4월 29일부터 5월 1일 매일 오후 7시 종로 란스튜디오에서 '인문프로젝트 선: 서울시간'을 개최한다.

4월 29일 첫 강연에는 송태현, 이영미, 오창은 씨가 '소설로 읽고 노래로 듣는 한양, 경성, 서울'을 4월 30일에는 함돈균, 김수자 씨의 '서울의 얼굴들, 시작부터 지금까지-궁, 광장, 한강 다리, 백화점'을, 5월 1일에는 오윤호 김미상 김애령 씨의 '서울이라는 이름의 도시' 강연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로 단체신청도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22회 길상화 장학금 전달식

맑고향기롭게, 4월 17일 개최, 41명 학생 대상 1년 학비 지원

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운, 길상사 주지)는 4월 17일 서울 길상사 설법전에서 제22회 길상화 장학생 수여식을 개최했다.

길상화 장학금은 길상사 창건에 기여한 故길상화 보살님의 정신에서 따온 것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30여명 선정하던 장학생 수를 2015년 41명으로 확대해 선정했으며 1994년부터 2015년까지 555명의 학생들에게 총 8억여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덕운 스님은 "앞으로 지방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수혜 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장학생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할지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으로 생활을 한다면, 살아가면서 오늘처럼 좋은 인연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장학증서 수여식 후 장학생을 대상으로 길상사 안내와 더불어 길상화 보살의 공덕비와 법정스님 진영각을 참배하는 일정이 진행됐다.

한편, 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는 법정스님이 창립한 순수시민모임으로 1994년 창립된 이래 22년째 이어지고 있는 단체다.

서울을 중앙모임으로 두고 대구, 부산, 광주, 경남 등 전국에서 뜻을 같이 하는 회원들이 장학사업을 비롯해 밑반찬 지원사업 등의 사회복지 사업, 음악회, 강연회 및 각종 자연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공무원 불자들 해외성지 순례 진행

7월 25일 중국 문수성지 오대산으로… 선착순 접수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김상인)은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7박 8일간 중국 문수성지 오대산 일대로 제13차 해외성지순례를 진행한다. 중국 3대 석굴인 운강석굴을 비롯해 현공사, 융흥사, 임제사 등을 둘러보는 이번 성지순례에는 공불련 회원 및 가족 35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공불련 측은 "불자로서 신행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다짐하는 자리"라며 "공무원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02)739-1080 노덕현 기자

불교명상지도자 본격 활동 나선다

한국명상지도자協, 4월 21일 창립총회 거행

불교명상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불교계를 대표하는 명상지도자들이 모여 만든 한국명상지도자협회(회장 용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4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명상지도자 협회 창립총회 및 기념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장 용타 스님(행복마을 이사장), 금강선원 주지 혜거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등 20명의 불교명상 지도자 및 포교원 인증 명상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표하는 명상지도자를 비롯한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창립총회에서 지원 스님은 격려사에서 "명상포교는 21세기 중요한 포교대안이라 생각한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애플 등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상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SK나 삼성 등 유수 기업들도 명상을 직원연수의 과정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이제 명상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산업, 예술, 심리, 건강, 환경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4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명상지도자 협회 창립총회 및 기념법회'를 거행했다.

오는 7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명상 저변 확대 좋은 기회"
불교계 명상 인재 네트워크 구축
국가 공인 자격증 발급 추진

이어 스님은 "오는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 학교에서 발달 수준에 따라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명상의 저변 확대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명상포교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명상과 인성 프로그램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 새로운 지평,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할 때,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큰 획을 그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회장 용타 스님도 "협회차원의 모임 자체가 중요하다"며 "밝고 설레는 마음으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회장인 인경 스님은 이날 창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스님은 "앞으로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명상의 실천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고,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유능한 명상 지도자를 양성할 것이며, 또한 명상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인성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온 명상 지도자들이 협회에 동참하여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 연대하여 시대적 과업을 함께 실현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지난 해 5월에 열린 '명상포교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포교종책 연찬회와 10월 구글 엔지니어 차드멩탄을 초청해 진행된 '창조경영을 위한 명상 포럼'을 통해 명상포교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한 명상전문가들에 의해 발족됐다. 협회 회원들은 지난 해 11월 '불교명상 지도자 간담회'와 지난 2월 '불교명상지도자협회 발족식'을 거치면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구체적인 계획과 틀을 잡아나갔다.

향후 협회는 △불교명상 지도인력 육성 △불교명상 대중화 △인성교육 지도자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세 가지 큰 틀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행사에서 인경 스님은 "불교명상 지도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교명상 지도인력 배출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 불교명상 지도인력을 육성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공인 통합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또한 국가로부터 인성교육 전문기관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회원단체들과 연구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협회장 용타 스님이 '동사섭의 역사와 명상 지도자의 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명상 상담, 현대인 심리치료에 큰 몫"

불교상담개발원, 22일 창립 15주년 세미나 개최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4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명상과 상담의 실제'를 주제로 창립 15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명상과 상담의 연계를 통한 심리치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4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명상과 상담의 실제'를 주제로 창립 15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은 '명상과 상담'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용타 스님은 "종교의 사명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불교 역시 상담 문화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45년 교화 생활이 야말로 상담 그 자체라 할 만큼 '상담적'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불교 상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불교 상담에 대해 △범

초월적 자기이해 바탕둔 명상
마음의 긍정적 요소 배양해

중생성 △방편의 개방성 △정체성 △상담 전문가 저변 확대를 발전 방안으로 제언했다. 용타 스님은 "동서고금의 모든 문화, 인문학, 사람 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모든 가능성이 바로 불교상담의 소재가 되고 자료가 돼야 한다"면서 "불교의 목적이 범중생과 존재의 이고득락이기 때문이다. 불교상담은 운신의 폭이 불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교 사상을 기저에 두고 상담을 하는 전문 상담가가 양산돼야 한다"면서 "범종단적으로 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전국 사찰 주지 스님들을 중심으로 상담가 인증서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자아초월상담학과 교수가 '명상의 심리치료적 이해'를, 김재성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교수가 '명상과 상담 사례발표- 자애명상을 중심으로'를, 김열권 위빠사나붓다선원장이 '명상과 상담 사례 발표-위빠사나 수행원리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4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명상과 상담의 실제'를 주제로 창립 15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상현 교수는 "명상을 기반한 심리치료는 마음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긍정적인 요소를 배양시킴으로서 심리증상을 해결하는 긍정심리학적 지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날 제8회 불교상담심리사 자격고시에 합격한 2급 110명, 1급 14명, 전문가 자격 2명에게 자격증을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제1기 불교의식 법음 범패 학인 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 교육과정 -

기본의식 (3개월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중급과정 (법음, 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법 :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작법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강주스님 : 일관

보경사 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불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5년 **5월 7일** (목)
→ **수 업**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3번지
→ **신청문의** : (054) 262-1117 (보경사 종무소)

※ 숙식 제공 가능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4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4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4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교계 복지관, 가정의 달 행사 '풍성'

어르신 댄스공연, 나들이, 합동결혼 등 다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교계 복지관은 어르신과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마련한다.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효(孝) 사상을 고취시키는 행사를 비롯해 가족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5월 7일 피카디리플러스 9층 콜라텍에서 '당당한 신노인 바운스 바운스'를 개최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당당한 신노인으로서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뉴스가 주관하고 조계사, 피카디리콜라텍, (사)한국민족전통문화실천협회, 남원 선원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종로구 어르신 약 1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팝페라 가수 조정호씨가 사회로 정율 스님과 함께하는 뮤직큐 공연이 식전공연으로 펼쳐지며 화합마당에서는 초청가수 염수현과 김서영, 대한뉴스 김원모 회장, 피키디리 콜라텍 밴드가 출연해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대한뉴스 김원모 회장의 특별공연'과 '피카디리 콜라텍 밴드와 함께하는 어르신 공연 무대'는 참석한 어르신들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착한 자장밥 나눔데이'로 운천 스님이 직접 준비하신 자장밥 도시락을 나눠줄 예정이다.

정관 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아 당당한 신노인으로서의 면모를 가감 없이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02)742-9500


2012년 5월 어버이날 경로행사에 초청된 어르신들이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종로노인	댄스대회
송산노인	문화페스티벌
광진노인	칠순잔치 · 나들이
낙동종합	과자집만들기 대회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법일)은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함께 걸어온 마음, 함께 걸어갈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5월 8~9일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8일에는 개관 1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경과보고, 복지관 10년사 영상 상영 등을 통해 복지관의 지난 10년 발자취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제11회 마음드림 합동결혼식이 운영지원사찰인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주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9일에는 지역사회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비나눔축제가 열린다. 신노년문화페스티벌, 신노년가요제, 먹거리장터, 자비바자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돼 복지관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031)852-2595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 '제12회 효사랑 나누기 한마당'을 5월 7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복지관이 주최하고 지역 유관기관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식전공연, 어버이날 기념식, 훌륭한 어버이 표창, 축하공연, 무료중식제공, 부대행사, 기념품제공 등이 마련된다.

한편 이에 앞서 6일에는 복지관 대강당에서 가족의 부재로 원활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광진구 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칠 · 팔순 잔치를 진행한다.

또한 복지관은 13일 이천 여명요 도자기 체험센터 및 설봉공원에서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문화 ·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광진구 어르신 행복나들이'를 실시한다. 참가 어르신들은 도자기 제작 체험을 하고 설봉공원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관장 화평 스님은 "5월 가정의 달 기간 동안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해 어버이에게 사랑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노인공경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02)466-6242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주묵)은 5월 5일 제15회 낙동가족축제를 연다. 지역 내 거주하는 80가정이 참가해 △동화 속 과자집 만들기 대회 △체험놀이마당(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천연비누 만들기 등) △레크리에이션 및 미니운동회 등을 선보인다. (051)271-0560

안양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양숙)은 5월 20일 지역 내 아동을 대상으로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한 그리기 대회인 '사랑해孝! 그려孝!'를 진행한다. 21~22일에는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홀몸어르신 고향방문 나들이 '수리수리 소원수리'를 마련한다. (031)455-0551

이나은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 전국 사찰자원봉사교육

4월 19일 인천 수미정사서 첫 교육 실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복지재단)이 4월 19일 인천 수미정사에서 전국사찰순회자원봉사교육을 첫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수미정사 회주 종연 스님의 인사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최종환 사무국장, 교육인적자원부문 이운희 부장의 주제 강연과 조계종자원봉사단원 선서문 낭독이 이어졌다.

종연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원봉사"라며 "실천과 하심을 통해 삶이 좀 더 힘차고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며 평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신도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복지재단은 "작년 세월호 참사 지원활동을 계기로 재난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와 실질적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요즘, 올해 전국사찰순회자원봉사교육을 통해 재난재해구호봉사의 전국네트워크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수미정사 신도들이 전국사찰순회자원봉사교육을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나은 기자

"우리마을 우리 손으로 가꾼다"

청솔복지관, 지역 6개초등학교와 화단가꾸기 실시

분당 청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창근)은 4월 17일 성남시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솔초, 양영초, 한솔초 등 6개 초등학교와 화단가꾸기를 실시했다.

이번 마을 활동에서는 각 학교별 5~12명의 초 · 중등학생과 복지상담사, 교사 등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꽃잔디, 팬지, 목마가렛, 버베나 등 다양한 꽃모종을 청솔마을6단지 화단에 식재했다.

청솔복지관은 "이번 행사는 성남시교육지원청과 지역 내 교육기관, 복지기관이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돼 아름다운 지역환경을 조성해 성공적이었다"며 "복지관은 앞으로도 해당지역이 나눔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마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 청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창근)은 4월 17일 성남시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솔초, 양영초, 한솔초 등 6개 초등학교와 화단가꾸기를 실시했다.

이나은 기자

"작은결혼 종교계가 돕겠습니다"

4대종교 지도자 · 여성가족부, 작은결혼 협약식 체결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 5198만원. '평생 한 번'이라는 달콤한 단어에 속아 허례허식에 수천만 원을 쏟아 붓는다.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 원불교 등 4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성가족부는 4월 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작은결혼 · 가족행복 더하기 프로젝트' 협약식에 참여, 기형적인 결혼문화를 바꾸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협약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대신해 포교원장 지원 스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이영훈 목사, 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을 비롯해 4대종교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여성가족부와 종교지도자들은 사회가 보듬어야 할 소중한 대상인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 협력의 실천의지를 선언했다.

협약은 우리사회의 과도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가족의 행복한 삶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형성 등 생명과 가족의 소중함에 기반을 둔 가족문화 확산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비용 혼례문화는 젊은 층이 결혼을 기피하고 미루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면서 "호화 결혼식장이나 부담스러운 축의금, 값비싼 혼수와 예단 등 '고비용 혼례문화'가 '작지만 알찬 결혼문화'로 바뀌도록 4대 종단과 힘을 합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축사에서 "불교는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특히 조계종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예비부부, 부모, 예비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결혼과 가정, 생명의 존엄 등을 주제로 한 법회나 교육을 실시해 생명과 가족에 대한 올바른 문화확산과 인식개선에 노력해 왔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여성가족부, 종교계와 함께 혼례가 남에게 보여 주기식의 겉치레 행사가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행사로 뿌리내리는 사회, 청소년이 각자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부와 4대 종단은 건전한 혼례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인 대상 종교시설 예식장 개방, 작은결혼식 서명운동 확산, 예비부부 · 부모대상 혼례교육 추진, 종교지도자 주례재능기부 참여 등을 협력키로 했다.



4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성가족부는 4월 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작은결혼 · 가족행복 더하기 프로젝트' 협약식에 참여했다. 왼쪽부터 천주교서울대교구 염수정 추기경,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홍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4월 13~24일 지역 10개 초 · 중등학교서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은 4월 13~24일 홍천 · 인제군 내 10개 초 · 중교에서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실시했다.

복지관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인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떤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장애인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휠체허 체험 △안대착용하고 점자블록 걷기 △영화관람하기 등의 체험교육도 실행했다.

복지관은 "홍천군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관내 8개 초 ·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033)435-7031


한 학생이 안대착용하고 점자블록을 걷는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화 풀이 살 풀이 꿈 해몽 대사전
화제의 책

꿈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심층 심리와 놀라운 예지력! 이런 꿈을 꾸면 이런일이일어 난다.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 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 모든것!

평소에 꾸는 꿈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올바로 해몽하여 바른 인생의 길잡이로 삼으십시오! 인간의 평균 수명을 75세로 했을 때 그 중 25년은 잠을 자는 시간으로 보내고, 25년 중의 10년은 또 꿈을 꾸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한다.

짧은 인생 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은 간단히 무시해 버리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아깝고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꿈풀이 전문가가 있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그 신비한 꿈의 올바른 해석에 관한 모든 비밀을 이 책을 통하여 속시원히 밝혀 보았다.

■ 金允中 지음 / 신국판 / 644쪽 / 정가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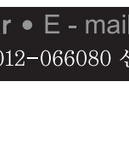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 을 치르고 주택 을 사고 주식 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正定’ 하면 매순간 집중… 정화의 꽃 피운다

길상사 일요 법회

법상 스님(조계종 포교연구실장)

개인의 정화(精花)는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이 되어 지구촌을 정화시킬 것이다. 청정한 불도(佛道)를 현실로 옮길 때 온 나라, 온 세계가 불국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은 4월 5일 길상사 일요법회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팔정도(八正道)’를 행함으로써 지구 촌락에 정화의 바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했다. 법상 스님은 “법정 스님이 강조하신 ‘맑고 향기롭게’ 사는 것 또한 정화의 시작”이라며 “이 법음이 내 삶을 타고 이웃의 삶이 되고 전 지구의 삶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리=박아름 수습기자



법상 스님은 … 1984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한 법상 스님은 동국대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하고 교육원 교육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과 교육원 교육아사리 소임 외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강사로 활동 중이다.

나부터의 정화로 지구촌을 정토화해라

여러분, 맑고 향기롭게 살고 계십니까? 법정 스님께서 생전 설하신 ‘맑고 향기롭게’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늘상 살아가는 지침으로 맑고 향기롭게 살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향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고 향기롭게’라는 의미 아래에 “불교의 정화(精花)는 나비 효과가 있다”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정화(精花)는 아주 맑고 향기로운 꽃이라는 의미도 있고, 청정한 불도를 현실로 옮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정화는 승가의 정화뿐만 아니라 불교의 자체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지구촌 시대입니다. 지구가 하나의 촌락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면 단위가 일일 생활권이었다면 지금은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 대한민국 불교의 정화가 세계 불교의 정화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신 맑고 향기로운 삶이 내 삶에서 벗어나 이웃의 삶이 되고 전 지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 법정 스님의 정초 법문 중 하나를 살펴보니, “시간을 살리는 삶을 사는가 하면 시간을 죽이는 삶도 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하지 죽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삶은 바로 정화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화는 우리 현실 속에서 불국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에서 정화는 개인이 이루는 하나의 정화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정화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혼탁함은 누구 하나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화의 꽃은 부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인도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펼쳐왔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정화는 현대에도 절실히 요청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다양한 불교적 패러다임을 배워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한들 우리 생활에서 하나의 가치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한낱 교과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알면 그 한 가지 만큼은 자기 삶의 패러다임에서 정토를 구현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정화는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이 큰 바람을 몰고 오듯 나비효과로 한국과 지구촌락이 정토화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2600여 년 전에 부처님은 인간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후 부처님은 신의 노예이자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신을 지도하는 승격의 모습을 갖추셨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사건이 있다면 인간이 신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석가모니의 탄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처의 가르침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 자부심으로 불법을 이웃에 전하고 세계가 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불자들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듯 맑고 향기롭게 살아간다면 내 가정이 정토화되고, 내 이웃, 내 나라, 세계가 한 가족처럼 정토화되는 세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업으로 ‘시간을 살리는 삶’ 살 것

그렇다면 어떻게 정토화할 것인가가 화두이겠지요. 먼저 우리는 우선 마음가짐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맑고 향기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맑은 것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맑은 것에 대한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탁한 것이 함께 있어야지 맑은 것에 대한 가치가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이 혼탁할수록 부처님 가르침은 빛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사무량심(四無量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보살이 가지는 네 가지의 자비심 자(慈)·비(悲)·희(喜)·사(捨)입니다. 자무량심은 즐거움을 주는 마음, 비무량심은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희무량심은 기쁨을 나누는 마음, 사무량심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미움과 가까움에 대한 구별을 두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향기로운 삶은 어떠한 삶일까? 부처님은 6년 고행 끝에 올바른 수행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중도적 수행관입니다. 사실 부처님이 수행할 당시에는 ‘따빠스’라는 극단적 고행법과 극단적 수정주의 수행법이 유행했습니다. 이 두 내용들을 부처님께서 조화롭게 접목시켜 새로운 수행법을 고안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중도적 수행법을 익히시고 최초로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팔정도와 더불어 사성제라는 내용의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사성제는 연기의 내용을 인간의 현실적 삶 속에서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이며, 이상적인 삶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팔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롭게 사는 것입니다. 정견(正見)에서 정(正)이라는 의미는 ‘바르다’라는 의미 외에도 ‘조화롭게 더불어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는 어느 곳에 치우침 없이 조화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또 팔정도 중에서 우리 삶의 패러다임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정어(正語)입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른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 편견을 갖거나 치우친 견해로 말을 전하는 것, 남에게 하는 악담 등의 반대말입니다. 정직한 말을 하고 두 말이 아닌 한 말을 하고, 조화롭게 서로 어울리는 말을 하는 것이 정어(正語)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정어(正語)만 잘 지키고 살아도 우리는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바른 행위를 뜻하는 정업(正業)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탐욕(貪)과 성냄(瞋), 어리석음(痴)을 버리는 삶, 생명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 자기가 노력한 그 이상의 대가는 바라지 않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모두 투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를 떨쳐버리고 노력한 대가 이상은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맑고 향기로운 삶이 내 삶에서 벗어나 이웃의 삶이 되고 전 지구의 삶이 될 수 있다” 매사에 깨어 있어 모든 일 집중 불국토 완성하고 정토세상 구현**

정업(正業)을 실천하는 삶은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살리는 삶’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들판을 다 다녔지만 그 어느 곳에도 찾지 못하고 집에 와보니 파랑새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이처럼 깨달음이란 저 멀리 유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합니다. 깨달음의 이상은 극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현재 행복하고자 하는 의식 속에 이미 행복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無所有)’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의 삶은 소유할 것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자체가 이미 텅 비어있는 존재이자 우주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변화합니다. 따라서 나라는 주체는 현실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소유의 가르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무소유의 삶이야말로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맑고 향기로운 삶의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정업에 의해 정명이 이뤄집니다. 정명(正明)은 바른 생활입니다. 즉 생활 자체가 행복임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행복을 실현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내 생활 속에서 스스로 맑고 향기롭게 피어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법음에 따라 오늘 이 길상사에도 그 향기가 가득히 퍼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끊임없이 이런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정진을 위해 정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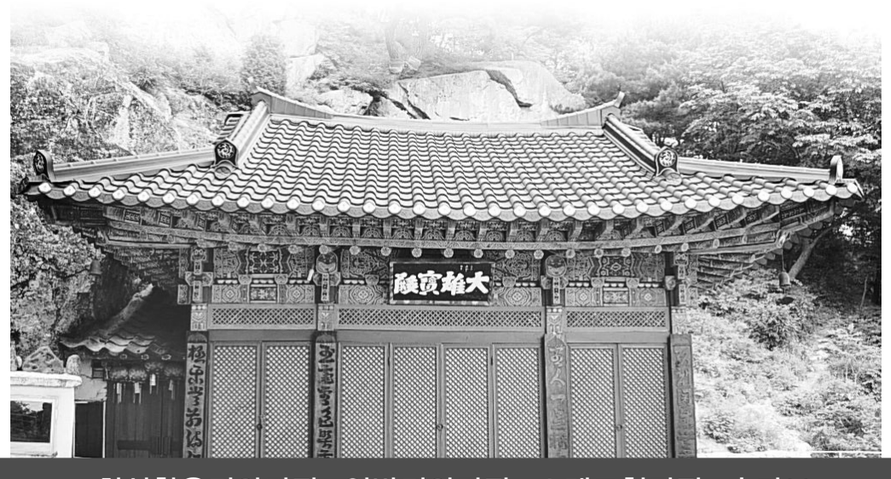
정정진(正精進)이라는 것은 삶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행동, 바른 언어, 바른 생각을 실천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법정 스님은 “시간을 살리는 삶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삶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정진의 실천이 바로 시간을 살리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늘 우리는 정념(正念)해야 합니다. 정념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마음 챙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늘 마음을 챙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늘 우리는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풀면서 살아야 하겠지요. 베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보며 웃어주는 것 또한 베품입니다. 항상 웃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빚을 지고 삽니다. 모든 우주적 도움을 받는 가운데 바깥으로 빚을 지고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 베품으로써 빚을 갚아야 합니다. 물질적 보시만이 아니라, 오늘 들은 이 법문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도 큰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를 해서 복덕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념 중에 예부터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신부정(觀身不淨)·관수시고(觀受是苦)·관심무상(觀心無常)·관법무아(觀法無我)입니다. 관신부정(觀身不淨)은 이 몸은 항상 부정한 것으로 들끓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몸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라는 뜻입니다. 관수시고(觀受是苦)는 이 세상에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항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무상(觀心無常)은 한 인간이 가진 마음의 실체를 보니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대상에 따라서 그 실상을 보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관법무아(觀法無我)는 모든 존재를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끔 청정 그 자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 몸도 순간순간 고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소유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신앙적인 면에서는 염불, 염법, 염승, 염시, 염계, 염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천은 천상에 나는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수경에서 설하는 바에 따르면 입으로 네 가지, 몸으로 세 가지, 마음으로 세 가지, 총 열 가지 선업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천승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염휴식(念休息)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놓은 채로 그냥 두고 살아가는 것을 염휴식이라 합니다. 그리고 염안반(念安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호흡기관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수행법 중 수식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흡은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몸은 항상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을 잘 알고 스스로 조절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염사(念死)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야 합니다. 찰나를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몸이 매시 매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을 때 한시도 소홀하게 살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정(正定)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기 맡은 바 집중해서 행하는 것을 정정이라 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집중하면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 후 여유가 있을 때 육바라밀과 십바라밀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을 극락으로 만들고 정화의 꽃을 피워 청정한 국토를 이루는 삶입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나비효과를 이루어서 내 가정, 내 사회에 지구 촌락 모두에 정화의 꽃을 피우는 불국토를 건설해야 합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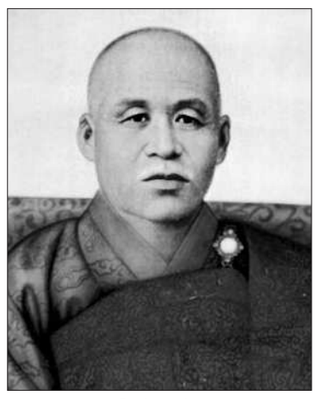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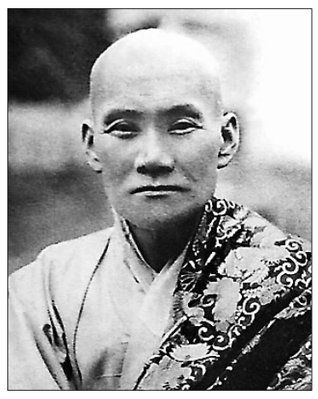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용성·한암 사상, 대중화 방안 고민해야"

김광식 교수, 4월 24일 '용성·한암, 지성의 원류' 학술세미나서

월정사 · 대각사상硏 공동 개최
용성 스님과 한암 스님 동시 조명


용성 스님


한암 스님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이 4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용성과 한암, 그 지성의 원류를 찾아서'는 용성 스님과 한암 스님의 비교와 함께 연구과제가 제기됐다.

이날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용성과 한암의 행적에 나타난 불교관' 발표에서 수행, 교육, 역경 및 출판, 종단 및 사회, 계승 등으로 나눠 용성 스님과 한암 스님을 비교했다. 김 교수는 먼저 수행에 있어 용성 스님과 한암 스님은 동질성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수행과정은 달랐지만 참선, 경학, 계율을 균형적으로 이수했으며 이를 강조했다"며 "그러면서 용성 스님과 한암 스님은 염불에 대한 우호성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용성 스님이 선교의 균형적 성격이었다면 한암 스님은 선 중심적 수행이었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 있어 용성 스님과 한암 스님은 차이가 있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용성 스님은 출재가의 동시교육을 고려했다면 한암 스님은 출가자 중심의 교육을 중시했다. 김 교수는 "한암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상은 대부분 스님들, 특히 수좌 스님들이었다"며 "한암 스님이 구현한 승가오칙은 특별한 지도 방침으로 이 또한 승려 중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용성 스님과 한암 스님의 이질성은 사회활동에서도 차이를 발생했다. 김 교수는 "용성 스님은 임제종운동, 3·1운동 등 민족운동을 수행했다. 각처 선원에서 조실을 역임했지만 종단을 떠나 독자노선을 걸었다. 용성은 현장 실천형의 지성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암 스님은 세속, 삼독, 명리 등과 거리를 두며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식도 굳이 피력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행의 도덕성과 깨달음의 일상성을 강조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용성 스님과 한암 스님 연구에 있어 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용성 스님의 문도들은 조계종단 내에서도 큰 문중으로 자리했지만 문제는 행적, 고뇌, 지성, 사상 등을 어떻게 정리하여 그를 일반 대중에게 전해줄 것인가"고 말했다. 이어 "한암 스님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지 않으며 제자인 탄허 스님의 학술적 업적이 더욱 조명받고 있다. 한암 스님 연구는 연고사찰인 수덕사와 통도사의 관계 설정을 비롯해 한암사상의 정체성을 어떻게 자리매김 할 지를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발표를 진행한 이상화 고려대 교수는 "한암 스님의 선 사상은 선의 절대적인 우위만을 주장하는 오늘날 한국 선객들의 수행법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암 스님의 개오와 보임의 과정을 보면 한암 스님은 '자성이 본래 비어 있어 두두물물 자기아님없음을 확인하면 수행함 없이 수행하는 무위행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며 "한암 스님의 돈오점수는 오늘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국불교 전통의 수행법으로 재조명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능인불교대 자현 스님의 '〈계잠(戒箴)〉의 분석을 통한 한암의 선계(禪戒) 일치적 관점' △백도수 능인불교대 교수의 '한암의 계율 인식 고찰' △마성 스님의 '용성의 선농일치 사상'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흥천사 비로자나삼신도 등 서울시 문화재로


흥천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서울시는 4월 23일 흥천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권 上을 비롯해 '조선시대 육아일기'로 불리는 양아록(養兒錄)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

흥천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는 화담신선 등 17명의 화승이 1832년(순조 32)에 제작한 불화다. 이 불화는 순조와 순조비, 효명세자의 부인인 조대비, 효명세자의 아들인 세손(후에 헌종) 등을 축원하기 위해 정조의 딸인 숙선공주와 순조의 장인 김조순, 명온 · 복온 · 덕온 공주 등 종친이 대거 시주에 참여해 제작한 것이다. 왕실발원 불화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한국 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수행의 지침서다. 이 언해본은 성종이 승하하자 그 명복을 빌기 위해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와 인수대비가 원각사에서 대대적으로 불경을 찍어낸 이듬해인 1496년 한글활자를 만들어 찍어낸 것이다. 내탕고의 지원을 받아 정성껏 목활자를 만들어 찍어냈기 때문에 활자체가 바르고 가지런하며 먹의 빛깔도 진하고 선명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양아록은 묵재 이문건(李文楗)이 1551년(명종 6)부터 1566년(명종 21)까지 16년간의 손자 양육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놓은 희귀한 자료다. 시는 양아록에서 조선 중기 양반 집안의 아동 교육과 생활 풍속을 이해할 수 있어 생활 · 미시사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지성의 전통과 현대적 모색' 학술대회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조계종 고시위원장)은 5월 3일 오후 1시 '불교지성의 전통과 현대적 모색'을 주제로 통도사 반야암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와 부산교수불자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재현 경남대 교수의 사회로 △권오민 경상대 교수의 '불교지성의 전통과 역사' △안경식 부산대 교수의 '신라 고승들의 세상과의 소통' △김영진 동국대 교수의 '근대 중국의 불교지성과 무(無)의 정치학' △능인불교대학원대 명법 스님의 '불교지성의 시대적 과제와 현대적 모색' 등이 발표된다. 종합토론의 사회는 윤종갑 부산대 교수가 맡는다. 노덕현 기자

선리연구원, '선문화연구' 제18집 논문 공모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6월 말 발간 예정인 학술지 〈선문화연구〉 제18집 원고를 5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

원고모집분야는 불교학 · 불교사학 · 불교문화 및 불교복지 등의 응용불교학으로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내외의 분량이다. 접수 마감 당일 오후 5시까지 연구원 이메일 또는 연구원 이메일(seonhakwon@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원고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www.seonhakwon.or.kr/seonli)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출된 논문은 편당 해당전공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확정하게 되며 확정된 논문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02)734-9653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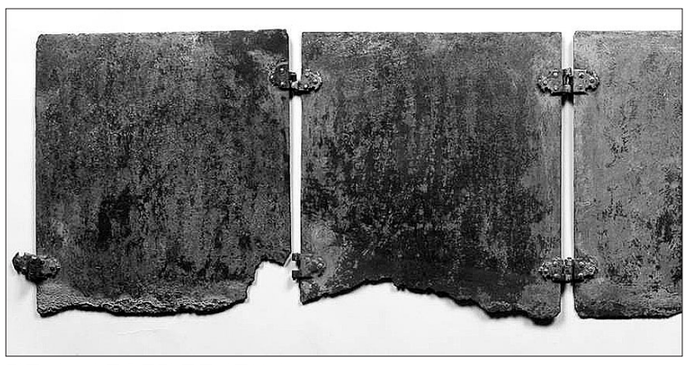
'도성 출입금지 해제' 교육아사리 포럼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5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5 제2차 조계종 교육아사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진관 스님(불교사 분야)이 '승려 도성 출입금지 해제 연구', △오인 스님(참여불교 분야)이 '이상적 승가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각각 법상 스님(대승불교 분야)과 원법 스님(한문불전 분야)이 맡는다.

특히 교육아사리 진관 스님은 1895년 스님들의 도성출입금지가 해제되기 전후로 시대상황과 불교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전법과정 등을 통해 현대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을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


동제염거화상탑지.


전 회양 금동관음보살좌상.


매곡동 청동불감.

'황룡사 금동찰주본기' 등 성보 대거 보물로

문화재청 4월 22일 12건 지정…불교사 연구의 기준자료

성보문화재가 대거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4월 22일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를 비롯한 문화재 12건을 보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 제1870호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慶州 皇龍寺 九層木塔 金銅刹柱本記)'는 통일신라 경문왕 11년에 왕의 명에 의해 황룡사의 구층목탑을 중수하면서 기록한 실물자료다. 구층목탑의 건립 과정과 중수 과정을 후대의 역사서가 아닌 중수 당시에 제작된 유물을 통해 생생히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유행했던 탑지(塔誌)의 서술체계는 물론 서체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사리장치 품목과 안치장소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 탑파의 사리장엄 의식 연구에도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리함의 문비(門扉, 문짝) 내외면에 선각된 신장상은 절대연대(872년)를 가진 유품으로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된다.

보물 제1871호 '동제염거화상탑지(銅製廉巨和尙塔誌)'는 얇은 동판에 통일신라 선종승인 염거화상(?~844년)이 844년에 천화(遷化, 고승의 죽음)한 내용을 해서체로 전각한 탑지이다.

염거화상은 진전사(陳田寺) 원적선사(元寂禪師) 도의(道義)의 제자로, 가지산문의 2대 조(祖)로 알려진 인물이다. 동판에 새겨진 탑지의 내용은 소략하나, 9세기에 유행한 쌍구체(雙鉤體) 전각법이 도입된 앞선 예로서 당시의 서체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며, 축조의 정교한 끌 자국은 금속공예 기술의 우월함을 잘 대변해 준다.

보물 제1872호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傳 淮陽 長淵里 金銅觀音菩薩坐像)'은 관음보살좌상에서 보이는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기법, 전신을 뒤덮은 화려한 장신구, 높고 화려한 보관, 커다란 원반형의 귀걸이,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잘록한 허리 등 중국 원대에 황실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던 티벳 불교미술의 요소가 많은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보물 제1873호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原州 鶴城洞 鐵造藥師如來坐像)'은 일제강점기까지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읍옥평) 들판에 방치되어 있던 다섯 구의 철불 가운데 하나다.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이와함께 보물 제1874호 '순천 매곡동 석탑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보물 제1877호 '봉화 태자사 낭공대사탑비' 보물 제1518-2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보물 제921-3호 '진실주집(眞實珠集)' 등이 지정됐다.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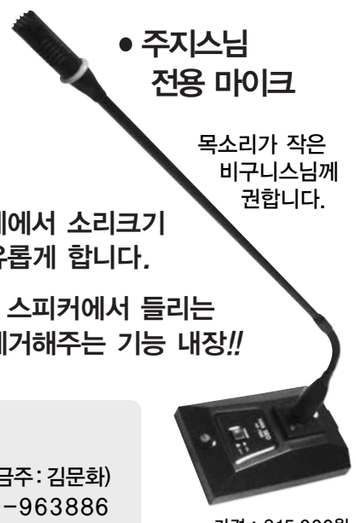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지리산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60팩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02)879 - 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125,000원 (무료배송)

고창 선운사 17대 주지 경우스님 취임

“원융화합으로 새 역사 열자”



소통과 나눔 공동체 비전제시
말사지원 확대, 특성화 공약
진신식 비용 장학금 전환해
“백년대계의 지혜 모을 것”



경우 스님의 주지취임 진신식은 고불법회 형식으로 간소히 진행됐으며 남은 비용은 관내 청소년 장학금으로 전환 됐다.

수행과 복지 문화공동체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고창 선운사의 제17대 주지로 경우 스님〈사진〉이 정식 취임했다.

선운사는 4월 17일 대웅보전에서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선운사 제16대 주지 법만 스님을 비롯해 역대 선운사 주지를 역임한 재곤 스님, 대우 스님, 혜산 스님, 법현 스님, 범려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송하진 전북도지사, 유성엽 국회의원, 박우정 고창군수 등 300여명이 동참해 경우 스님의 주지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고불 법회는 선운사 합창단의 식전 공연에 이어 명종 5타, 법만 스님의 이임사, 감사패 · 화환전달, 경우 스님 행장소개, 고불문 낭독, 장학금 전달, 축하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17대 주지에 취임한 경우 스님은 고불문에서 “지역사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동체대비의 불교로 거듭나 소통과 나눔의 공동체로 함께해야 한다”며 “종단과 교구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세간에 희망을 전하는 청정한 수행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도록 큰 위신력으로 지켜달라”고 발원했다.

스님은 이어 취임사를 통해 “선운사는 승가공동체의 위의를 확립하고 반선반농의 수행가풍아래 지역불교의 귀감이 되고 있는 승가이다”며 “이는 전임 주지스님을 비롯한 문중스님들의 지지와 성원아래 원융화합정신으로 살아온 스님들의 결과”라고 대중스님들께 감사인사를 표했다.

스님은 또 “교구화합, 말사지원확대, 승가노후복지 강화, 포교특성화 전략 및 승가교육체계확대, 본사위상강화 등 중앙종회의원과 말사 주지를 역임하며 평소 소신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백년대계라는 공든 탑을 쌓는 심정으로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임기내 선운사 화합에 앞장 설 것을 밝혔다. 경우 스님은 “한국불교와 교구발전을 위해서는 화합이 최선”이라며 “화합된 승가와 사부대중의 힘으로 한국불교의 새 역사를 열고 이에 앞장서는 선운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6대 주지 법만 스님도 이임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경우 스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뭉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주지 진산식은 고불법회 형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경우 스님은 고불법회서 진산식 비용을 절약해 마련한 1천만원의 기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해 고창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박우정 고창군수에게 전달했다.

한편, 선운사 17대 선운사 주지에 취임한 경우 스님은 1985년 태허 스님을 은사로 입산출가해 198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1998년 순창 만일사 주지, 2005년 총무원 호법국장, 2009년 총무원장 사서실장, 2011년 장경사 주지를 역임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15 · 16대 종회의원과 종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보살 원력으로 장병 안전을”

완주 송광사, 제35사단 무사고 기원법회 개최



전북 입실 육군 35사단에서 열린 발전기원 법회에서 완주 송광사 스님들이 축원기도를 하고 있다.

최근 전주에서 전북 임실군으로 부대이전을 완료한 육군 35사단에서 특별한 법회가 열렸다.

전북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부대 창설 60주년을 맞아 육군 35보병사단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하는 법회를 개최했다.

최창규 사단장은 이날 불보살님전에 큰 절을 올리고 힘찬 목소리로 발원문을 낭독하고 부대 안전과 발전을 기원하고 밝고 행복한 부대가 될 것을 서원했다.

송광사는 4월 18일 최근 전북 임실군으로 부대 이전을 완료한 육군 35보병사단(사단장 최창규 소장)을 방문해 ‘35사단 안전과 발전을 위한 무사고 기원 대법회와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과 주지 법진 스님을 비롯한 송광사 대중스님들과 한광수 송광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불자, 35사단 각급 지휘관과 장병 400여명이 동참해 부대 안전을 기원했다.

이날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부대안전 기원기도, 발원문 낭독, 사단장 인사말, 청법가, 법어, 어울림 한마당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새로운 대인관계나 가치관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군”이라며 “욕심을 내지 않고 마음을 비웠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 자비, 인욕, 비움을 바탕으로 함께 군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은 “평소 회주스님의 군 포교에 대한 원력을 받들어 지역 군법당에 대한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오늘 법회를 통해 35사단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 그리고 복무중인 장사병들의 행복한 군 생활을 위해 열심히 기도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창규 사단장은 직접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35보병사단이 사고없는 안전한 부대가 되도록 불보살님께 기원한다”며 “용사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군 생활 무사히 마치고 군 생활을 통하여 더욱 더 자신감과 용기가 충만하고 적극적인 청년으로 단련되어 조국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장한 국민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기원했다.

법회 후에는 차복순선생을 비롯한 전북도립국악원 단원들의 대금산조, 시나위 합주, 민요 공연과 구란영 선생의 살풀이 춤이 이어져 장병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최창규 사단장은 이날 평소 부대안전과 장병들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장병들의 안전을 위한 법회를 열어준 법진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사찰음식 전문가 대안스님의 지도로 송광사 봉사단체인 종남회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한 연잎 밥 등 사찰음식이 저녁공양으로 전 장병들에게 제공됐다.

평소 맛보기 어려운 사찰음식을 군대에서 처음 맛본 장병들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며 모처럼 맛본 진수성찬에 놀라움을 표했다.

한편 전북 완주군에 자리잡고 있는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는 매월 육군 35보병사단 호국 충경사 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임실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 익산 부사관학교 호국 충국사 법당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담양 죽림정사 주지 지홍 스님 취임



비구니 수행도량 담양 죽림정사 신임 주지로 지홍 스님이 취임했다. 4월 19일 ‘죽림정사의 봄’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진산식에는 마하무량사 회주 암도 스님, 최형식 담양군수, 홍광표 동국대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100여 대중들이 동참했다.

이날 3대 주지로 취임한 지홍 스님〈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사람은 저마다 희망과 꿈이 있다. 죽림정사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출가발심 때부터 고민한 것들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1부 진산식에 이어 2부 무상 스님의 노래 공연과 국악인 국근섭 씨의 판소리 공연으로 진행됐다.

한편, 전남 담양 추월산에 위치한 죽림정사는 1988년 2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이곳에 정착해 손수 터를 닦고 불사를 진행해 창건한 수행도량으로, 현재는 선방과 극락전, 요사채 등의 전각을 갖춘 지역의 대표적인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광덕사 혜민 스님 초청강좌



학부모를 위한 마음치유강좌가 지난 4월 19일 광주 서구 광덕사에서 개최됐다.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이며 대표적인 힐링멘토로 꼽히는 혜민 스님이 강사로 나선 이날 강좌에는 불자와 학부모 500여 명이 참여했다.

혜민 스님은 이날 “과도한 경쟁 속에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수행이 필요하다”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순 없다. 이에 끄달리지 말라”고 법문했다.

행사를 개최한 주지 효진 스님은 “현대사회는 마음치료가 필요한 시대”라며 “많은 수행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전시회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 로터스 갤러리는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이이남의 기획 ‘사랑해 전’을 개최한다.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며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이이남 작가의 기획으로 마련된 이날 전시회는 강운, 김상연, 김해성, 박일구, 손봉채, 송필용, 윤남웅, 이매리, 이이남, 이정록, 정광희, 정운학, 한희원 등 13인의 작가가 초청됐다.

이이남 작가는 “좋은 작품을 통해 세상을 그리고, 때로는 날카로운 작품을 통해 현실을 꼬집고자 한다”며 “선후배 작가들이 한데 뜻을 모은 ‘사랑해 전’은 지역 작가들이 지역민들과 호흡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군, 훼손 우려 봉림사지 긴급 발굴조사

전북 완주군은 훼손이 우려되는 봉림사지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를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완주군은 봉림사지 일대에 무분별하게 분묘가 조성되는 등 훼손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 문화재청에 봉림사지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 사업을 신청해 국비 7천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산면 삼기리에 있는 봉림사지는 나말여초(羅末麗初) 시기의 사찰로 추정됐지만 최근 관련 연구에서 후백제에 세워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 불 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설맞이 떡국떡 수익금 교복 보시 '훈훈'

부산불교보현회 부산 종립학교 결손가정 학생에게 교복 지원

종립중학교 결손가정 청소년들에게 해마다 교복 보시로 포교 활동을 펼치는 봉사단체가 있다. 재가자 봉사 단체인 부산불교보현회(회장 안성이 · 이하 보현회)는 14년 동안 지역 학교에 매년 350여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어 훈훈함을 더한다.

보현회는 지난 2월 금정중학교에 120만원의 교복비를 지급한데 이어 앞으로 해동중학교, 밀양 홍제중학교 등 학생 25명에게 교복비를 전달 할 예정이다.

이들이 교복지원 사업을 펼치게 된 이유는 장학지원을 하던 소년소녀 가장 중 한 명이 물려 받은 교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부터다. 안성이 회장은 "당시 교복 물려 입기 운동 등으로 자연스럽게 선배들의 교복을 물려 입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교복을 물려 입는 것은 절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년소녀 가장들은 달라요. 부모가 없어 낡은 교복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서러울까 하는 생각에서 교복지원을 결심했죠."

보현회의 교복 지원이 더 특별한 이유는 매년 설전에 회원들이 직접 떡국떡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지원금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보현회는 지난 32년 동안 300여 정기후원자의 성금을 십시일반 모아 장학사업, 결핵환자 지원, 장애인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복지원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했고 떡국떡 판매를 고안하게 된 것이다. 떡국떡을 판매하기 위해서 회원들은 발품을 팔아야 했다. 방앗간에 가서 쌀을 빻아 떡을 뽑아 떡국떡을 만드는데 그 양이 쌀 25가마, 총 3000kg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떡은 부산은 물론 양산 덕계, 마산 지역까지 회원들이 직접 배달을 다닌다. 떡국을 파는 기간은 설날 전 15일 정도로 추운 날씨에 노점까지 운영해 판매를 마무리 한다.

설전 회원들 떡국떡 판매 수익금 모아
14년간 지역 학교에 연 350만원 후원
장학사업, 결핵환자 및 장애인 봉사도


보현회는 매년 결손가정 학생들을 위해 교복비를 마련하고 전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금정중학교에 교복지원금을 전달하는 사진. 오른 쪽 두 번째가 안성이 회장

안성이 회장은 "제일 좋은 쌀로 떡을 준비해요. 요즘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파는 물건이 나쁘면 안 쳐다보잖아요. 한겨울에 무거운 떡을 팔러 나가면 춥고 고생스럽죠. 대부분 차가 없으니 퇴근한 남편을 불러 배달을 부탁하기도 해요."라고 전한다. 이렇게 14년 꾸준히 떡국떡을 판매해 나가자 매년마다 보현회의 떡국떡을 찾는 고정 고객이 있을 정도로 인기도 좋다.

지난 14년 동안 교복 지원 금액은 5000여만원, 350여명이 새 교복을 입었다. 이렇게 후원 받은 학생이 감사의 인사를 오는 경우도 있고 보현회 봉사자로 찾아오는 학생도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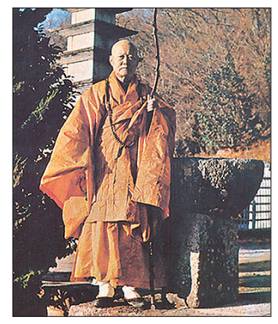
보현회는 14년 동안 교복을 후원하고 있지만 학생들과 함께 사진은 찍지 않는다. 그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이 다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안성이 회장은 "어떤 단체에서 후원금 20만원을 주겠다고 해 학생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최측에서 학생을 세워 놓고 계속 사진을 찍어대니 그 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장님 이런 자리는 데리고 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때부터 학생들과 사진을 찍지는 않습니다."라고 설명한다.

보현회의 결손가정 청소년 지원 사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보현회의 몫이다. 보현회 안성이 회장은 "앞으로 계속 변함없이 청소년 지원사업을 진행 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청소년 불자를 양성하는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하성미 기자

동산 스님 열반 50주기 문도 교학대회

범어사 · 동산문도회, 5월 3일~11일


동산 스님의 생전 모습. 범어사와 동산문도회는 동산 스님 열반 50주년을 맞아 사진전 및 교학대회를 연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와 동산문도회는 동산 스님의 열반 50주년을 맞아 사진전시, 문도 교학대회 등을 마련한다.

5월 3일에는 동산대종사 문도 교학대회를 진행한다. '범어사 및 동산문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갈 길' 이란 제목으로 진행되며 기조 발제는 도문 스님(죽림정사 조실, 원로의원)이 발표한다. 세부 발제는 △동산 스님의 사상에 대한 회고-천제 스님(前 법규위원장) △초보 사미의 불교정화 견문록-홍선 스님(범어사 승가대 교수) △동산대종사의 선사상 연구-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등이 이어진다. 또한 △동산 문도의 정화의식과 실천-법상 스님(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불교혁신을 위한 동산문도의 역할-법응 스님(불교사회정책연구소), △94년 중앙종회, 회의록 분석과 용성문도-덕산 스님(불교교단사연구소), △금정총림의 지정과 범어사의 정체성-김광식(동국대 교수)이 각각 발표된다.

또한 범어사는 5월 3일~11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동산 스님의 사진을 전시한다. 전시는 동산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내용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열반까지의 삶을 조망한다. 또한 사진을 모아 8월 중 추모 화보집을 발간 할 예정이다.

범어사는 "동산대종사는 50년대 조계종단 종정으로서 불교정화운동의 선봉이셨다. 또한 종단과 동산문도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셨다. 이에, 범어사와 동산문도회는 동산대종사 열반 50주년을 기해 동산 대종사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자 한다. 동산문도를 위시해서, 동산대종사 또는 범어사와 인연이 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정총림 범어사가 제115회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을 5월 2일~3일 간 범어사 대웅전에서 봉행한다. 접수는 범어사 원주실과 각 말사에서 받는다. (051)508-3636

하성미 기자

불교사상대강연회, 혜국 스님 초청 법회

5월 2일 부경대 대연캠퍼스에서



부산 부경대 불교교수회(회장 배종일)는 5월 2일 부경대 대연캠퍼스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혜국 스님〈사진〉 초청 제16회 4 · 8 봉축기념 불교사상대강연회를 개최한다.

'운명의 논리와 부처님 가르침' 이란 주제로 봉행되는 이번 강연회는 부경대 교수 불자회 및 불교 동문회, 불교 학생회가 함께 주관한다.

부산교수불자회 박영병 前 회장은 "16년 전 부경대 불교교수회를 만든 후 학생들을 위한 법석을 마련했다. 특히 학생들이 만나기 어려운 큰 스님을 모셔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절이 아닌 학교 강당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제1회 섬섬제 망월지 경북불교대서

두꺼비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

제1회 섬섬제(蟾蟾祭)가 4월 19일 대구 망월지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성보박물관장 돈명 스님, 정홍규 신부, 주호영 국회의원, 이진훈 수성구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는 생태환경을 측정하는 환경지표 동물인 두꺼비에 문화적 의미를 덧입히는 행사다. 특히 섬섬제가 개최된 망월지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만큼 망월지를 중심으로 두꺼비를 문화콘텐츠로 재탄생시키자는 활동의 하나로 이번 축제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5월 초에 대덕산으로 대이동을 시작하는 망월지 두꺼비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시작으로 경북불교대학장 돈관 큰스님의 '내가 만난 두꺼비' 와 계명문화대 허남원 교수의 '욱수동 망월지 두꺼비 생태보고' 가 세미나 형식으로 열렸다.

이와 함께 두꺼비를 소재로 한 시낭송, 시 노래 등의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전국 유명 시인 100여명이 참여한 섬섬제 시화전도 눈길을 끌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1회 섬섬제가 4월 19일 대구 망월지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에서 열렸다.

동명불원-용호종합사회복지관 업무 협약

4월 19일 동명불원 대웅전에서

동명불원(주지 화랑)은 지난 4월 19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과 동명불원 대웅전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식 후원을 약속했다.

협약식에서 동명불원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목표 수립, 저소득 결식어르신 위한 정기적인 식사대접 및 후원물품 지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동명불원은 연간 500여만원을 용호복지관에 지원하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 저소득 결식 어르신을 위한 식사 지원 및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주지 화랑 스님은 "부처님께서 육바라밀 실천을 강조하셨다. 앞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등불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 이후 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할 동명불원 대외봉사기구 '심우회(회장 성재곤)' 는 앞으로 용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6월과 9월 독거어르신을 초청 나들이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동명불원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함께 힘쓸 것을 약속했다.

청도불교사암연합회 청도유등제

청도군 청도불교사암연합회(회장 연암)는 제9회 청도유등제를 4월 17일~19일까지 청도군 청도천 파랑새 다리 부근에서 개최했다. 17일 법요식과 점등식에서는 팔공총림 동화 주지 덕문 스님, 천태종 대구 대성사 류화산 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정효 정사, 청도불교사암연합회 회원사찰 주지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는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노래자랑이 이어졌고 축제 마지막 날에는 인기가수 박현빈 등이 출연했다.

특히 무대공연과 더불어 부처님의 자비를 되새기는 불교문화체험과 전통 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관찰하고 듣는 법’ 밝혀지니 관음이 시방세계에…

원통문에 든 25성자 ‘수능엄경’에서 만나다

〈6〉 관세음 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 ㊦

이근원통 수행법은 북방불교권에서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수행법은 티벳으로 흘러들어가 밀교의 전통적 수행법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 일부가 염불의 형태로 변용돼 내려왔다. 이근원통 수행은 소리에 집중하고 다음은 듣는 단계로 접어든다. 처음과정이 끝나면 반문 문성의 과정으로 진입한다. 이번 장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직접 자신의 수행법을 설명한다. 관세음 보살의 공덕을 증득한 과정을 통해 이근원통 수행법을 접해보자. 〈편집자 주〉



그림 · 최주현

14 무외공덕

세존이시여, 저는 또 이 듣는 성품을 훈습하는 금강삼매의 무작묘력이, 시방삼세의 일체 6도중생과 동일한 비앙(悲仰)이므로, 모든 중생이 저의 몸과 마음에서 열네 가지 무외공덕을 얻게 하였사옵니다.

첫째는 저는 스스로 세간의 소리를 관찰하지 않고 관찰하는 능관자는 누구인가를 관찰하는 수행으로 저 시방의 고뇌하는 중생들이 일심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음성을 관찰하여 해탈할 수 있게 하였사옵니다.

둘째는 알고 보는 작용을 돌이켜 자성의 소리를 들어, 중생들이 큰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태울 수 없게 하였사옵니다.

셋째는 자성을 관찰하고 자성의 소리를 들어, 중생들이 큰물에 들어가더라도 물에 빠지지 않게 하였사옵니다.

넷째는 허망한 생각을 단멸(斷滅)하여 마음에 살해하려는 생각이 없어짐에 따라, 중생들이 귀신의 나라에 들어가도 귀신이 해칠 수 없게 하였사옵니다.

다섯째는 망문(妄聞)을 훈습하여 진문(眞聞)을 성취하여 여섯 감관을 소멸하고 근원을 회복하여 소리와 들음이 동일함에 따라, 중생들이 피해를 당할 지경에 놓일지라도, 칼은 조각조각 부서지고, 군사의 무기(兵戈)는 마치 물을 베는 것과 같고, 입으로 후우 불어 태양의 빛을 끄듯 하여, 성품이 흔들리지 않게 하였사옵니다.

여섯째는 반문(反聞) 공덕이 지극하여 본원(本元)의 진정(眞精)으로 돌아가서 밝은 빛을 계발하여 법계에 두루 비추어 온갖 깊은 어둠이 제 성질을 전혀 지키지 못하게 하여, 야차 · 나찰 · 구반다귀 · 비사차 · 부단나 등이 가깝게 있을지라도 눈으로 볼 수 없게 하였사옵니다.

일곱째는 소리의 동정(動靜)의 두 가지 성질이 원만하게 소멸하고 이근(耳根)이 청문성(聽聞性)을 관조하여 색 등 모든 허망한 경계가 소멸하므로, 그 중생의 몸에 구금하고 묶는 칼과 족쇄가 붙을 수 없게 하였사옵니다.

여덟째는 소리를 멸하여 경계가 가로막지 못하니 듣는 성품이 원만하여 두루 사랑의 힘이 나오고, 그 중생들이 험한 길을 갈지라도 도적이 겁탈할 수 없게 하였사옵니다.

아홉 번째는 듣는 본성을 훈습하여 일체 경계를 벗어나서 환색幻色이 겁탈할 수 없음에 따라, 음욕이 많은 중생들을 애정의 탐욕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였사옵니다.

열 번째는 소리가 순수하고 오염이 없어지고 근과 경계(塵)가 원만하게 융통하여 마주하는 자와 마주할 상대가 없어짐에 따라, 노여움과 원한(忿恨)이 많은 일체중생을 온갖 성냄에서 벗어나게 하였사옵니다.

열한 번째는 망진(妄塵)이 소멸되어 자성이 본명(本明)을 되찾아 법계와 신심(身心)이 유리처럼 밝아져서 장애가 없어짐에 따라, 어둡고 우둔하여 성품이 막힌 일체 아전가들을 어리석은 어둠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였사옵니다.

열두 번째는 수행으로 도리를 증득하여 4대(四大)의 환형(幻形)을 녹여 융화하고 참된 하나의 문성(聞性)으로 되돌려 동요하지 않는 불생멸의 이체(理體)에 증입(證入)하고 일신(一身)으로 무량신(無量身)을 드러내어 삼세간에 섭입하나 세간의 모양은 깨트리지 않으며, 시방세계에 임하여 먼지처럼 많은 부처님의 곁에서 법왕자를 위해 공양하며, 자식이 없어서 남자아기를 원하는 법계의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를 갖춘 남자 아기를 탄생하게 하였사옵니다.

열세 번째는 육근을 원융하게 통달하여 차별 없이 밝게 비추고, 시방세계를 머금고 대원경지과 공여래장을 세워서, 시방의 먼지처럼 많은 여래의 비밀법문을 받들어 순종하옵고 받아들인 법을 잃지 않음에 따라, 자식이 없어서 여자 아기를 원하는 법계의 중생들에게 단정하고 복덕을 갖추고 유순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잘 생긴 여자아기를 탄생하게 하였사옵니다.

열네 번째는 이 삼천대천세계의 백억 일월에서 현재 세간에 살고 있는 62갠지스 강의 모래 수처럼 많은 법왕자들이 법을 닦고 모범을 보여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으나, 중생의 근기에 따르는 방편과 지혜는 각기 다르옵니다. 제가 얻은 원만하게 통달한 근본 감관(本根)의 경우에는, 묘한 귀의 문성(耳聞)을 연뒤에 몸과 마음이 미묘하게 법계를 두루 머금어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중생의 공덕을 저 62갠지스 강의 모래 수처럼 많은 법왕자들의 이름을 모두 부르는 중생의 공덕과 비교해도, 두 사람의 복덕은 동등하여 다르지 않게 하였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나의 한 이름의 공덕이 저 수많은 이름의 공덕과 다르지 않음은 제가 수행하여 진실하고 원만한 통달법을 얻었기 때문이옵니다. 이를 ‘중생들이 복을 갖추도록 베푸는 열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힘’ 이라고 하옵니다.

4부사의무작묘덕(四不思議無作妙德)

세존이시여, 저는 또 이 원만한 통달법을 얻고 더없이 높은 도를 닦아 증득하였기 때문에, 또 네 가지 부사의한 무작묘덕(無作妙德)을 잘 성취할 수 있었사옵니다.

> 금강삼매 묘력으로 14공덕 증득
> 자재한 마음에 삼마제 얻어
> 관세음 수기받고 시방세계 밝히니
> 한 이름의 공덕, 수 많은 공덕과 같네

첫째는 제가 처음에 이문삼매(耳聞三昧)를 얻어 묘함 중의 묘한 듣는 마음을 얻고, 마음이 정밀하여 허망한 듣는 작용을 버리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이 모두 가로막히지 않게 되어, 원만하고 융통하고 청정하고 보배로운 깨달음을 성취하였사옵니다.

따라서 저는 뜻대로 여러 가지 묘한 용모를 나타내어, 한없는 비밀신주(ᵃ卄密神呪)를 마음대로 설하게 되었사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머리 세 머리, 다섯 머리 일곱 머리, 아홉 머리 열 한 머리에서, 이렇게 백팔 머리 천 머리 만 머리, 팔만 사천 금강머리(ᵃ卄迦羅首)를 나타내기도 하옵고, 두 팔 네 팔, 여섯 팔 여덟 팔, 열 팔 열두 팔, 열네 팔 열여섯 팔, 열여덟 팔 스무 팔에서, 스물네 팔까지, 이렇게 일백 팔, 팔천 팔, 만 팔, 팔만사천 무다라팔(母陀羅臂)을 나타내기도 하오며, 두 눈 세 눈, 네 눈, 아홉 눈에서, 이렇게 백팔 눈, 천 눈, 만 눈, 팔만사천 청정한 보배의 눈(淸淨寶目)을 나타내기도 하오며, 때로는 자비로, 때로는 위엄으로, 때로는 선정으로, 때로는 지혜로 중생을 구제하여 보호하는 데에 뛰어나게 자재한 능력을 얻었사옵니다.

둘째는 제가 듣고 생각하는 지혜로 여섯 경계를 벗어 나옴이 마치 소리가 담을 넘어도 장애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는 묘하게 가지가지 형상을 나타내어 가지가지 주문을 설할 수 있사오며, 그 형상과 그 주문은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법을 잘 베푸는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시방의 먼지처럼 많은 국토에서는 저를 ‘두려움이 없는 법을 베푸는 자’ 라고 부르옵니다.

셋째는 제가 본래 묘하고 원융하게 통달하여 청정한 근본 감관을 닦았기 때문에, 유행(遊行)하는 세계마다 중생들이 몸에 지닌 진귀한 보배에 대한 애착을 버리면서 저에게 가엾게 여겨 구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옵니다.

넷째는 제가 부처님의 마음을 얻고 구경법을 증득했기 때문에, 가지가지 진귀한 보배로 시방 여래께 공양하게 되었사오며, 한편으로는 법계의 육도중생이 아내를 구하면 아내를 얻게 하고, 자식을 원하면 자식을 얻게 하며, 삼매를 구하면 삼매를 얻게 하고, 긴 수명을 원하면 긴 수명을 얻게 하며, 이와 같이 또 대열반을 구하면 대열반을 얻게 하는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저의 경우로는 이문(耳門)에서 원만하게 비추어 밝히는 삼매 반연하는 마음(緣心)이 자재하고, 그 자재한 마음으로 흐르는 모양을 거슬러 올라가서 삼마제를 얻고 보리를 이루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저 관음 여래께서는 ‘원만하게 통달하는 법문을 훌륭하게 얻었다’ 고 감탄하시며, 큰 법회에서 저를 수기하시어 관세음의 이름을 내려주셨사옵니다. 그래서 저의 관찰하고 듣는 법이 시방에 원만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관음이란 이름이 시방세계에 두루 알려진 것이옵니다.

이때 세존께서 사자좌에서 온몸(五體)으로 똑같은 보배의 광명을 내셔서 시방의 먼지처럼 많은 여래와 법왕자와 보살들의 이마를 비추셨으며, 저 모든 여래께서도 온 몸으로 다 같이 보배의 광명을 내시니, 그 광명은 미진 세계를 지나 부처님의 이마를 비추고, 아울러 법회의 뛰어난 보살과 아라한들을 비췄다. 그러자 숲과 나무와 못과 시냇물들이 법을 설하였으며, 교차된 광명은 서로 짜여 보배 실그물처럼 어우러지니, 대중들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광경을 보면서 모두들 널리 금강삼매를 얻었다. 즉시 하늘에서 온갖 보배의 연꽃이 비 오듯 내리니,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하얀색이 사이마다 섞이고 현란하게 조화되어 시방허공은 온통 일곱 가지 보배색으로 변했다. 이 사바세계의 대지와 산과 강은 동시에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직 시방의 먼지처럼 많은 국토가 합쳐서 하나가 된 세계만 보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울려 퍼지는 범패(梵唄)와 영가(詠歌)의 소리가 들릴 뿐이다.

이 글은 최근 이수덕 박사가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하다〉로 편역한 ‘수능엄경’에서 발췌했다.

친견해서
차 한잔만 마셔도
말기암. 빙의. 난치병 등
일체 고통들이 사라지는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 강좌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강 의 료 : 1년에 50만원 (월 5만원)





■ 강의교재는 화엄경수행센타의 회주인 진귀 수행자가 출판한 화엄경 책으로 강의하며 「전국서점」에서 판매 중 입니다.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천도재 등 일체 종교행위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 잔의 친견만 합니다.
■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고통이 사라진 사례자들의 동영상 및 사진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화엄경 수행센타 문의 ☎ 1899-9532

2559년 석가탄신기념
능인계향 특별한정판 출시

능인향당에서는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를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능인계향을 출시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초파일까지만’ 한정특가로 공급됩니다.
1차분 전량 매진!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2차분 순차 발송중입니다.
■ 한정특가 : 15,000원
(초파일 이후 정상가 30,000원으로 환원되며
현지 사정에 의해 단종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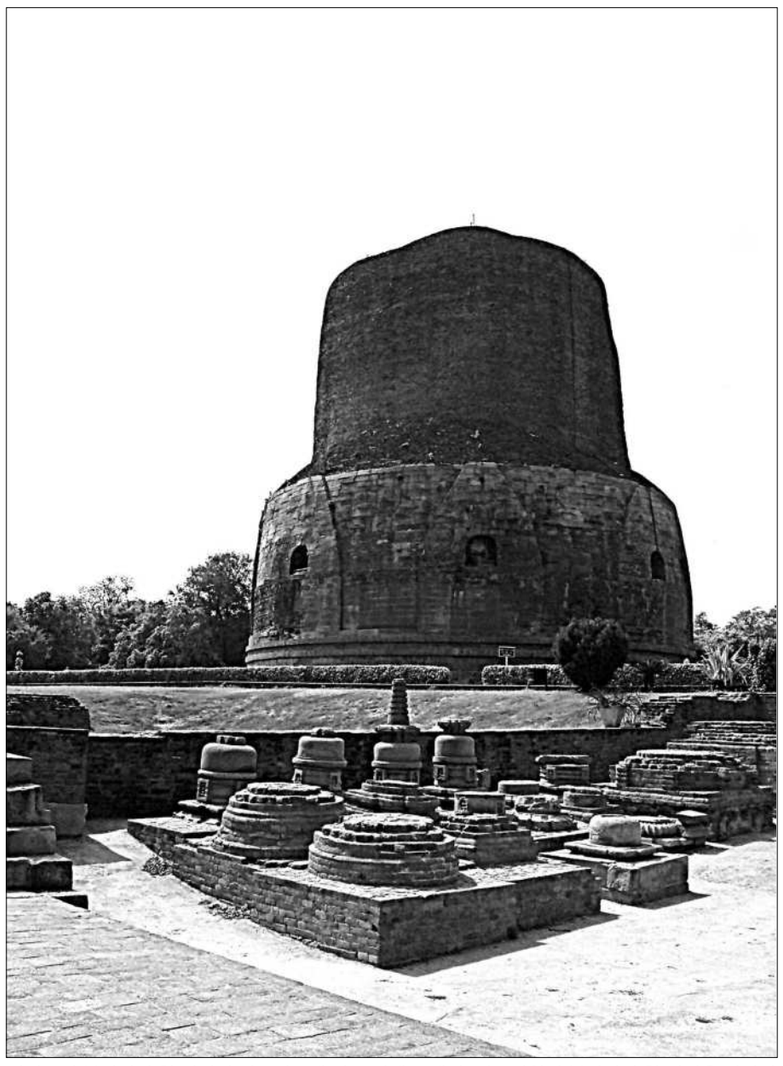


능인향당 051)746-6818 / 02)3663-6777
www.nihwa.com 홈페이지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5. 감정과 이성 ㊤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설법지 사르나트에 있는 다메크 대탑. 아쇼카왕이 부처님의 첫 설법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했다.

감명 깊은 설법에 관해서

붓다의 설법 가운데서 예부터 유명한 설법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 외에 현대의 산업사회를 호흡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새로이 주목해야 할 몇 개의 설법에 관해서 말하고자 한다.

수 많은 이 스승의 설법 가운데 있어서도 자연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은 있다. 앞에서 설명한 근본설법과 같은 것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사람들에 따라서 감명(感銘)이 특히 깊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며 또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붓다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가운데도 어떤 설법에 더 깊은 감명을 얻는가 하는 것은 역시 사람의 인격과 상황에 따라서 달랐으리라고 생각된다. 〈장로게경(長老偈經)〉이나 〈장로니게경(長老尼偈經)〉은 이 스승을 아주 가까이 모셨던 남녀의 제자들이 때와 기회를 따라서 그 감회를 토로(吐露)한 것을 적은 것이다.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이 깊은 감명을 받은 스승의 가르침의 추억은 여러 가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대들 의복에 관해서 걱정한 일이 없는가. 장식(裝飾)을 즐거워 한 일은 없었는가. 계덕(戒德)의 향기는 그대가 스스로 발산(發散)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발산하는 것이 아니다."

이 한 구절을 그 경전 속에 남긴 이름 없는 한 비구는 생각건대 이러한 가르침으로서 설법한 이 스승의 말씀을 몸으로 받아들이며 감명 깊게 수지(受持)하여 그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하루의 광음(光陰)은 반드시 헛되게 이것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쓸데없이 하룻밤을 낭비하는 것은 그대의 생명을 감소(減少)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이 한 구절을 그 경전에 남긴 슈리만다라는 장로(長老)에게 있어서는 아마 스스로 방종한 행동을 하였을 때, 이 스승에 의해서 받은 이 권고의 가르침이 평생 잊지 못할 스승의 말로서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 잘 알려진 슈니타 장로의 경우 그는 오물(汚物)의 청소부(淸消夫) 노릇을 하고 있었다. 언젠가 이 스승의 발 밑에 엎드린 그에게 스승은 "오라, 비구여"하면서 그를 불렀다. 그때의 그 말 한마디는 그에게 있어서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말이었다. 이것을 그는 이 경전 속에 "그리고 그 후부터, 비민(悲愍)의 스승, 일체세간(一切世間)의 자애자(慈愛者)는 나에게 대해서 '오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수계(受戒)였었다"라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후세의 불교인에게 있어서도 사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어떤 시대의 사람들은 계(戒)의 가르침이 이 스승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깊고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한 일도 있었다. 또 어떤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비유의 가르침이 매우 감명 깊게 생각되었다고 말한 것도 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에(瞋恚)에 관한 경계의 가르침이 수 많은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되었다는 경우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원한에 대해서 원한으로써 갚는다면 그 원한은 언제까지도 사라지는 일이 없다는 한 구절이 마치 자기 한 사람을 위한 교훈인 것처럼 가슴깊이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 스승의 설법의 어느 것에 역점을 두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르다. 물론 이런 것 가운데서 근본설법이 차지하는 위치는 부동(不動)한 것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그 밖의 설법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 무거우며 어느 것이 가벼우냐를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물며 감명 깊은 것은 어떤 것이냐, 감개가 두터운 것은 어느 것이냐, 하는 것 같은 문제는 때와 사람에 따라서 무한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붓다의 설법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며 어느 것이 더 감명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은 결코 경솔하게 말할 성질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를 하면서 그래도 예부터 유명한 설법으로서 알려진 것 외에 오늘날의 우리들로서 특히 새롭게 끄집어 내어 말할 수 있는 설법이 있는가 라고 재촉을 받는다면 나는 먼저 다음과 같은 경전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켜보려고 생각한다.

감정(感情) 처리의 문제

그 하나의 경전은, 붓다가 슈라바아스티(사위성)의 교외 기원정사(祇園精舍)에 있었을 때의 일을 담고 있다. 스승은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듯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질문을 시작하였다.

"비구들이여, 가르침을 듣지 않는 범부(凡夫)는 낙수(樂受)(상쾌한 느낌)도 느끼며, 고수(苦受)(상쾌하지 않는 느낌)도 느끼며, 비고비락수(非苦非樂水)(상쾌도 불쾌도 없는 느낌)도 느낀다. 가르침을 받은 성제자(聖弟子)도, 역시 즐거움을 느끼며, 괴로움을 느끼며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감정을 느낀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가르침을 받는 성제자와 가르침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점에 있어서 다른 것일까?"

이 질문은 일종의 응용문제(應用問題)였다. 틀에 잡힌 듯한 교리문답(教理問答)에 있어서는 제자들은 대개 즉시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스승은 그 외에 그러한 교리문답을 토대로 해서 응용문제를 시험해 본 일도 자주 있었다. 그러한 시험에 있어서는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덕이시여, 우리들의 법은 세존을 근본으로 합니다. 원컨대 우리들을 위해서 그것을 설법해 주십시오."

대답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언제나 이러한 말로써 스승의 설명을 기다렸다. 이 시험적인 질문에 있어서 제자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형식에 따라 스승의 설명을 원했던 것이다. 그것에 대한 붓다의 설법은, 대개 다음과 같았다.

"비구들이여, 가르침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고(苦)인 수(受)에 접하여 걱정하며 피곤하며 서러워하며 가슴을 치면서 울며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그들은 두 가지 종류의 수(受)를 느낄 것이다. 몸에 속하는 수(受)와 마음에 속하는 수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한 개의 화살에 맞으면, 또 다시 두 번째의 화살을 맞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붓다는 이때까지 가르침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감정의 처리방법을 자세히 설법하였다. 그들이 고수(苦受)에 접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불쾌가 생기며 노여움이 생긴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언제까지도 그들을 사로잡으며 그들을 괴롭힌다. 또 만일 그들이 낙수(樂受)에 접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즐겁다는 감정이 생기며, 집착의 감정이 일어난다. 이러한 감정도 또한 언제까지나 그들을 사로잡으며 그들을 괴롭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며 피곤하며 서러워하며 가슴을 치면서 울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느낌의 작용이 어떻게 하여 생겨나며 어떻게 하여 소멸하며 어떠한 불행을 동반하며 어떻게 하여 거기에서 이탈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신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염주가 108에 그치는 이유



문 세상에서 정토(淨土)를 수행(修行)하는 자가 그 부처님께 예불을 하면서 꼭 그 십상(十相)을 분리하며, 그 십호(十號)를 송념(誦念)하되 염주(念珠)를 세며, 그것을 계산하되 염주의 숫자 세기를 꼭 백팔(百八)에 그치는 그 이치는 무엇 때문이며, 무슨 가르침의 자취가 이와 같이 번거로운가.

답 그렇지 않다. 마음이라는 것은 만가지 형상의 모범이니, 우·모·인·개(羽·毛·鱗·介)와 횡·수·비·침(橫·竪·飛·沈)이 형체에 그 마음을 받지 않음이 없는데, 진실로 천지가 그를 그렇게 되도록 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 마음의 선악(善惡)·사정(邪正)·염정(染淨)·호추(好醜)의 갖가지 업연(業緣)을 따라서 만품(萬品)이 각각 그 유(類)로써 응한다. 이것이 사생(四生)·구류(九類)·범성(凡聖)이 나누어지는 까닭이다.

이미 마음이 모범(模範)이 되어 형색(形色)을 만품(萬品)에 명령하였다면 마음이 부처를 간직하면 부처의 모범이 됨은 필연적인 것이다.

도(人道)이다. 그 품류(品類)의 고하(高下)가 일백 팔(一白八) 등급(等級)의 많음에 이르는데, 삼계는 한 마음을 따르지 않음으로 삼계가 조성된 것이다.

마음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지은 것도 또한 차별이 있는데, 마음은 인(因)이고, 지은 것은 과(果)이다.

백팔(百八) 염주(念珠)라는 것은 마음속에 백팔 번뇌를 가리킴이며, 구슬(珠)이라는 것은 다름이고, 염주를 꿰는 끈은 습기(習氣)가 이어짐이니, 마음 속에 번뇌가 서로 연속하는 것은 대체로 습기가 이어져 잃지 않음을 인함이고, 환전(歡轉)하여 다함이 없는 것은 윤회가 쉬지 않음을 표시함이다.

108염주는 마음 속 '108번뇌' 의미
다함없이 歡轉함은 쉬지 않는 윤회라

그러므로 마음에 간직하고 눈으로 보고 예불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그 상호(相好)가 분명하며, 그 모범을 자세히 살펴 장래 부처님 상호의 정인(正因)을 이루고자 함이니, 어찌 부질없는 일을 좋아하여 그것을 하겠는가.

더구나 마음을 정토(淨土)에 간직하면 심토(心土)가 스스로 청정하고, 마음에 부처를 간직한다면 심불(心佛)이 자연히 나타나 피차(彼此)의 불토(佛土)가 둘이 없음[無二]으로 융화되어 정토의 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다면 삼계(三界)의 업인(業因)으로 생사의 윤회에서 해탈할 인유(因由)가 없으리라.

경(經)에 말하기를 "남자를 좋아하면 남자가 되고,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가 된다"하니, 또한 이를 말미암은 것이다.

또 염주를 세는 것으로써 불호(佛號)의 염송(念誦)을 계상하는 것은 이도 또한 부처님의 방편이니, 일(事)에서 그 이치를 밝혀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가까운 것으로부터 먼 것에 이르게 하심이다.

무릇 세상에서 말하는 '삼계' 라는 것은 하늘·지옥·귀신·축생·수라·인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이 염주를 지니게 하여 매혹하지 않고, 그 백팔 번뇌의 일어남을 쳐서 한결같이 염불(念佛)로써 제압하게 한 것이다. 순환왕복(循環往復)하면서 잡되게 쓰는 마음이 없다는 그 이른바 '번뇌' 라는 것은 변하여 '보리' 를 이뤄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 쉽게 되어 삼계의 업인(業因)이 스스로 소멸하고, 보리의 묘과(妙果)에 날로 진보할 것이니, 부처님의 권면하고 염려하심이 여기에 극진하신 것이다.

한 과보의 뒤에는 내 마음의 원(願)이 저 부처님의 원력(願力)으로 더불어 서로 함영(涵泳)함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나르는 날개와 물을 따르는 외로운 돛단배와 같아 잠깐 사이에 바로 왕생(往生)함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텐데, 누구라서 그걸 저지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고 묘하며 자세함을 다함이 이와 같은데 노력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부처님오신날 특별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78,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美 캘리포니아에 '밀짚사원' 들어선다

미국 캘리포니아 서남부 도시 에스콘디도(Escondido)에서 일군의 비구니 스님들이 밀짚을 이용해 사원을 짓고 있다.

'ABC News10' 는 18일 "베트남계 비구니 스님들이 일명 '위대한 은신처가 있는 산(great hidden mountain)' 에 밀짚을 묶은 짚단으로 '디어 파크(Deer Park) 사원' 을 짓고 있다"며 "단순하고 자애로운 삶을 추구하는 스님들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자재인 밀짚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어 파크 사원이 세워지는 '위대한 은신처가 있는 산' 은 서양인에게 잘 알려진 명상 성소로 매년 평화와 위안을 바라며 내면을 밝히고자 하는 수천 여 명의 관광객들이 400 에이커에 달하는 이곳을 찾고 있다.

따라서 조용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스님들에게는 수행 공간이 항상 절박하기만 한 곳인 셈이다. 더욱이 비구니 스님들은 지금까지 다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집에 의지한 채 수행을 하고 있어, 디어 파크 사원은 이들 스님들에게 에스콘디도에서 처음 마련한 '온전한 수행처' 라 할 수 있다.

"현재 수영장에 딸린 아주 작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한 킨 니기엠(Kinh Nghiem) 스님은 "과거에는 수영장을 찾은 사람들이 수영복을 갈아입던 곳"이라며



베트남계 비구니 스님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수행처 '디어 파크 사원' 의 건축 자재인 짚단을 나르고 있다. 지난 3월 말 시작된 사원 건축에는 벽안의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계 비구니 스님들, 짚단으로 '디어 파크 사원' 건축 중
명상 성소로 각광 … 보시금·봉사자 줄이어

"나를 비롯해 도반 스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 아래에는 지하실이 있는데, 다람쥐나 토끼 같은 작은 산짐승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말했다.

'ABC News10' 에 따르면, 새롭게 짓고 있는 '디어 파크 사원' 은 닌 스님을 비롯해 다른 비구니 스님들에게 보다 넓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디어 파크 사원' 건축에 필요한 기금 조성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고,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약 16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됐는데, 에스콘디도의 '명상 성소' 를 찾은 벽안의 불자들도 적잖게 보시했고, 개중에는 명상 시간을 쪼개 건축 현장을 찾아와 자원봉사를 자처했다.

이에 대해 "디어 파크 사원 건설은 비구니 스님들의 소박한 서원과 이에 부응해 보시를 하는 사람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로 실현되고 있다"고 전한 'ABC News10' 는 "보시금 대부분은 밀짚과 목재를 구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대자연의 부산물인 밀짚과 목재는 구하기도 쉽고 친환경적인 만큼 유·무정물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수행자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건축자재"라고 평가했다.

한편 'ABC News10' 는 'Priorty One Project' Management' 의 에드 얼리(Ed Early) 씨의 말은 인용, "짚단은 불에 잘 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내화재' 로써도 주목받고 있는 건축자재"라며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산 속 사원의 건축자재로써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자재"라고 전했다.

짚단은 밀짚을 한 데 모아 단단히 묶어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밀짚 사이의 공간이 최소화되고 당연히 산소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내화재' 로써 그 기능을 인정받고 있다.

에드 얼리(Ed Early) 씨는 "짚단의 경우 목재보다 내화재로서 3배 정도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밖에도 짚단으로 지은 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게 건축 현장의 정설"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 사찰, '커플매니저' 로 나섰다

결혼적령기 싱글위한 짝 찾기 행사 마련

일본 불교 임제종(臨濟宗)이 '혼활(婚活)' 에 나선 젊은이를 위한 행사를 마련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혼활(婚活)은 결혼정보회사 가입, 맞선파티 참여 등 결혼을 위한 적극적인 제반 활동을 일컫는 일본의 신조어다.

임제종은 '커플 매칭 프로그램' 을 기획하는 '길연회(吉緣會)' 를 조직해 일본 전역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다. 길연회는 비슷한 연령대와 성향을 가진 싱글들이 사찰에 모여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염주 만들기, 채식 저녁식사, 주지스님 법문 등 사찰에서 준비한 이색 체험을 함께하며 마음에 맞는 상대를 찾기 시작한다. 특히 천생배필을 바라는 부적과 하트모양의 콩떡을 나눠 가지며, 행사의 막바지에는 스님들이 대신 자신의 연락처를 원하는 이성에게 전달함으로써 마음을 표시한다.

길연회는 일반적인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연회비나 서명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다. 참가비 약 1만 5천원만 지불하면 되고,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추가 비용을 부담치 않는다. 길연회 측은 "우리는 이익을 얻고자 행사를 기획한 것이 아니다. 단지 참가자들이 부처님 도량에서 좋은 짝을 찾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길연회 혼활 지원 프로그램은 가장 최근 행사에 6백여 지원자가 몰릴 만큼 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2천 6백여 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70쌍의 커플이 결혼에 골인했다.



일본 불교 임제종은 '커플 매칭 프로그램' 을 기획하는 '길연회(吉緣會)' 를 조직해 일본 전역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승려들이 준비한 채식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남녀 참가자들의 모습이다.

한편 길연회는 오는 5월 24일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에 위치한 용운사에서 진행하는 커플매칭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다.

일본 인터넷 언론 로켓뉴스24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지하게 결혼 상대를 만나기 위한 사람들이 주로 모이고 있다"며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기 원한다면 시간을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박아름 수습기자 pak502482@hyunbul.com

홍콩 츠산사 15일 개원… 76m 관음상 봉안

홍콩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라
1만여 명 참배 예약

아시아 최고 부호 리카싱(Li Ka-shing-86) 홍콩 CKH홀딩스 회장이 15억 홍콩달러(약 2100억 원)를 기부해 세운 절이 홍콩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theguardian' 지는 16일 "독실한 불교도인 리카싱 회장이 홍콩의 대표적인 부촌인 타이포(Taipo) 지역에 츠산(Tsz Shan)사를 15일 개원했다"며 "이 사찰은 홍콩 불교를 알리고, 경전 연구를 바라는 리카싱 회장의 서원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당대 사찰양식으로 지어진 츠산사의 전체 면적 47,000제곱미터이다. 이 절의 상징인 관음상은 높이 76미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청동 빛깔의 관음상(bronze goddess of mercy)이다.

'theguardian' 지는 "관음상은 홍콩의 주산인 펫싱(Pat Sing)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홍콩 항구와 그 주변의 작은 섬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홍콩의 또 다른 비경을 연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른 츠산(Tsz Shan)사가 지난 15일 개원됐다. 당대 사찰 양식으로 지어진 츠산사에는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높이 76m 관음상이 봉안됐다.

이밖에도 츠산사의 전각과 요사채 등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방탄유리로 마감된 창문이며,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돼 있고, 이중 'Grand Buddha hall', 'Universal hall', 'Great Vow hall' 에는 각각 24캐럿으로 도금된 불상을 봉안했다.

한편 'theguardian' 지는 "츠산사는 관광사찰이 아니다"는 리카싱 측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리카싱의 명성과 그의 행운을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대중들의 관심 속에 벌써부터 츠산사 참배를 희망한 예약자 수가 1만여 명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스웨덴, 청동불상 우표 보급

5세기 바이킹 의해 전해져



지난달 스웨덴 중앙 우체국은 연꽃 위에 앉아있는 부처님 형상을 담은 우표를 제작해 일반에 공개했다. 이 우표는 1954년 바이킹이라 불리던 해적의 집에서 발견된 청동불상을 담아냈다.

5세기 경 북인도 카슈미르 지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청동불상은 스웨덴 역사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해외불교 인터넷 언론 'Lion's Roar' 은 "현지 역사학자들은 불상이 바이킹에 의해 유라시아를 거쳐 스웨덴으로 옮겨졌다고 가정한다"며 "바이킹 시대에 유물이 어떻게 이전됐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고 전했다. **박아름 수습기자**

티베트 망명정부, 판첸라마 신변 확인 요청

1995년 6세 때 납치… 가족과 함께 구금된 것으로 판단

티베트 망명정부가 11대 판첸라마(Panchen Lama) '겐뒨 최끼 니마(Gedhun Choekyi Nyima)' 에 대한 신변 확인을 중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겐뒨 최끼 니마(사진)는 14대 달라이 라마로부터 10대 판첸라마의 환생자로 지목된 직후인 1995년 5월 17일 중국 당국에 납치되었다. 당시 6세였던 겐뒨 최끼 니마는 현재 27세로 지금까지 신변을 확인할 수 없지만, 티베트 망명정부는 "그의 가족과 함께 중국 정부에 구금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망명 정부의 타쉬 푼트속(Tashi Phuntsok) 대변인은 "11대 판첸라마를 찾는 일은 정치적 문제 이전에 종교적 문제"라고 전제하고 "겐뒨 최끼 니마의 신변 확인은 물론 그를 친견하길 바라는 티베트인의 염원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11대 판첸라마는 중국 정부가 지명한 인물인 '갤첸 노르부' 로, 티베트인들 사이에서는 '가짜 11대 판첸라마' 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11대 판첸라마 '겐뒨 최끼 니마(Gedhun Choekyi Nyima)' 납치 당시 6세 모습.

캘젠 노르부(Gyaincain Norbu, 1990년 생)는 '겐뒨 최끼 니마' 와 같은 티베트 북부 나취 지역 출신으로 공산당원인 티베트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역대 판첸라마가 머물던 따씨휀뽀(Tashilhunpo)사원에서 머물지 않고 주로 북경에 있는 티베트 불교 사원에 머물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자연향을원료로하여제작한천연향초

쑥양초세트 · 밀납양초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순례가 시작되는곳
www.ajetour.co.kr
SINCE1999

아제여행사

☎ 02)730-4008

YouTube f daum 카페 blog

구광국대표 010-3048-4008 구경모이사 010-2747-0908

지역별 담당 직통 전화 - 지역별 전문 상담가와 상담하세요!

- 괌/사이판/필리핀 임천지부장 070-5030-6229
- 네팔/인도 김남규팀장 070-5030-6233
- 부탄항공/항공 정진화대리 070-5030-6239
- 오대산/면산/태항산/태국 김하정팀장 070-5030-6234
- 부탄/부탄항공 김다영계장 070-5030-6237
- 구화산/황산/일본/백두산 장윤희팀장 070-5030-6232
- 미얀마/라오스 허은주계장 070-5030-9600
- 베·캄/아미산/동티벳 유나라주임 070-5030-6231
- 유럽 이석준주임 070-5030-6230
- 대만/중남미 정혜수주임 070-5030-6238
- 호주/스리랑카/몰디브 이정효주임 070-5030-4008

出 : 5월19일 6월22일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성도,아미산,낙산대불

出 : 6월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덴-테를지

出 : 9월3일 대만 공승제 5일
중태선사,불광산사,자제공덕회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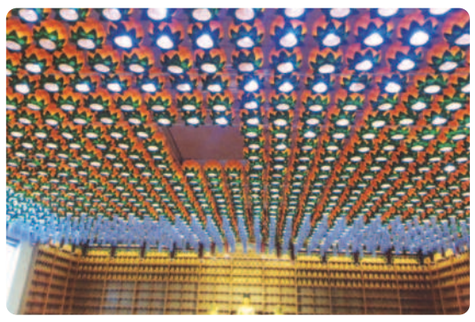
위드붇다

위드붇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빼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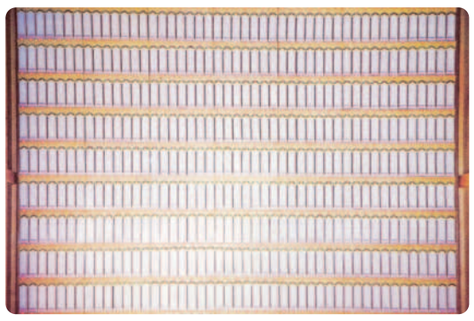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붇다를 검색하세요.







상념 사라진 순간 화폭에… 세상은 꽃으로 피어나네

차규선 작가 '화양연화' 전 5월 13일까지 '갤러리 래' 에서



화양연화(花樣年華)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말한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말하라고 하면 꽃피는 봄이 아닐까? 계절의 절정 봄을 맞아 차규선 작가〈사진〉가 꽃을 주제로 하는 개인전을 갖는다. 5월 13일까지 부산 '갤러리 래' 에서 열리는 '화양연화' 는 피고지는 꽃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무상을 동시에 이야기한다.

화양연화는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 즉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한때를 말하지만 꽃처럼 피고지는 것에 대한 애틋함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기도 한다고 차규선 작가는 말한다. "꽃이 아름답게 만개하는 절정기가 있듯 인간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화려한 시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나의 화려한 시절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허망한 순간일 수도 있죠"

그렇다. 삼라만상 속 인간에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순간은 가장 아름답고도 슬프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없으며 완전한 것도 없다. 그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꽃이 피었다 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작가는 꽃의 생성과 소멸 그 안에 담긴 우주적 진리를 화폭 속에 그대로 펼쳐낸다.

특히,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통도사 매화와 니르바나 시리즈 등 불교적 소재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사찰의 문살 무늬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니르바나는 구상과 비구상을 넘나들며 걱정 근심이 없는 열반의 상태를 담아낸다.

"사찰의 문살무늬에는 하늘색 에메랄드, 분홍빛 등 다양한 빛깔과 무늬의 꽃들이 사방으로 퍼져있죠. 이 작품 역시 그런 느낌을 살려 사방으로 꽃이 퍼져나가는 듯한 꽃 이미지를 그려내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림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을 표현해냈습니다. 그림을 시작할 때 굳이 어떤 계획을 하지 않아요. 붓 가는대로 그리다 보면 어떤 형상이 그려지는데 이 순간 상념이 사라지고 무아의 경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의 느낌을 니르바나에 담았습니다. 즉 사유와 잡념이 사라진 평온의 상태 명상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찰 여행을 즐기는 작가는 통도사 앞 매화나무를 분청사기 기법으로 표현한 '매화' 시리즈 로 탄생시켰다. 도자기 흙을 기본으로 고착 안료 등을 혼합해 캔버스 표면에 발라 작업하는 작가의 독특한 작업 방식은 색다른 질감을 표현 그만의 예술 세계를 표현해낸다. 이렇게 완성된 매화는 관람객들에게 봄의 향기를 물씬 전해줄 것이다.



니르바나. 걱정 근심이 사라지 평온의 상태를 보여준다.

사찰 문살 무늬 이미지 '니르바나' 로
걱정 근심 사라진 마음의 평안 표현
분청사기 기법의 통도사 매화 등
다양한 꽃 그림으로 삶의 의미 전해



차규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통도사 매화와 니르바나 시리즈 등 불교적 소재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작품은 통도사 매화를 분청사기 기법으로 표현했다.

작가가 이렇듯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불교적 색채를 가미하는 것은 경주에서 자란 그의 성장배경 덕분이다. "작가가 어디에서 성장했느냐는 그의 작품 세계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죠. 제가 자란 곳이 천년고도 경주이다 보니 그곳의 자연과 불교문화는 저한테 그대로 흡수되었고 제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 내듯이 제 취향 성향 이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어렴풋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 그가 보았고 기억하고 있는 풍경을 빠른 필치로 대상화해 화폭 위로 옮긴다. 그렇게 자연의 이미지를 명상적으로 포착해내면 기억은 다시 현재가 되어 한 폭의 예술로 펼쳐지는 것이다.

오로지 그림 그리기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작가는 세속적 욕망을 쫓기 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통한 예술적 표현을 인생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긴다. "현실에 살면서 세속적 욕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명예나 부에 얽매이기 보다는 자유로운 삶을 통해 저의 존재를 느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림 작업은 저에게 있어 구도의 길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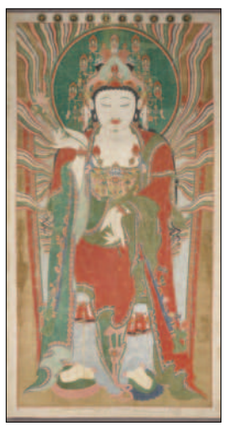
한편, 차규선 작가는 분청사기 기법을 응용한 독특한 화법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표현해 오고 있다. 그는 예술적 감흥을 함축적으로 표현 생동감과 역동성이 있는 작품으로 호평 받고 있다. (051)995-202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통도사성보박물관 영천 수도사 괘불전

보물 제1271호로 1704년에 조성

통도사성보박물관은 32회 괘불탱 특별전으로 영천 수도사 괘불탱을 10월20일까지 전시한다. 보물 제1271호로 지정된 '수도사 괘불' 은 1704년에 조성되었으며 삼베에 채색되어 있다. 주존은 연꽃을 들고 보관과 각종 영락 등으로 장엄된 형상이다. 화면 최상단에 '원만보신노사나불(圓滿報身盧舍那佛)' 이라는 한자가 한자씩 둥근 원안에 적혀있어 존명이 '원만보신노사나불'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괘불의 화기에 '세존괘불영상(世尊掛佛影像)' 이란 화명이 기록되어 있다.



영천 수도사 괘불.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연꽃을 들고 보관 등으로 장엄한 보살형의 도상은 화엄경의 화신으로 출현한 석가모니불의 도상과 염화시중으로 상징되는 선종의 석가모니불의 도상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도상을 노사나괘불로 존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삼신불 사상의 하나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 불교의 종파가 융합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화기를 통해 이 불화는 수화승 인문 스님 등 5명의 화승이 참여해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인문 스님은 수도사 괘불탱(1704)을 비롯해 함양 벽송사 지장시왕탱(1708), 충남청양 장곡사 아미타불탱(1708), 영국사 석가모니불탱(1709) 등 네 점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서 모두 수화승을 맡고 있어 인지도와 역량을 갖춘 화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문 스님의 작품은 비록 현존 작품 수가 적고 제작시기도 5년의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네 점 모두 삼베라는 공통의 재질에 제작되었으며 존형이나 채색, 장엄요소 등에서 인문 스님은 간결하고 담백한 화풍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정혜숙 기자

창사25주년 특별생방송 '참 좋은 오늘…'

5월1일 9시간 생방송으로 진행

불교방송이 창사 25주년을 맞아 9시간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한다. 개국 기념일인 5월 1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는 방송에서는 원영 스님, 법찬 스님, 월호 스님, 성진 스님, 배우 김혜옥, 강부자 씨 등 불교방송 전현역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출연해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신행담을 들어보는 '내인생의 불교방송' , 25년간 성원해준 청취자들에게 감사와 축원을 전하는 '불자여러분, 고맙습니다.' 본사와 각지방사를 연결하는 이원생방송 'BBS는 지금' 등 다양한 내용으로 9시간을 꾸민다.

이날 방송에서는 불교방송과 인연 깊은 불교계와 정재계, 방송계 인사들이 불교방송의 방송포교 25주년을 축하하고 불교방송의 새로운 발원인 △탄탄한 TV와 라디오 방송포교 터전 마련을 위한 사옥 건립 △난청지역 해소를 통한 가청권 전국 확대 △라디오 송신소, 중계소 건립에 불자들이 당당한 방송포교사로서 동참을 권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불교방송은 1990년 5월 1일 서울경기 지역 라디오방송(FM101.9MHz)으로 출발하여 2015년 현재 전국 7개 네트워크, 13개의 라디오 주파수를 운영하는 지상파 라디오방송과 2008년 개국한 BBS불교방송TV를 통해 방송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02)705-5513

정혜숙 기자



불교방송이 창사 25주년을 맞아 9시간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한다.

"청소년, '영화' 속에서 꿈을 펼쳐라"

성불암, 5월 6일 무료영화학교 '밀짚모자' 개교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난 청소년은 사회에서 방치되기 쉽다. 이에 서울의 한 사찰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영화 학교를 개교해 눈길을 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성불암(주지 법찬)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무료청소년 영화학교 '밀짚모자' 후원에 나선다. 5월 6일 오후 2시 성불암에서 개교식을 맞는 영화학교는 불교영화 '건반 없는 피아노' 를 제작중인 김행수 영화감독이 운영을 맡았다.

법찬 스님은 "지장보살님은 지옥에서 중생들을 전부 구제할 때까지 부처가 되길 마다하셨는데, 우리도 당장 불행한 청소년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 며 "더 나은 청소년 문화가 조성된 건강한 사회에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행수 감독은 "청소년 문제는 선후를 따질 게 아니라는 법찬 스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영화학교를 개교할 수 있었다"며 "영화 교육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과 정체성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업료가 전액 무료인 밀짚모자 영화학교과정은 1년이다. 청소년들은 3개월 간 영화 이론을 공부한 후에 자신들이 직접 쓴 시나리오로 현장에서 영화 제작에 들어가며, 연말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나서 영화 시사회 및 청소년 영화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행수 영화감독 운영위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꿈 찾아주고자"

한편 법찬 스님은 청소년들을 위한 강의실 제공뿐만 아니라 영화 학교 고문을 맡아 적극 후원할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박사와 대전대학교 남미애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나선다. 영화학교는 현재 후원회를 모집중에 있으며, 후원자는 '밀짚모자 청소년 영화제' 조직 위원회로 위촉될 예정이다. 010-3262-2830

박아름 수습기자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레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언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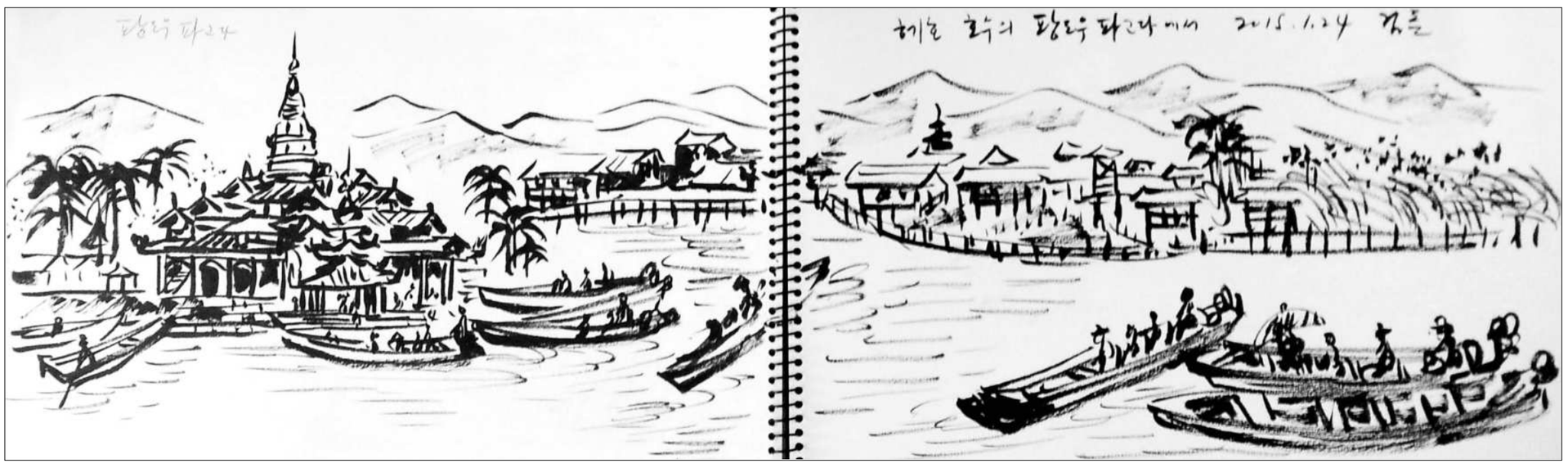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

황금부처님의 나라를 가다 ④

황금 불토에서 모두에게 빛이 있으라

그림 이호신·글 이종성 작가



소수민족의 뿌리 깊은 삶을 보다

점심을 먹고 호수 중앙에 조성된 팡도우 파고다로 이동한다. 계단을 올라 사원의 내부로 든다. 다섯 불상의 모습은 모두 둥근 공의 형태로 본디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다. 신도들이 금을 입힌 결과이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심중하다. 형상은 무릇 마음에 나온 것이니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면 아무 것도 없을 진저 진공묘유(眞空妙有)에 대한 가르침은 아닐까. 미얀마 4대 사찰의 하나로 일생에 한 번 이곳을 방문하여 참배하는 것을 미얀마 사람들은 필생의 숙원이라고 한다.

사원을 나와 배를 타고 소수민족의 삶의 현장을 찾아간다. 첫 번째로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어 여러 가지 생활소품과 도구들을 만드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옛 사극 속 풍경이다. 벌겋게 달군 쇠를 내려치는 메질소리가 땅 땅 땅, 리듬을 타고 울린다. 다음으로 수련을 이용하여 옷감을 만드는 전통공방을 탐방한다. 연 줄기를 잘라 양 옆으로 잡아당기자 무수한 흰 섬유가닥이 길게 늘어난다. 연사(蓮絲)는 연분홍꽃을 피우는 연에서만 뽑아낼 수 있으며, 옛날 어떤 여인이 스님께 가사를 지어 올린 것에서 유래되어 현재의 직물산업으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순금 일 그람을 잡아당기면 삼천 미터 넘게 늘어날 만큼 연신률이 좋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순일하면 끝없는 인연으로 이어져 알록달록 아름다운 영혼의 옷감이 된다는 것을 은연히 말해주고 있다. 모두 제품은 가내수공업의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물레를 돌리고 베틀에 앉은 모습 속에서 아득한 유년의 풍경들이 떠오른다. 스카프와 미얀마 전통의상 등을 전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곳으로 간다. 우리의 한복만큼이나 빛깔이 곱고 다양하다. 내가 여인이라면 저 옷 한 벌 사서 입고 싶다. 아침햇살 은은히 받는 홍매화인양 홍매화의 붉은색을 설핏하게 처리하여 격조를 은근히 높인 저고리와 인레호수의 처염한 아름다움이 깃든 블루사파이어 빛 치마를 입고 나들이를 하거나 차 한 잔 앞에 놓고 깊은 고요를 음미하고 싶다. 저런 아름다운 옷에서는 가끔씩 생의 질투가 느껴진다. 이어서 카렌족이 사는 마을로 이동한다. 일명 빠다웅족이라 부르고 목에 황동으로 만든 링을 끼고 사는 독특한 소수민족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주로 북부 산악지대에 사는 민족이라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은을 세공하는 마을을 방문하고 숙소로 돌아간다.

빛나는 별들, 별들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보석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막이다. 사람으로 하여 상처받고 속상해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얻게 된다. 그대가 설령 사람에게서 불편을 느낄 때가 있더라도 그를 이해하시라. 사람이 항상 평지만을 다닐 수는 없다. 평지 아닌 불평의 평지 그 비포장 돌길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길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깊어지고 확장된다. 바다를 이해하는, 바다의 가슴을 아는 소금처럼 우리는 그로 하여 한 알갱이의 빛이 된다.

쉐다곤 파고다에서 금빛 목소리를 듣다

이른 아침 인레호수를 떠나기 위해 배에 오른다. 호텔의 직원들이 나와 배웅을 한다. 옷을 단단히 입었는데도 춥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호수는 도무지 이 세상의 풍경이 아니다. 과연 이 세계는 무엇일까? 문명에 학습되지 않고 자본에 왜곡되지 않은 최초의 인류가 보여주었을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 저러한 것일까. 쉽게 잊혀지지 않을 헤어짐의 순간이다. 배는 호수의 중심을 향해 물살을 밀어내며 산을 뒤로 하고 달린다. 이곳 인타족 사람들은 모두가 외발로 서서 노를 젓는다.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부레옥잠이 호수 여기저기에 군생한다. 또한 물속에 그 밖의 수초가 많다. 그것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서야 하고, 선채로 노를 저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리에 노를 끼우고 배를 모는 모습이 능숙하다. 그물을 넓게 펼치며 던지는 모습이나 수면을 노로 치며 물고기를 모는 모습 등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인간 생명의 숭고함과 경건한 삶에의 외경심이다.

누가 허투로 삶을 사는가. 시간을 탕진하는가.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의 호수는 우리가 한 번도 읽지 못한 경전이다. 그 어떤 사유보다도 깊고 고요한 호수의 명상은 벼락보다 크게 울리는 뇌성이요 속삭이는 신의 목소리다. 인타족은 이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부레옥잠 같은 소수민족이다. 그들의 순수와 숭고함이 문명과 자본에 오염된 우리들을 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피안인 듯 차안인 듯 어느 세상인가로 끝없이 달려가는 뱃전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는다. 처음으로 나는 태양의 얼굴을 본다. 팡다우사원의 얼굴을 숨긴 금빛 부처다.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장엄한 풍광과 외경의 신비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거짓 없고 소박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어디에

미얀마 상징 쉐다곤 파고다 위용 뽐내

신소부 여왕의 황금 기증 시작으로 불사

중앙탑 중심으로 황금 파야 장관

도 기만이 없다. 투명하고 시리게 빛나는 이 아름다운 인레호수가 분명 내가 알지 못할 어느 신의 내면이리라.

종소리 속에서 붓다와 아난의 대화를 듣다

비행기를 타고 헤호를 떠나 첫날 도착했던 양곤으로 간다. 먼저 1983년 10월 9일 랑군(양곤) 아웅산 테러사건 현장에 들러 헌화하고, 묵념 한다. 순직한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부디 거룩한 희생이 우리의 역사와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로 옆에 있는 쉐다곤 파고다로 간다.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마를 상징하는 황금대탑으로 그 높이가 99미터에 달하여 사원의 바깥에서 보아도 그 위용이 실로 보는 이를 압도한다. 이제는 신발을 벗는 것이 자연스럽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사원의 내부로 들어간다. 긴 복도를 지나자 큰 보리수나무 한 그루가 일행을 맞는다. 나무 아래 금빛 찬란한 부처님이 정좌하고 계시다. 두 손 모아 합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는 그 실체를 증험할 수 있는 분명한 불역(佛域)의 세계임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 둘레가 2km에 달하며 동서남북 4개의 게이트가 있고, 그 규모가 커서 헤어지면 일행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실감 난다. 보리수나무 아래서 합장하고 바라보는데,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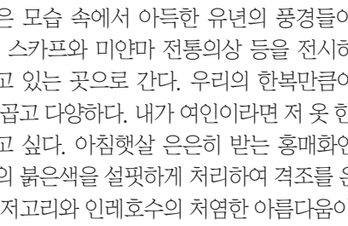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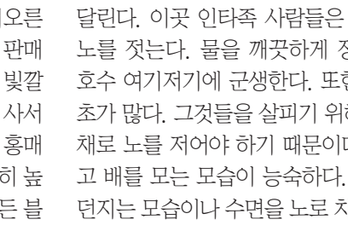
아난 : 종에서 납니다.
붓다 : 아난아! 종을 치는 방망이가 없어도 저절로 종소리가 나겠느냐?
아난 : 제가 생각해보니 종소리가 방망이에서 납니다.
붓다 : 방망이에서 종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귀가 없다면 그 소리도 나겠느냐?
아난 : 그러고 생각해보니 이 종소리는 귀에서 납니다.
붓다 : 귀로 종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종소리라고 분별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난 :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종소리는 생각에서 납니다.
붓다 :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에 매여 있느냐?
아난 : 예, 마음에 있습니다.
붓다 : 그러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아난이 마음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마음은 실체가 없었다. 아난이 세존에게 여쭈었다.)
아난 : 마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붓다 : 아난아! 그럼 허공 가운데 종소리가 나는구나.
-『능엄경』에서

그렇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온다. 모든 존재 역시 인연 속에서 난다. 내가 여기에 온 것도 인연에 의해서다. 그 무슨 진중한 인연이 있어 이 미얀마에서 저 아름답고 장엄한 쉐다곤 파고다의 금빛 시간에 물들고 있음이다. 능엄경 속 붓다와 아난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이다. 억누르기 어려운 놀라운 감동을 가만히 누르며 사원의 마당에 모셔놓은 다양한 불상들을 본다. 모두 아름답고 미려하다. 어디를 보아도 세상 어디에도 누추함이 없다. 엄숙하고 경건하고 신비로워진다. 우리의 마음이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쉐다곤 파고다는 탑이 모두 원형이다. 이 사원에는 중앙탑을 중심으로 부처님을 모신 크고 작은 황금빛 파야가 수없이 많다. 그 한가운데 하늘로 치솟은 탑의 화장장엄한 아름다움 앞에서 감동의 전율이 밀려온다. 망원경 하나가 중앙탑을 향해 있다. 렌즈 속으로 들어온 거대한 탑의 꼭대기에 우산처럼 생긴 맨 상륜부인 티(hti)를 꼼꼼히 본다. 온갖 보석과 금종으로 찬란하다. 신성한 불심이 광휘로 번지고 있다. 저 티를 장식하는데 수천 개가 넘는 다이아몬드가 사용되었고 모두 합치면 수백 캐럿이 된다고 한다. 또한 이 탑의 그 수량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은보석들을 재화가치로 환산하면 미얀마 사람들이 십년 동안 먹고 살 그런 분량이라고 하니 쉐다곤 파고다가 왜 미얀마의 상징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찬란히 빛나는 금은보석들 눈이 부시다. 나는 이제야 부처님의 빛이 왜 순금의 빛인지를 알 것 같다. 타푸샤와 발리카에게 내린 부처님 최초의 축원 "밝은 빛이 있으리라?" 불발을 넣어가던 타푸샤의 금발우와 발리카의 은발우가 금빛으로 빛났다고 한다. 그 빛으로 아무런 해도 없고 부자가 되고 촌장이 되고 자손들이 마침내 왕위에 올라 이 불발탑(佛髮塔)을 세우게 된 것이다. 장엄한 탑 아래 서보니 알겠다. 나는 참 극미하다. 극묘하다. 그것이 현대물리학의 나노이며,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나노가 우주임을 수천 년 전에 밝히셨던 것이다. 의상대사의 법성게 "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 먼지 한 점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 아주 미미한 것이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하나는 삼라만상 온 우주에 두루 편재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식을 올린 어느 불자가 사원의 마당에 세워놓은 꽃탑이 곱고 향기롭다. 많은 불상 가운데 유독 여인들만 앉아서 소원을 빌고 있는 파야가 있다. 15세기경 버고 왕조의 '신소부' 여왕이 자신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40kg의 금을 기증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왕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금을 기증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황금사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모두에게 빛이 있으라

이제 감동의 물결을 여운으로 간직한 채 떠나야할 시간이다. 사원을 나오기 위해 출구의 회랑으로 향한다. 야자수나무 사이 저 너머로 황금빛 석양이 황홀한 꿈속 같다. 사원을 나와 다시 한 번 돌아본다. 떼인코따라(Theinkottara) 언덕 위에 금빛 찬란한 쉐다곤 대탑이 우뚝하다. 저녁노을에 물든 황금빛 사원은 장엄하고 신비롭다. 이 지상에 어둠이 올 때 대탑은 그 빛을 더욱 환하게 발하리라. 여명의 빛이 저 탑의 꼭대기에 있는 다이아몬드에 제일 먼저 비추어 양곤의 아침을 열기까지 찬란하리라. 소금이 바다의 결정이듯 자비의 결정인 빛이 우리 마음의 등불에 점화될 것이다. '이 황금의 땅 불토에서 처소의 정토인 집으로 돌아가는 그대들 모두에게 빛이 있으라.' 금빛 석양이 그렇게 부처님의 목소리로 축복을 해주며 우리를 배웅하고 있다. 〈끝〉

자연산 구지뽕
묘목 분양 (3년, 5년생)
무노동으로 (2,000평) 연봉 1억이상 가능!!
●구지뽕 나무는 잎파리, 가지, 열매, 뿌리 등 전체를 건강식품,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고혈압, 당뇨, 근골강화, 면역력 증진에 특효)
●최고 소득 작물로써 자연산은 한번 심어 놓으면 300년이상 사찰자립에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500년 이상도 가능)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로 키워야 더 좋음으로 사찰자립, 귀농귀촌, 은퇴 후 생활에 최적의 고소득 효도나무입니다.
▶3년생 7,000주 ▶5년생 5,000주 보유중
개복숭아 묘목분양 (1년생)


• 강원도 350고지 이상의 토종 자연산 씨앗으로만 발아
• 무농약, 무비료 노동력 無
• 열매솎기, 밭매기가 전혀 필요 無
• 꽃이 황홀해서 관상수로도 최고!
• 한번 심어 놓으면 150년이상 수확 (300년 가능)
※ 전국 최대 묘목 보유! (50주이상 주문 부탁)
구입문의 010-9608-2356(충주농원)
입금계좌 : 농협 123-02-311652 (이상국)


◆3칸겹집 목조건물 : 11,000㎜×6,000㎜×4,800㎜ ■가격 : 평당 1,500,000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700 / 다그라스 대들보 180×210
다그라스목재도리 180×180 / 다그라스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황토흙 ALC 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 자재 –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구산업
www.지구산업.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5 ~ 4/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6	오대산 정념스님이 들려주는 행복한 불교이야기	자현스님	담앤북스
2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법정스님, 최인호	여백	7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법인스님	불광출판사
3	숨만 제대로 쉬면 무병장수 문제없다	수신오도	사유수	8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이제열	모과나무
4	오직 즐거움뿐	박혜상	이층버스	9	한국 큰스님에게 배우는 선의 지혜	윤홍식	봉황동래
5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지승호	운주사	10	기수련과 선 (카르마)	김성갑	운주사



범부(凡夫)는 어떻게 붓다가 되는가?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유식과 의식의 전환
정륜 지음
민족사 펴냄
2만 2천원

학술총서시리즈 29년의 역사를 이어온 민족사 학술총서 68권 〈유식과 의식의 전환〉이 나왔다. 민족사 학술총서시리즈는 1986년 1월에 첫 번째 책인 〈한국조계종의 성립사 연구〉가 출간된 이후로 꾸준히 불교 전문 학술서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고타마 싯다르타가 붓다가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수행을 하면 무엇이 변화하는 것일까? 변화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진짜 힐링을 위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내가 확신하는 '나' , 세상을 특정하게 재단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나의 '의식' 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책은 유식 사상을 통해 인간의 심리현상과 의식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의식의 전환을 동반한 깨달음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우리들을 이끈다.

이 책 속에는 고타마 싯다르타가 붓다로 존재의 전환을 이룬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범부들이 번뇌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치유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믿음과 서원이 담겨져 있다. 저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방식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먼 과거로부터 축적되어온 관습의 산물임을 자각하는 순간 '의식' 을 탐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내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 우월감과 열등감, 충만함과 결핍감은 물론 우리가 믿는 진실조차 이미 굳어져 있는 인식의 틀이 만들어 낸 허구에 불과하다. 범부(凡夫)들은 그런 허구를 '진짜(real)' 라고 믿으며 무명과 고통(苦)의 수레바퀴에 결박된 채 윤회를 거듭한다. 석가족의 왕자였던 고타마 싯다르타도 출가 전에는 무명에 감싸여 있는 한낱 범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출가 후 각고의 노력 끝에 싯다르타는 깨달아 붓다가 되었다. 싯다르타는 의식의 전환을 동반한 존재의 전환을 이뤄낸 것이다. 저자가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범부인 고타마 싯다르타는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자가 됐을까? 그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저자는 범부에서 성자로 가는 여정을 의식의 변환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유식 사상을 연구의 중심 주제로 삼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저자는 유식에서 말하는 '의식의 구조 및 자기 변환' 을 분석을 통해 범부의 심리적 현실을 드러내고 보살과 중생의 양극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 과정서 유식과 유식성의 정의를 고찰하고, 기존의 이해와 달리 유식이란 연생법(緣生法)의 다른 이름이고, 유식성은 연기(緣起)의 다른 이름임을 밝힌다. 또 범부의 의식 상태와 지관의 상태, 성자의 의식 상태의 차이를 해명하고 색신(色身)의 법신(法身)으로의 변환 과정은 결국 육근(六根)의 변화임을 치밀하게 논증해 낸다. 그 과정을 결과로 탄생한 책이 바로 〈유식과 의식의 전환〉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의식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단순한 이론 습득을 넘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실천적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인간 '의식' 의 변환 과정 탐구가 주제
범부서 성자로의 여정…의식 변환과정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행을 강조

의식의 비밀을 탐구하는 유식 사상

유식 사상이란 기원후 3~4세기경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사상이다. 붓다 사후 불교는 논쟁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부파불교(소승불교)가 부흥했고, 이후 중생 구제를 목표로 하는 대승불교가 발전해 나갔다.

대승불교는 사상적으로 〈반야경〉에 근거한 '공사상' 과 〈해심밀경〉 등에 근거한 '유식사상'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후자를 추구한 집단을 가리켜 '유가행파(瑜伽行派)' 라고 부른다. 이 유가행파의 사상이 바로 유식 사상이다.

유가행파의 유식 사상은 반야의 공사상을 답습하면서 '식(識)' 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탐구해 왔다.

유식 사상은 모든 현상을 식의 작용으로 설명한다. 유가행파는 현재의 의식 상태의 주체는 무시이래의 경험을 습기라는 형태로 저장하고 보관해오는 아뢰야식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해가는 식작용(識轉變)의 결과물이다.

유식은 '유식무경(唯識無境)' 이라는 말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식' 은 마음, '경(境)' 은 외부 세계란 뜻으로, '오직 식識뿐 경境은 없다' 는 유식무경은 마음 밖에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세계는 없다는 뜻이다. 예컨대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라일락 향기 대신 우리의 과거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라일락 향기에 대한 이미지에 반응하는 것뿐이다. 유가행파들은 우리의 인식대상도 이런 이미지와 같은 것이라 생각했다. 범부는 식이 만들어 낸 이미지를 실체라고 착각하는 무지한 존재들을 가리킨다. 이런 착각으로 인해 범부의 아상(我相)은 더욱 굳건해지고 집착과 망상은 더욱 커진다.

유식 사상은 이 세계의 모든 현상은 식이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허깨비와 같다고 말한다. 우리는 허깨비 위에서 실체를 집착하고 꿈의 세계를 현실이라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허깨비 위에서 허깨비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 이중의 허깨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려는 게 바로 유식 사상이다.

의식은 어떻게 전환되는가?

저자는 과거의 경험(業)이 만들어 낸 인식의 틀을 깨고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우선 의식의 흐름을 관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지관 수행이다. 지관 수행을 통해 일상 의식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규명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 인격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몸의 활동이나 생리적 기능이 마음을 속박하지만, 부단한 수행이 육근(六根)의 작용방식, 기능을 변화시킨다고 본다.

이로써 '고통' 에 대한 이해와 '경험' 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스스로 치유의 능력을 계발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신뢰를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아 중심적 사유를 하던 범부는 지관 수행을 통해 인식의 변환을 이룸으로써 모든 생명체의 본질성을 보는 지혜의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식 사상과 융(C. G. Jung)을 중심으로 발흥한 현대의 분석심리학의 유사성을 분석한다. 유식 사상에서 습관적 경향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거울 기능을 하는 진리 경청(문훈습)을 필수조건으로 보았듯이, 분석심리의 꿈 분석에서도 새로운 거울의 기능을 하는 '분석가' 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인의 속삭임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때

김재진 지음 | 꿈꾸는서재 펴냄 | 9500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햇볕과 그 사람의 그늘을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두운 밤 나란히 걷는 발자국 소리 같아 멀어져도 도란도란 가지런한 숨결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픔 속에 가려 있는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다.
창문을 활짝 열고 새 바람 들여놓듯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누군가를〉중에서

몸보다 가슴, 가슴보다 영혼이 먼저 앞으로 뛰어가는 사람. 삶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날카로운 깨달음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시인인 저자. 이력 또한 화려하다. 조선일보와 영남일보 신춘문예, 작가세계 신인상에 소설과 시, 중편소설이 당선되며 오랜 시간 글을 써온 천생 글쟁이다. 불교방송서 PD로 일했던 저자 김재진 시인의 삶은 어찌 보면 평화롭고 어찌 보면 파란곡절 속에 놓여 있다. 삶의 마디마디에서 받은 상처와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태어난 시편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의 속삭임이 되어준다. 시가 주목 받기 힘든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시를 쓰는 김재진 시인의 시집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개정 출간에 맞추어 세계적인 작곡가 마이클호페의 'The Parting' 등 치유와 위안을 주는 명곡들이 수록된 동명의 음반이 함께 발매되었다.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위해 노래한다는 시인. 내 안에 있는 진실과 내 안에 있으면서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문 닫힌 사랑을 위해 자물쇠 하나 채워놓지 않은 방 안에 있으면서도 방문 열지 못한 채 갇혀 있는 여리디여린 사람들을 위해 시를 쓴다는 시인 김재진. 고은 시인은 이런 그를 두고 "그의 시는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듯 없는 듯 여민 가슴인 채 심금 조용히 일렁이게 합니다. 이런 시인이 있어야 세상이 무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마음공부 전문방송인 유나방송을 이끄는 만큼 그의 시는 아름다운 음악, 영상과 함께 동영상으로도 제작돼 사랑받고 있으며, 유튜브에 공개된 그의 시 〈토닥토닥〉은 15만 건에 이르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받았다.

시집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할 때〉 속에는 저마다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이들을 격려하는 9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인의 속삭임은 마음의 위안이 필요한 우리 시대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준다.

김주일 기자

주옥같은 선문게송 등 소참 법문 90편

선묵향기

한암 정수 | 정우서적 | 2만원



이 책은 연세대 철학과 신규탁 교수의 서문서 언급됐듯이, 〈전등록〉이나 〈벽암록〉 등서나 볼 수 있던 주옥같은 선문 게송들을 해설과 함께 붓으로 써놓은, 안거 3개월 동안 행한 90편의 소참법문으로 이뤄진 참선교육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서체로 글을 쓰고 법문을 엮은 한암 정수 스님은 1957년 충북 오송서 태어나 1973년 봉선사 운경 화상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6년 법주사에서 석암 화상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서 수학했으며, 1995년 10월 송광사에서 수선 안거한 이래 10안거를 성만했고, 봉선사 운경 화상께 입실 건당했으며 2009년 1월 종사법계를 품수했다. 봉화 정사와 백련사를 창건하고, 백화암과 용문사주지를 역임했다. 2011년 봉선사 주지로 취임, 시민선원을 개원해 일반불자들의 참선과 교학을 지도하고 있다. 일찍이 청남 오재봉 선생에게 서예를 사사하였으며, 미국 하와이 대원사에서 특별개인전(2006)과 봉선사 육화당개원 특별개인전(2013)을 열었으며, 봉선사 건봉사 법흥사 등 전국 40여 사찰의 현판과 주련, 그리고 비문을 썼다.

이 책에서는 수십 년 공력 서예 대가의 다양한 서체와 역대 조사 스님들의 감로 법어를 만날 수 있다. 108서체를 구사하는 서예가 전정우 선생은 이 책을 이렇게 평한다.

"전문 서예가라 할지라도 몇 가지 서체를 구사할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거니와 또한 수준 높은 작품을 구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선문(禪門)의 수도자로서 서예를 함께하는 중진, 중견스님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종단의 중진이신 정수 스님만큼 전예해행초(篆隸楷行草)는 물론 호태왕비, 금문, 목간 서체 등 각종 서체를 섭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글에서도 고체와 궁체 그리고 필사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 말한다. 신규탁 교수도 "이 책에는 간화선을 수십년 실참한 수행자 자신의 살림살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안거 90일 동안 펼쳐진 소참법문은 참선공부과정을 면밀히 참고해 편찬했으므로 시민선방과 같은 교육기관의 교재 또는 참선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불교용품 전문·고급 연등·봉축 현수막

2015 연등 특별공급 (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봉축 리본
▶세로거치형 현수막
▶종이등표
▶종이주름등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고급 칼라연등 : 진분홍, 연분홍, 보라, 다홍, 오렌지 8cm
▶설화등 : 다홍, 연분홍, 진분홍, 오렌지, 보라 8cm
▶가야 궁단등 : 연분홍, 오렌지, 진분홍, 다홍, 보라 8cm
▶지하철현수막
▶어깨띠
▶법보시 염주
어린이 합장주(6mm, 7mm, 8mm)
오색 합장주
경면주사 108염주 (6mm, 7mm, 8mm)
오색 108염주(6mm)
경면주사 합장주(6mm, 7mm, 8mm)
합장주
▶비닐만월등(연꽃/일반)
▶봉축현수막
봉 부처님 오신날 축
불기 2559 사월초파일 2015. 5. 25 조계사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불기 2559 사월초파일 2015. 5. 25 조계사
*궁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가격할인예외품목

불교장엄용품전문
가야기획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아미타불과 극락정토의 장엄함 설하다

불설아미타경소초

운서주굉 지음 | 연관 옮김 | 불광 펴냄 | 3만 7천원



불교의 진리가 보석처럼 빼곡히 박혀 있는 〈불설아미타경〉은 제자들의 간청이 아닌 석가모니 부처님 스스로 자진해 설한 이른바 무문자설경(無問自說經)이다. 아미타불과 극락정토의 장엄함을 설하고 일심염불을 통해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명나라 4대 고승으로 꼽히는 운서주굉 스님이 구마라집 한역(漢譯) 〈불설아미타경〉에 소초를 덧붙여 해설하고 상세히 풀이했다. 지리산 실상사에 머물며 역경과 선방 수행에 전념하는 연관 스님이 꼬박 2년에 걸쳐 국내 최초로 번역했다. 716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며, 정토교학의 이론과 실천을 모두 담아냈다.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설명하는 이 책 한 권만 정독한다면, 〈불설아미타경〉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풀릴 것 같다.

이 책의 저자인 운서주굉은 불교계 영원한 고전 〈죽창수필(竹窓隨筆)〉을 집필한 중국 명나라 말기 스님으로서, 17세에 이미 '사전'이란 칭호를 들을 정도로 박학했으며 문장과 덕행이 뛰어났다. 계율의 부흥과 정토법문의 제창, 살생 금지와 방생 권장 등 선과 염불과 계율에 두루 관심을 갖고 활약했으며, 항주 운서산에 일대총림을 창설해 크게 종풍을 떨쳤다. 운서주굉의 〈죽창수필〉에 이어 이 책까지 번역한 연관 스님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학승인 관응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했다.

이 책 〈불설아미타경 소초-자세히 풀이한 석가불이 아미타를 설한 경〉은 경·소·초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전체 큰 문단을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대의(大意)를 종합적으로 밝히고(通序大意), 둘째는 문단을 나누어 문장을 해석했고(開章釋文), 셋째는 주(呪)의 뜻을 결론지어 해석했다(結釋呪意).

주된 내용은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부처님 일대교설에 따라 자성(自性)을 밝혔고, 둘째는 정토 공덕을 찬탄했으며, 셋째는 중생이 부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넷째는 기존의 〈불설아미타경〉을 풀이한 책들이 문장은 간절하나 지나치게 간단해 그 뜻이 명확치 못함을 지적하며, 여러 전적과 수행문을 모아 종합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째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까이나 멀리까지 전해져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도록 가피를 청했다.

이 책의 요지는 한마디로 칭명염불(稱名念佛), 일심불란(一心不亂), 왕생정토(往生淨土)이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송해, 흐트러짐 없는 일심의 상태가 되어, 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이다. 칭명은 왕생의 인(因)이요, 왕생은 일심의 과(果)며, 일심은 앞과 뒤를 아우르는 이 경 전체의 골자다. 또한 이치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그 심오한 뜻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정토사상의 핵심을 꿰뚫으며 신(信)·원(願)·행(行)을 빠짐없이 밝히고 있다.

연관스님, 2년에 걸쳐 국내 최초 번역

정토교학의 이론과 실천 모두 담아

그렇다면 아미타경은 어떤 경전인가

〈무량수경(無量壽經)〉〈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과 함께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 가운데 하나로, 402년경 삼장법사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漢譯)한 한역본의 문장이 가장 간결하여 일반 불교신도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독송되는 경전이다.

이 경의 근본 요지는 아미타불과 극락정토(極樂淨土)의 장엄함을 설하고, 이곳 부처님의 광명과 무량무변한 수명과 그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워야 하며, 만약 사람들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1일 내지 7일 동안 일심으로 염불하면 임종할 때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러한 정토에 왕생하는 길이 바로 아미타불을 칭명염불(稱名念佛)하는 데 있다는 정토신앙을 설하는 경전이다.

경 이름 〈불설아미타경〉은 '능설(能說)인 석가불이 소설(所說)인 아미타를 설한 경'이라는 의미이다. 곧, 이 국토의 석가모니불이 저 국토의 아미타불의 의보와 정보 장엄과, 신·원·왕생을 설한 경이다. 또한 '설'을 '열(悅, 기쁘다)'의 뜻으로 보기도 한다. 곧, '석가불이 아미타를 기쁘게 한 경'이라는 뜻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운서주굉 스님**은?

스님의 이름은 주굉. 자는 불혜(佛慧), 호는 연지(蓮池)다. 명나라 가정(嘉靖) 14년(1535)에 고항 인화현서 태어나 서른한 살 때 무문성천(無門性天)에게 출가했고 소암덕보(笑巖德寶)의 법을 이었다. 마흔네 살 때 항주 운서산 복호사 옛터에 총림을 이루니 스님의 교화도량인 운서사다. 스님의 교화 방편은 선학을 창도하고 계율을 부활했으며 정토법을 제창하고 살생을 금하고 방생을 권장하였다. 만력 43년(1615)에 돌아가니 세수는 81, 법랍은 50이었다. 청나라 옹정 때 세종이 정묘진수(淨妙眞修)라는 시호를 내리고 법어집이 어선어록(御選語錄)에 편입되어 돌아가신 후에 성광(聖光)이 더욱 빛났다.

牛步千里로 20년간 돌아본 150여 명찰…48개 권역 세분화

〈우보천리〉

우보천리, 산사에서 나를 보다

건국불자회 지음 | 디플랜네트워크 펴냄 | 2만 5천원



우보천리(牛步千里). 우직한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말이다. 20여년 동안 한달도 거르지 않고 사찰순례를 진행해온 건국불자회의 우직한 행보에 어울리는 말이다.

건국대 출신 불자들의 모임인 건국불자회는 1997년 10월 모임을 만든 이래 20년동안 150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사찰을 순례한 흔적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제목은 〈우보천리 주말사찰여행, 산사에서 나를 보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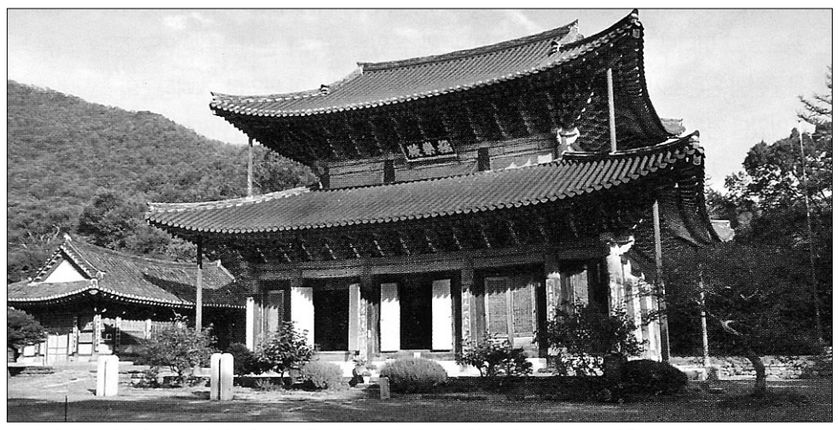
이 책은 전국을 서울 등 전국 8개권으로 나눈 뒤 다시 48개 권역으로 세분화시켜 각 권역에 있는 사찰들을 빼어난 풍광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책에 사용된 사진은 '송화가족'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김덕종씨가 1300여 사찰을 촬영한 사진 6만여장과, 사찰생태 연구가였던 故 김재일 회장의 슬라이드 필름 5천여장을 제공받아 삽입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사찰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우선 '사찰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통해 사찰의 의미와 기원을 알도록 했다. 이외에도 한국 사찰의 종류와 사찰 구조, 일주문서 법당까지 둘러보기 등을 실어 놓아 사찰참배전 예습 개념으로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사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사찰의 관계를 비롯해 한국 사찰의 종류를 삼보사찰, 5대 적멸보궁, 조계종 8대총림, 기도성지, 33관음 기도사찰 등으로 분류해 소개한다.

우재영 건국불자회 회장은 "사찰은 예로부터 우리 마음에 안식과 휴식을 주는 마음의 고향이자 쉼터가 되어 왔다. 이 책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임을 상기시켜주고 사찰여행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한층 높이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사찰을 100배 즐기기 위해선 그 안에 자리한 전각과 도량의 장엄물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알면 좋다.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삼신당 등 전각과 범종, 목어, 죽비 등의 법구는 저마다 고유의 용도와 의미를 지녔다. 이들은 단순히 절의 구조를 이루는데 그치지 않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한다. 전각 이외에도



무량사의 극락전은 특이하게 2층 구조를 하고 있어 다른 사찰에서 보기 드문 건축물이다. 보물 356호로 조선중기 때 지어졌다.

탑과 불상, 탱화, 부도 등의 조형물은 종교적인 의미는 물론 예술성까지 겸비해 산사의 고즈넉한 매력을 더해준다. 이 책은 이러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준다. 보너스로 주변의 문화유적이나 볼거리, 들러야할 이색명소, 관련 인물에 대한 정보 등 알짜 정보들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건국불자회 원로회원인 해산 민을식 거사(81)는 "일상에 찌든 번뇌를 내려놓기에 사찰만큼 좋은 곳은 없다"며 "책 출간을 계기로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사찰을 순례하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책 출간을 축하했다.

한편 건국불자회는 4월 9일 건국대 동문회관서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해 정건수 건국대 총동문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천수경 염불 기도의 가피력은?

천수경과 기도경험

윤영해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1만 5천원



한국 불교서 빼놓을 수 없는 경전이 〈천수경〉이다. 모든 절에서 아침저녁으로 예불과 함께 독송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불자들뿐만 아니라 절에 가본 사람들은 한두 번은 들었을 경전이다. 쉽게는 또는 장남삼아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듣거나 읊어 보았을 것이다.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수많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과 신통력을 그대로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는 왜 이 경전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며 조석으로 외우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까?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어머니 같은 마음을 기다리고 꿈꾸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관세음보살은 누구에게나 태양의 햇살같이 공평하게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다. '천수천안'.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을 보살피고 어루만지며 보호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쉽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다.

〈천수경〉은 관음신앙을 근본으로 삼아 신행생활의 토대를 이루어 불자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경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행이 믿음(信), 이해(解), 실천(行), 성취(證)의 과정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문자와 개념으로 이루어진 말씀(經典)인 이상 믿음은 당연한 것이다.

이 책은 불교 초심자들의 입문을 돕고자 강의 말투로 서술되었기에 초심자들이 읽고 이해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문의 번역은 조계종에서 표준 번역을 내놓았기에 그것에 따르기로 했다.

이 책은 경문해설이 목적이어서 자세한 풀이로 신도들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이 책을 정독하고 나면 아하!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찬탄할 것이다. 모쪼록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읽어보면 삶에 무한한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 1부의 1장에서는 〈천수경〉이 만들어진 의미와 신행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설명하였고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 원래 이름은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이다. 이것을 줄여 〈천수다라니〉라고도 하며 더 줄여 〈천수경〉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경전의 원전은 인도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넘어와 번역한 한역본과 불공스님, 지통스님, 금강지스님 이 번역한 십여 가지가 된다고 한다. 천수경은 먼 옛날 천광왕정여래부처님이 처음 설하신 것이라고도 하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도 하는 설이 있지만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다.

2장에서는 경전의 구조와 의미를 새겨보고자 했다. 구조는 개경. 계청. 별원. 별귀의. 다라니. 찬탄. 참회. 준제주. 총원으로 개경은 진리의 창고를 열어주는 것이고 계청 관세음보살님께 청하는 것이며 별원은 열 가지 서원과 여섯 가지 회향으로 돼있다.

또한 다라니는 미묘하고 위대한 신비의 대다라니로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되는 무궁한 진리의 진언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제 2부에서는 기도법과 영험으로 불교의 기도하는 정신과

쉬운 이해 위해 강의 어투 서술

경전의미, 구조 등 상세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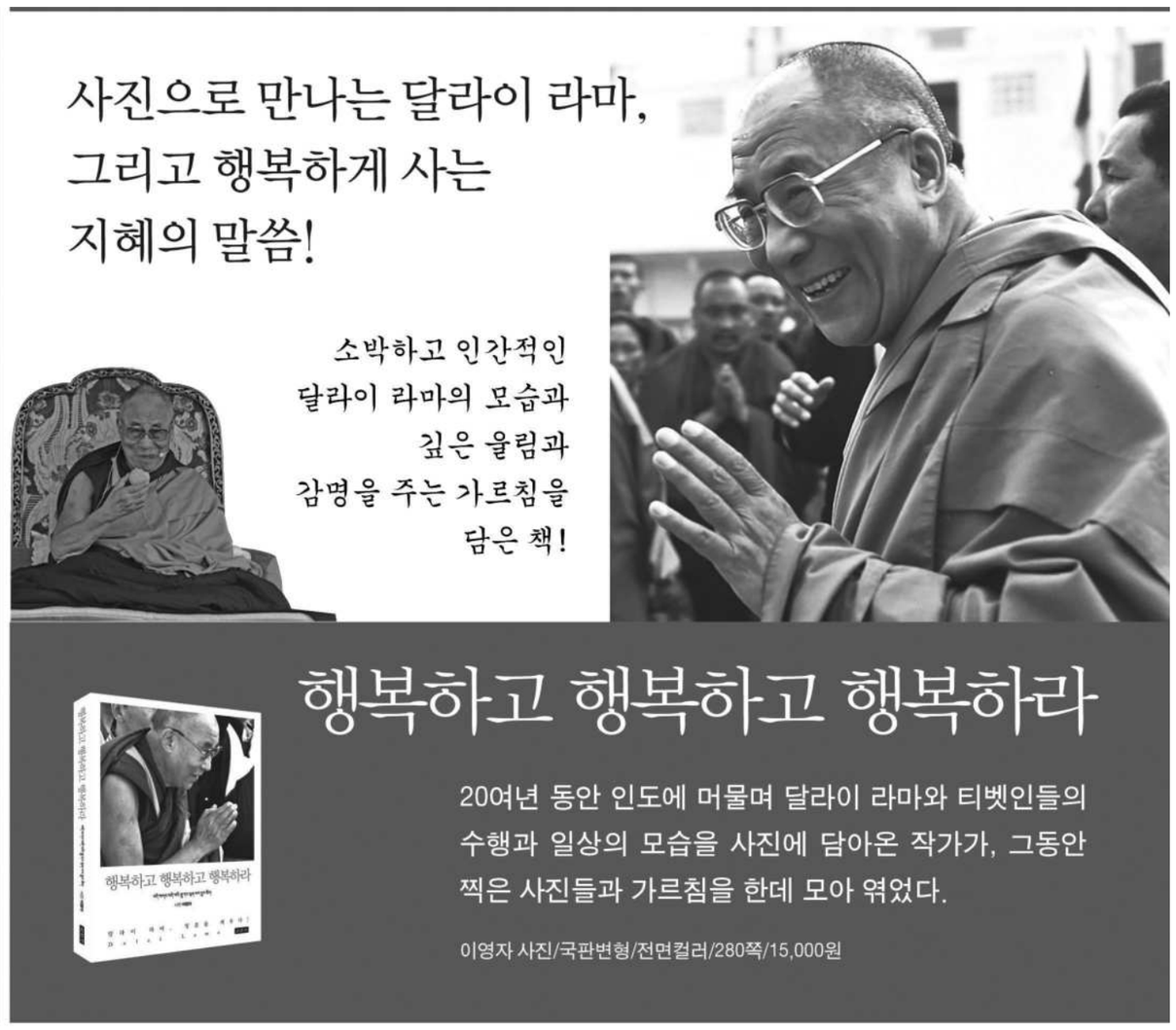
믿고 염불해 성불하는 길을 제시했다. 또한 관세음보살 기도법과 염불 기도법을 비롯한 기도법에 대해서 설명했다.

관음기도의 이야기를 찾아내 소개하고 그 영험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다. 관음기도법은 관음보살을 끝없이 부르는 것이다. 보통 정근이라고 한다.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만 생각하며 부르다보면 온갖 망상이 영화 필름처럼 돌아간다. 하루에 한 두 시간씩 정해놓고 7일, 21일 기도를 하다보면 번뇌망상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염불 기도법은 큰소리로 경을 읽거나 외우는 것이다. 다라니나 금강경 또는 약찬게 등등 자기가 좋아하는 경전을 큰소리로 읽으면 된다. 큰소리로 읽는 것은 다른 잡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많은 중생들이 듣고 신심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험으로는 보덕각시이야기와 홍련암 조신스님이야기 등 관음기도로 많은 영험을 체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륵신앙과 예수재, 백중기도를 포함한 기도법도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정진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불교로 읽는 古典

엘리자베 퀴블러 로스의 〈인생수업〉



황수경
동국대 명상심리학과 강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1926~2004)는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며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불린다. 말기 환자 수백명을 인터뷰한 내용인 〈죽음의 순간(On death and dying)〉은 전 세계에 번역되었고 그녀는 죽음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었다. 스위스에서 세쌍둥이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난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고민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19세의 소녀로 자원봉사를 하던 중 유대인수용소를 방문했다. 그 곳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벽에 그려놓은 환생을 상징하는 나비들을 보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후에 정신의학을 공부한 그녀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를 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죽음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생의 의미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녀는 역사상 처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특히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우리에게 내놓았다. 죽음에 관한 연구와 인간성 회복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학술상을 받은 여성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상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대한 것이다.

〈인생수업(Life lessons)〉은 호스피스 분야의 고전이 되었다. 이 책이 특히 의미깊은 것은, 퀴블러 로스 자신이 뇌졸중으로 휠체어에 의지하며 죽어가는 과정에서 완성한 책이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과정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집필한 것이다. 데이비드 케슬러는 공동으로 책을 정리하면서,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 경험이라고 했다.

〈인생수업〉의 내용들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재 더욱 귀한 레슨이 될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정년 퇴임후 잘하면 30년 이상, 그 긴 세월을 뭐하고 지내나?"하고 걱정하는 듯하다.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인 한국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여준다. 퀴블러 로스는 우리에게 현재 나이에 상관없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마라!"고 충고한다. 지금 당신이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면,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진정한 자신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내려는 최초의 시도를 한다. 죽음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어느 순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직업, 재산, 학력, 외모, 능력 등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병원에서 고통 중에 누워있고, 어떤 사회활동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때 그는 누구인가? 누구든지 곧 늙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진정한 자아는 현실에서의 가면과 역할들에 가려져 있다. 죽음 앞에서는 그것들을 보지 않고 '그 사람' 만이 보인다."

조건, 자격들은 인생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배움의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외적인 조건에 중독되어서 그 안의 사람을 바라보는 법을 잊어버렸다. 자신의 스펙을 헤아리면서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조건을 갖추어도 마음을 모르면 정말 사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제서야 나는 누구지? 라고 묻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은 특정 불치병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언젠가 죽을 것이라고 선고받은 몸이다. 그 시한이 100년 후, 30년 후, 10년 후이든, 동일한 것이다. 역사상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이다. 그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진정으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퀴블러 로스는 내면을 향하여,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라고 말한다. "당신 안에는 정의 내릴 수 없는 불변의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은 없어지거나 나이, 질병,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본래의 당신은 가장 순수한 사람이며 완전한 존재다."

육신과 조건은 변해도 내면의 불성은 누구에게나 불생불멸로 존재한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같다. 무아라는 것은 한 순간도 고정되어 있는 자신은 없다는 것이다. 변하고 사라지는 역할과 자격을 자기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다. 몸조차도 변하고 죽게 된다. 내면의 진정한 자신을 만나야 한다.

"진정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감추고 싶은 어두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진정한 자아를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실현하려면 "밖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 귀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에서 소통과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영혼과 마음을 보지 않고 외적인 조건만을 본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인데, 이 기본을 모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을 사랑하겠다.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공부 잘 하고 성공하면 사랑할 것이다.

퀴블러 로스는 "사랑한다면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한다. "사랑은 지식, 학벌, 권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사랑은 두려움의 반대말이고 관계의 본질이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인성교육법이 통과될 정도로 마음과 인성에 대해 소홀했던 우리사회이다.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지식, 학벌, 직업, 돈 등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들이다. 이 책에서는 그 반대를 말하고 있다. 생명은 자격으로 설명할 수 없고, 사랑은 더더욱 아니다. 소중한 생명을 무시하고 함부로 차별한 결과가 우울증, 자살, 범죄, 폭력 등인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우리들이야말로 사랑을,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존중하는 사랑을 회복할 때이다.



부처님 열반상의 모습.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현재의 삶을 더 의미깊고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자신이 뇌졸중 투병하며 완성시킨
20세기 호스피스 고전 〈인생수업〉
죽음 과정 성찰… 삶의 가치 역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매순간이 일체유심조' 교훈 전해

"완전한 삶은 자신 안에서부터 나와야만 한다. 특별한 누군가를 발견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해결되진 않는다."

〈인생수업〉에는 수많은 사례가 나온다. 38세의 한 남자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홀로 외롭게 누워있다. "난 항상 다른 여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지만, 그동안 사랑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라고 한다.

퀴블러 로스가 그에게 말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항상 행복하게 해 줄수는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면요?" 사랑은 삶의 행복 뿐 아니라 고통,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기는 어렵지만, 옆에 있으면서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병원의 한 청소부는 죽어가는 환자들과 단지 함께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몰라보게 밝아지게 만들어서 퀴블러 로스를 놀라게 만들었다. 호스피스 전문가인 퀴블러 로스는 자기도 가장 하기 어려운 일, 말기환자를 밝아지게 하는 비결을 알 수 있다면 백만불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청소부는 전문지식도 없었고 진통제를 주거나 치료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알고 함께 하는 사랑 때문에 환자들에게 빛을 준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환상이 제거된 힘이 나온다"고 하였다. 타인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사성제와 같다. 우리도 너무 늦기 전에, 지금 가족, 친구, 도반들에게 자기 식대로 기대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불완전함을 용서하고, 함께 해주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과거에 용서받지 못한 일로 괴로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고통 받는다고 한다. 〈인생수업〉은 우리가 원래 불완전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어 용서하라고 한다. 독일 유태인 수용소에서 나온 후, 나치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용서하는 여성의 이야기도 나온다. 용서는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다. 퀴블러 로스는 원망하는 마음은 영혼을 질식하게 한다고 까지 하였다. 불교에서 자비를 말하는데, 불자지만 자비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다. 내면에 원망, 분노, 남 탓이 많은 마음에서는 자비심이 피어날 수가 없다.

"용서는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다. 용서는 우리의 영적인 정화이다. 용서는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사랑과 접촉하도록 도와준다." 결국 용서는 상대만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킨다.

그럼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래의 나라에서 살고 여행한다. 새 일을 시작하면, 승진하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지만 대개는 그 일이 일어난 후에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실망한다."

"행복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다.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두 일체유심조의 교훈이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인가. 감사하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찾고 희망을 볼 것인가. 행복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

대행 스님께서는 "안 되고 되는 것을 쥐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셨다. 현재 행복하건 아니건 팔자운명이 아니고, 남 탓이 아니다. 자기 마음때문인 것이다.

시력을 잃은 후에 오히려 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 사람의 예가 나온다. 시력도 있고 건강하지만 탐진치에 빠져서 사는 것은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불성을, 진실을, 생명의 가슴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진정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불교는 무한한 성장 가르침이다. 공이기에 고정됨이 없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고 자비심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삶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산다. 눈 앞에 닥쳐서야 겨우 생각하게 된다. 너무 준비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불교의 기본은 생로병사라는 존재의 고통을 수용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최근에는 웰 다잉, 죽음준비교육이 늘어나고 있어 다행한 일이다.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현재의 삶을 더 의미깊고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 3개월만 더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인생수업〉에서는 우리가 삶을 마친 후 받게 될 질문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너는 너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받았느냐?" 불교에서는, 중생으로서의 자신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불성을 찾고, 그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빛을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나누어 주었는가? 일 것이다. 퀴블러 로스는 〈인생수업〉을 마치고, 죽음이 가까이 오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은하수로 춤추러 갈 거예요. 그곳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놀 거예요."

"별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불행한 것은 이를 수 없는 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인간은 '나' 라는 작은 몸과 고정관념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깨달음의 별을 주신 부처님께 감사한다. 세세생생 보살이 되어 살아갈 의미와, 누구나 부처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별을 주셨기 때문이다. 언제 이번 생을 마감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퀴블러 로스의 말처럼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오늘이 내 마음에 부처님이 오신 날이다. 지금이 바로 내 마음에 정진의 별을 밝힐 순간이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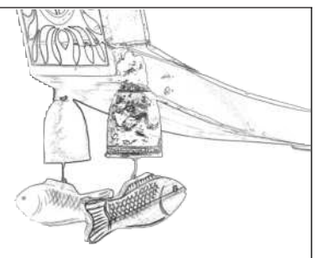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이를 가까이 섬길지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지혜로운 이는 잠깐이라도 어진 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청 소
- 이사, 입주, 상가, 공장, 사찰 청소
- 제초, 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코끼리청소 1566-8986



수행식 중화요리 특허출원
새로운 메뉴 탄생, 밥두부 출원,
짜장이나 짬뽕이 국수(면) 종류지만
소승의 출원은 불교적인 메뉴개발,
채식의 변화 대중화, 연구비만 받고
자금부족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41-542-1120

모든 불교의식 집전해 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등
영남범음범패, 바라작법,
오공양춤, 지전춤, 살풀이,
극락무
010-8674-3839

악성피부질환 해결
전통 자연치유비법으로 악성
무좀, 악성종기, 습진, 인후증,
비염, 악성골수염, 악성피부염,
재발하는 축농증, 아주심한 아
토피염, 버거씨병, 기타 등으
로 병원에서 완치 어려운 분에
게 해당됩니다.
010-3028-657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2515-0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5219-7021

40-50대 비구니 부전스님
구함. 40-50대 운전하는
시봉 겸 사찰을 돌볼 깨끗
하고 조용한 곳을 찾는
공양주 찾음 (답사 후 결정바람)
경북 예천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신심있는 공양주
2분과 거사님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010-7275-3730 원주스님
042-825-1724 종무소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김해)
010-6671-5885

기도하며 일 도
우실 부전스님,
행자스님
모십니다
011-288-8311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물을 조금
하시는 분, 울산)
010-9986-0091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밀양 삼봉사)
010-4484-57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진주, 60세 이상)
010-4450-2500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413-3318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특수하고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 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에니멀 에너지 힐링 세미나
*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 반려동물의가벼운 병과 나쁜 버릇을 스스로 치료해주어 마음 고생을 덜으세요. 여기와서 (디바인 하트) 라는 기 에너지를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시간 : 오전11시부터 ~ 오후 4시, 교육은 단 하루에 끝납니다
* 교육비 : 20만원, 미리 예약필요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 02)720-5682. 010-8392-2557

사단법인 종단 인수하실 분
종단명: 사단법인 0000조계종
복지사업 병행가능함. (필요시 종단명칭 변경가능)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문의전화 : 070-7717-2276 (영의스님)

四柱·奇門學
과목 : 사주, 기문둔갑, 자미두수, 풍수지리, 타로카드
◆2014년 최대 이변 이정현 국회의원 적중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3개월 전에 분석 적중
◆2014년 국운 분석 적중 (세월호 사건 등)
◆2014년 박지성 선수 은퇴 月까지 적중
◆2013년 국운 분석 90% 적중
◆2012년 박근혜 대통령 6개월 전에 분석 적중
◆2012년 국회의원 김을동 의원 외9명 적중
◆2009년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월 까지 적중
◆2009년 노무현 전대통령 4~5월 事故數(예언)
◆2007년 이명박 전대통령 적중
◆학생들 공부 잘할 지 못할지 여부 등 집중적 분석.
※ 수 많은 사항들을 적중한 것은 土의 세밀한 分析과 정확한 用神법, 기문둔갑의 月運 분석이라 하겠다. 060 상담할 분 환영.
공개강좌 : 5월8(금), 9(토), 10(일) 14~16시 (1회만 오세요)
※특전 : 공부 하는 분에게 인당사주프로그램(130만원) 무료로 드림.
● 홈페이지: 네이버, 다음 "인당명리" 검색하면 됩니다.
사주. 기문. 실전 USB로 쉽게 공부하기(홈페이지 참조)
지방에 있는 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USB를 제작했으며 수업 시간을 그대로 촬영을 했다. 현재 많은 분들이 USB로 공부함.
◆사주(초급,중급)+기문(초급,중급)+실전문제풀이 = 225만원-인당사주프로그램무료 드림(130만원 상당)
■오는길 : 2호선 상왕십리역 2번출구 - 양지사거리 - 신한은행 옆 건물 2층
인당역학연구소 (사주볼 분 전화요) 02) 929-6310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퇴마 (빙의) 최면, 심리치유 (개인지도 및 상담)
상처받고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를 풀어드립니다.
퇴마, 빙의, 우울증, 불안, 분노, 공포증, 자신감 향상 등
감정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풀지 못하는 현상들 치유가능.
* 퇴마 배우실 분은 (스님 및 무속인에 한함)
(佛)대한불교조계종 만경사 /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401번길 7
전화 051)757-7925. 010-3156-6414

구성학+현공풍수양택 지역별 무료공개강의
대전지역 : 5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30분 ~ 6시30분
① 개 강 일 (서울지역은 수시 강의 - 문의바랍니다)
■ 대전지역 : 5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매주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② 강의장소
■ 서울지역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대전지역 : 대전 서구 용문동 243-18 2층
010-5116-931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성학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무료공개강좌
(연결카페 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5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 대 상 : 명리왕초보반 (영가기초 포함)
영 가 특 강 반 (포교원 운영자)
■ 강의내용
① 한 맺힌 조상 찾는법, 조상(귀신)이 발동한(대,세운) 것을 아는 법
② 천도는 얽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서 해야 효험이 빠르다.
③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으며 영가를 정확하게 뽑아낸다.
④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⑤ 신경성, 우울증 등으로 마음안정이 안되거나, 공부가 안되는 학생
명리왕초보반강좌
○ 듣기만 해도 기억되는 쉬운오행풀이, 한자 몰라도 됨
○ 기초반 2개월과정 모집 - 수강료 2개월 30만원
○ 기초가 없으신 분은 초보반 수강후 영가반에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010-9150-2284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 (성대시장 성대마트앞) - 동작구 상도동 315-5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달마사
• 법 명 : 지산스님(채태종)
• 주 소 :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169-1
상기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종 총무원장 법하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다툼을 다툼으로 그치게 하고자 해도 다툼은 그치지 않는다. 오직 참는 것만이 다툼을 그치게 할 수 있다.

- 중아함경 -

사 찰 안 내

▶ 청정지역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각종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1억 8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안내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1,900여평
- 건물 : 법당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15평 세계불교박물관 (5,400여년 전 벼락 맞은 대추나무화석등 석물 3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은행 5억 별도)

※전국사찰 30년 역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사찰 양도
- 건물3동 목조법당60㎡ 황토요사85㎡
- 산신각.토지 5,300㎡. 집기류포함
- 양도금액 : 5억 8천만(융자가능)
- 위치좋음, 앞은 마을 뒷편은 산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도심속의 작은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서문시장 부근
- 한옥 13평 올 수리
- 법당, 관세음보살, 호신불32존상
- 방1, 욕실, 주방, 다용도실 아주 생활하기 편함
- 명리나 철학으로 포교하기 좋은곳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6,500만원 (융자 1,500만원 됨)

010-8439-1231

*꼭 하실 분만 연락 요망

별장 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 대지 101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화장실 1칸 사무실겸 스님방 욕실 9평
- 비구니 스님 적합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 1억 3천만원

010-9183-065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위치 : 경기
◎ 부지 : 1300평 ◎ 종교용지 : 150평,실300평사용
◎ 법당 : 5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50평 ◎ 요사 : 40평
◎ 양도 : 17억 5천 ◎ 양도 : 5억 3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목포 도심사찰 급 양도
* 2층 편백 법당 60㎡, 황토요사채 90㎡
* 토지 200㎡ 편안한 포교사찰
* 양도가 : 3억2천만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까지 7분거리
- 대지 505평 등기 필
- 요사채 38평, 후면 창고 15평
- 요사채 위 법당 20평 2층
- 옥외화장실 6평 내 창고재중 6층석탑(제주석)
- 가액: 현평당 50만원
- 건물 전체 5,000만원 (건물양호 · 절충가능)

010-7517-7037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남안동 IC 10분거리
- 법당 좌우로 실개천이 흐르는 합수머리
- 종교용지 대지 약 590평
- 법당 15평, 목조 기와 단청
- 산신각1동, 요사채 2동 1동에 2층 황토방 원룸
- 법당, 집기, 공양간, 일체집기
- 가액: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바다가 보이는 절터 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위치한 삼면이 산으로 감싸고 앞은 탁트인 남향바다를 바라보고 있음
- 도로, 전기, 조경 농막허가(콘테이너)한동 설치
- 지목은 전(관리지역) 총 평수 1,104평
- 건축허가 가능
- 가액 : 2억 (주인직거래)

010-2002-1000

작은 암자 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주변 단독주택
- 종중땅, 텃밭 200평, 일년세(31만원), 지상권
- 건물 집 30평, 방3개, 주방거실, 욕실, 창고방
- 주변 작은마을 집뒤 산
- 몸만오시면 됨
- 양도 저렴한 가액 3천2백만 지장보살, 집기등 1천만원

010-9787-550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 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416번지
- 대지 413㎡
- 공양간 1층 100㎡
- 법당(대웅전)2층 100㎡
- 가격 절충

011-595-6522
055)336-01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2층
- 약 60평, 넓고큰법당, 방3개, 샤워실 넓은공양간, 계단 넓고 원만함
- 큰길가 버스정류소 평에 위치
- 내부시설 위치 모두 좋음 (8년간 운영한 포교원)
- 가액 : 1,000만원, 45만원 시설비 2,000만원(조절불가)

010-7337-17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4억 3천(융자 있음) (절충가능)

010-3186-0361

사찰안내(국유지)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평, 인법당10평 정도
- 방 8개, 화장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가능
-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4918-259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시장(부근) 사거리 코너
- 평수 : 약 30평 2층, 도시가스
- 가액: 전세 2,0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2,400만원(조절가능)
- 즉시법회

010-4667-5658

토 굴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에서 20분거리
- 바닷가 5분거리 뒷산을 끼고 경관수려
- 별장 및 전원주택지, 채전밭 황토찜질방, 주차 6대
- 임법당 30평, 가건물 20평
- 토지 150평(등기 78평, 국유지 72평)
- 인근 대규모 아파트 개발 중
- 가액 : 1억 7천 300만원
- 법당 및 주방시설 완벽

010-4392-2468

사찰(급)안내

- 위치: 구미 근교
- 시내와 아주 가까우면서 삼면이 산으로 병풍처럼 감싸있고 사계절 용천수가 흐르고 양쪽계곡에는 가재가 살고 있는 청정수월 기도도량입니다
- 토지 : 2천 700평(법당, 요사, 임법당)
- 양도가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번지
- 면적: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동남간(25평) 목조, 기와
- 사채:25평, 방2, 화장실2, 컨1동
- 가액: 융자 3천안고, 2억 2천만원

010-8517-85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양산시 남부시장내
- 평수 : 34평
- 보증금 2,000만원 달세 25만원
- 보증금 3,000만원 달세 15만원
- 전세 5,000만원
- 시설비 85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합니다
- 부동산은 연락 자제 해주세요

010-9906-96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선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3길 136-1
- 대지 163평, 전답 790평
- 건평 40평 1채(준공5년),
- 황토집 12평 1채(준공1년)
- 원두막1채, 각종 과실 나무와 약초재 배중
- 경치좋고 사찰하실분께 추천
- 가액: 총2억3천만원(조정가능) 1억3천만원(전세도 가능)

053-651-151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강남 최고 요지로 주변상권 좋음. 전철 10분 거리
- 양옥으로 포교원 겸 토굴
- 남향으로 깨끗하고 아늑함
- 정원조성 되어있음
- 가액 : 보증금 1,300만원 월세 180만원 시설비 2,600만원

010-2887-2570

경내로 청정수가 흐르는 조용한 수행 도량임

- 위치 : 포항시 북구 죽장면
- 대지: 1408(약 425.92평)
- 전 : 83㎡(약 25.1평)
- 임야 : 103㎡ (약 75.02평) (주차장 완비)
- 가액: 3억 6000만원 (금액조정가능)

010-5479-5779(공산)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경주 동국대 15분 거리)
- 대지 : 230평
- 방3개, 공양간, 산신각, 법당
- 집기류 일체 두고 갑니다
- 몸만 오신면 법회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5천(조절가능)

054)334-669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 2층, 법당, 큰방 3개, 주지실, 요사채,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20만원(시설비 별도)

010-9403-7465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유원지내 대형 분수 시내 건너편에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 2채 50평, 방 5개, 창고 등
- 가액: 4억 5천만원

010-2124-3620

목조건물 공사 안내

- 칠성각, 산신각, 종각, 독성각 건립하실분은 성심 성의로 저렴하게 공사해 드리겠습니다.
- 목공기술 자격증 소지하고 있습니다.
- 공사경력
  · 제10교구 경산 천년고찰 경흥사 대웅전, 요사채 등 공사하였고 전국에 사찰 향교등 목조건립 공사 많이 하였습니다. 경흥사 신도입니다.

연락처 : 011-507-5181

부산 포교 중심지

- 위치: 금정시장, 아파트 밀집지역
- 2층 법당 35평, 방2, 친견실, 공양실
- 가액 : 1억 8천 5백만원

010-9393-49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수영구 망미 2동 팔도시장 인근
- 3층 중 2층 약 48평
- 시설 일체 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됨
- 가액:보증금 5백만원 월 44만원 시설비 11천 8백만원

010-3868-7435

최고의 명당 터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거창시내 10분거리
- 전, 답 1,300평
- 삼면이 솔 숲, 자연 암반 우물 있음
- 땅이 국도를 접해 있음
- 용도 : 사찰, 요양병원, 복지, 팬션 기타(건축 가능함)
- 가액 : 1억 1천 7백만원(대출 3천만원) 양도가 8천 7백만원

010-3848-2452(거창 연락처)
010-3868-7435(부산 연락처)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영광군
- 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산신각 6평, 창고 6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235-1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더계
- 면적 : 대지 700㎡
- 대웅전 184㎡, 단청, 방1, 집무실
- 공양간 66㎡, 방2, 화장실2, 창고
- 주차 사찰내 3대 외부주차 약 80대 가능
- 마을에 있는 사찰이나 사찰행사에 민원 없음
- 깨끗하고 청결한 사찰(비구니스님 적합)
- 창원, 삼천포, 거제, 통영, 진해등
- 바닷가 지역 • 깨끗한 사찰과 교환가능
- 가액 : 6억

051)861-2233, 010-5346-4138
금호부동산 연산가-13-1645(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포교원선원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 50평, 큰 선방 1, 방 3개, 거실 및 주방
- 정남향, 조용함, 명상센터로 최적지, 주차장 있음
- 깔끔, 최신인테리어, 냉방, 바닥 필름 난방
- 가액 : 전세 1,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9317-91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광진구 구의동
- 약 60평 2층에 2층
- 법당 30평, 요사 30평
- 방 2개, 화장실 겸 욕실 2
- 가액 : 2,000만원에 12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0-5497-766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성당동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소불
- 영가단, 종, 음향시설, 냉 난방기, 조명 등 집기일체
- 2014년 11월 신조성,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 2차선 대로변 2층,
- 가액: 보 300만 월35만, 시설비 1,200만원 합 1천 5백만원, 절충 없음, 방없음

053-651-151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초목이 가득한 암자
- 유실수, 정원수 가득, 넓은 공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1년 350만원
- ※ 양도도 가능

010-8826-8373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청주시내 중심포교원
- 시설: 방3개, 거실, 창고, 주방, 심야보일러
- 특징: 도심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음. 한옥 65평
- 가액: 전세 2,000만원 월 60만원 양도 1억 7천만원

010-6369-11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6억 7천만원 (대출 3억 안고 양도금액 3억 7천)

010-5019-538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덕포2동
- 평수 : 25평
- 법당, 삼존불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3866-5928

사 찰 안 내

- 위치 : 풍기 IC에서 약 15분거리(감천)
- 산사 평수 약 3,500평, 대웅전, 산신각
- 지장전, 요사채, 주택1, 차고1
- 사찰 옆 과수원 1500평을 택지로 조성중 텃밭 약 300평, 소나무숲
- 사찰까지 진입로 포장 되어있음

※경관 최고로 직접방문하면 대만족 할 것임

- 가액 : 3억 5천(절충 가능)

010-5203-1326
010-8829-6325

사찰,치유힐링원,연수원

- 위치: 경남 합천군
- 한옥 본관 80평
- 한옥 주택 32평
- 한옥 화장실 6평
- 황토 초가집 3동
- 전망이좋고 조경이 잘되어 있음
- 사찰, 치유힐링원, 연수원
- 운영에 아주 좋음

010-3521-692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 평수 : 374평(종교부지)
- 강변 야산에 50년된 암자
- 테크노폴리스(고급기술 산업단지)의 연구시설이 집중된 작은 도시
- 재래시장, 정류장은 도보로 10분거리
- 가액 :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536-6333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화북면 죽전리
- 대지(땅) 1300평
- 법당(1, 2층) 30평
- 요사채 40평
- 도로인접, 경관수려
- 보현산 댐공사 끝나는 지점
- 가액 : 6억 5천만원

010-3782-387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송현동 (지하철 월촌역 5번 출구)
- 3층 건물 중 2층
- 법당 60평
- 삼존불, 산신, 용왕 신중
- 요사채, 방 2, 부엌, 화장실
- 주차 시설 완비
- 시설물 일체양도
- 가액:보증금 1000만원,월 60만원 시설비 3천5백만원

010-4732-197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 40평
- 대웅전1 , 서재 1, 큰방 1, 작은방 1, 주방겸 거실 1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108소불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는 협의 가능

010-8653-3216

별장 토굴 안내 및 전세

- 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대구시내 20분, 고속도로 IC 3분
- 대지 및 임야 830평
- 멋진 별장주택 40평(실 45평)
- 심야 전기 보일러
- 야산 밑 정남향 조용하고 전망 좋음
- 가액 : 양도 2억 5천만원 / 전세 8천5백만원

주인직접 : 010-3531-5562

화(Anger)-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4〉 행복 씨앗 키우기

틱낫한 스님(승려 · 평화운동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을 즐겨라"

각자의 모자람을 스스로 인정하라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연민의 정을 기를 수가 없고, 행복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다.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고통을 감당하는 것 또한 우리에겐 하나의 수련이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마다 한계가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가진 능력만큼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잘 보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남으로부터 온통 고통과 화로 가득한 말을 들으면 나의 마음이 다치게 된다. 그의 고통만이 나에게 전해질 뿐, 다른 긍정적인 감정들이 내게로 전해질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리하여 내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 것들과 늘 접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푸른 하늘, 맑게 노래하는 새, 나무, 꽃, 어린아이-우리와 우리 주위를 신선하게 해주고, 치유해 주고, 거름이 되어주는 것들을 늘 접해야 한다.

이따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과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는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친구들이 우리를 구해준다. "오늘 아침은 유난히 하늘이 아름다워. 안개가 끼었지만, 정말로 아름다워. 여기가 바로 낙원이야. 자네도 그저 다 잊어버리고, 저 하늘을 좀 봐." 우리는 누구도 혼자 살지 않는다. 행복할 능력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간다. 우리가 삶의 긍정적인 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삶의 긍정적인 면을 되찾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거름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기쁨과 평화와 애정을 갖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세월이 너무도 빠르게 흐르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부처님 앞에 나가서 향을 피운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들을 즐기리라고 다짐한다. 내가 하루하루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을 늘 실천하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은 나에게 마치 절친한 친구 두 명과 같다. 나를 지금 이곳에 존재하게 해주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놀라운 일을 감지하게 해준다.

우리는 매순간 삶의 온갖 거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종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살찌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플럼빌리지에서는 전화가 울리거나 시계가 울리고 종이 울릴 때마다 제각기 하던 일을 멈춘다. 그것은 자각을 일깨우는 소리다. 종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몸이 편안해지고 심호흡을 한다. 우리가 지금 살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경이로움을 감지한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일손을 멈춘다. 마음이 그리도 가벼울 수가 없다. 일손을 멈출 때 평화와 고요가 다시 우리에게 깃들고, 참다운 자유를 느낀다. 그러면 일이 더욱 즐거워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존재를 더욱 확실히 느끼게 된다.

종소리와 함께 일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것은 하루하루 삶의 모든 아름답고 기름진 요소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일종의 수련이다. 우리는 이것을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더욱 효과가 크다. 우리는 늘 타인들과 함께 살아간다. 내가 고통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는 그들이 나를 구해주고, 삶의 긍정적인 면들을 보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 역시도 하나의 수련이다. 정신적 스승으로서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도 보행 명상을 실천해야 하고, 차 한 잔을 진정으로 마실 수 있어야 한다. 행복한 사람들과 접촉해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는 데 필요한 거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타인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보살펴야 한다.

한편으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양분을 흡수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타인들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는 연민의 마음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지극한 행복 속에서 살고, 고통 속에서 사는 타인들을 구해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행복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결혼 전 남편한테서 받은 옛 연애편지를 고이 간직해온 프랑스 여자가 있었다. 연애시절 남편은 그녀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편지를 많이 보냈다.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녀는 문장 하나 낱말 하나를 깊이 음미했다. 참으로 달콤하고 이해가 넘치고 사랑으로 가득한 편지였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던 그 편지들을 그녀는 과자상자에 보관했다. 어느 날 아침에 옷장을 정리하다가 그녀는 옛 연애편지들을 넣어두었던 상자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걸 잊고 지내왔다. 그 상자가 그녀에게 참으로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에 그들은 서로를 지극히 사랑했고, 서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에 남편도 아내도 많은 고통을 당해왔다. 그들은



더 이상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가 없었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다. 물론 이제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지도 않았다. 아내가 그 상자를 발견하기 전날, 남편은 사업차 출장을 떠났다. 그는 집에 있는 게 즐겁지가 않았고, 그래서 잠시나마 편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잔뜩 기대하면서 집을 떠났다. 아내도 그걸 알고 있었다.

남편이 뉴욕에서 회의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저 덤덤하게 잘 다녀오라고만 말했다. 그녀는 그런 일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그런 일은 그저 일상사일 뿐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예정대로 집에 돌아오질 않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며칠 더 걸릴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도 그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 남편이 집에 없어도 그녀는 불행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후에 그녀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그 상자를 보았다. 참으로 오랜만에 상자의 뚜껑을 열었을 때 그녀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뚜껑을 열자 친숙한 향기가 확 풍겼다. 그녀는 편지들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콤했던 편지였던가! 그는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말만을 골라서 썼다. 메말랐던 땅에 마침내 비가 내린 것처럼, 그녀의 기분이 매우 싱그러워졌다. 그녀는 그 놀라운 편지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 "
> **고통 감당하기는 하나의 수련**
>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 **연민의 정 · 행복 음미할 수 없어**
>
> **삶의 긍정적인 면 되찾는 것은**
> **삶에 거름을 주는 것과 같아**
>
> "

이윽고 그녀는 상자를 테이블에 갖다놓고 앉아서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예전 그 행복의 씨앗들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켜켜이 쌓인 고통 속에 묻혀버렸지만, 그 씨앗들은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 있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이 그녀에게 보냈던 사랑만이 가득한 편지들을 읽고 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 있던 행복의 씨앗에 물이 뿌려지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의식 속에 깊숙이 묻혀 있던 행복의 씨앗에 물이 뿌려지는 셈이 된다. 최근에 그녀의 남편은 연애시절에 했던 것과 같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옛 연애편지를 읽으면서 그녀는 남편이 예전처럼 달콤하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행복이 늘 그들과 함께 있던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 그리도 참담하게 된 것일까?

옛 연애편지를 읽던 한 시간 반 동안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 있던 행복의 씨앗에 물을 뿌려준 것이다. 그녀는 남편도 자기도 서로에게 미숙했던 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동안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고통의 씨앗에 물을 뿌렸을 뿐, 행복의 씨앗에는 물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옛 연애편지를 다 읽은 뒤에 그녀는 갑자기 남편에게 편지가 쓰고 싶어졌다. 그 시절에는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남편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 행복했던 황금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썼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당신에게" 라는 말을 진심으로 솔직하게 남편에게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정성껏 편지를 썼다. 그것은 진정한 연애편지였다. 오랫동안 과자상자 속에 묻혀 있던 예전 그 연애편지를 썼던, 그 매력적인 남자에게 보내는 그녀의 새로운 연애편지였다. 그의 옛 편지를 읽고 또 그에게 전할 편지를 쓰는 데 세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수련의 시간이었다. 다만 그녀 자신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편지를 쓴 후에 그녀는 마음이 매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아 아직 편지를 전해주진 못했지만, 그녀는 이미 기분이 좋아진 상태였다. 행복의 씨앗이 다시 깨어났고 거기에 물이 뿌려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의 방으로 가서 책상 위에 편지를 놓았다. 그녀는 행복했다.

옛 연애편지를 읽고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동안 그녀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두 사람 모두가 그 동안 미숙했었다는 것을, 미숙했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보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복을 반복해왔다. 가족으로서, 부부로서의 삶을 서로가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행복하지를 못했다. 그런 사실을 이해하자 그녀는 이제부터라도 둘이서 노력을 하면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찼다. 지난 여러 해 동안처럼 더 이상 고통스럽지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보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동안 우리가 고통을 당했던 데는 내 책임이 더 컸을 거예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시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보자고요. 평화와 화해와 행복을 다시 우리 것으로 만들어보자고요." 그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서 편지를 읽고, 아내의 말을 가슴 깊이 생각해보았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지만 명상을 실천하고 있었다. 아내의 편지를 읽으며 그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행복의 씨앗에 물이 뿌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서 깊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전날 아내에게서 일어났던 그 깨달음에 도달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들 부부의 관계는 개선됐고, 행복을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됐다.

요즘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거의 편지를 주고받지 않는다. 전화를 걸어서 "그새 잘 있었어? 밖에서 만날까? 라고 말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간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연애편지를 쓰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편지를 통해 대화를 하자. 딸과 어머니, 자매와 친구들 사이에서도 편지를 주고받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편지로 적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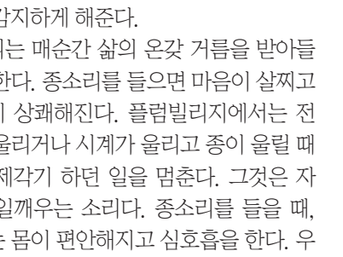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아들과 대화를 하기가 어려우면, 하루나 이틀 동안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을 실천하자. 그런 다음에 차분하게 앉아서 사랑의 편지를 쓰자. 연애편지를 쓸 때와 똑같은 말로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는 네가 말 못할 고통을 당해왔다는 걸 잘 안단다. 아버지로서 나는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구나. 너에게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게 참으로 미안하구나. 네가 너의 고통을 나한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심정이 어떠했을지 나는 잘 안다. 이제는 모든 걸 바꾸고 싶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서로 도와서 마음의 문을 열어보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자세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사랑의 말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연민의 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기적이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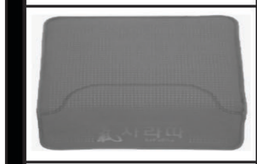
이 글은 〈화(Anger)-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명진출판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결과가 안 좋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좋은 책을 골라 읽고 책 속에 담긴 뜻을 생각해 보겠어요

I will read good books and think about the lessons in them.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기 1년 전인 1909년, 안중근(1879~1910년) 의사는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1841~1909년)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군 장군으로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사로 이토 히로부미는 숨을 거뒀고 안중근 의사는 중국에 있는 뤼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 갇혀서 책을 쓰고 붓글씨를 썼습니다. 서당 훈장이셨던 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운 안중근 의사는 붓글씨를 매우 잘 썼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붓글씨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 글은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 입안에 가시가 돋으면 먹을 수가 없어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독서를 목숨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라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독서의 이로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늘려주고 지식을 알려주고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언어발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어휘력을 늘려주고 말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며 남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합니다.

책을 읽을 때 그저 글씨만 따라 읽으면 그 안에 담긴 지식이나 생각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나는 동화나 만화를 읽을 때도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나요? 그 책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책과 그 이유를 말해 보아요.

내 마음을 열고 친구나 동생에게도 배우겠어요

I will stay open-minded and learn from my friends or people younger than me.

공자는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롭기로 이름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성을 쌓으며 노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수레가 다가가자 모두 피했지만 한 아이만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항탁이었습니다. 수레에서 내린 공자가 항탁에게 물었습니다.

"수레가 오는데 어찌 피하지 않고 있느냐?"

"어르신. 수레가 성을 돌아가야지 어떻게 성이 수레를 피한답니까?"

당당한 말에 공자는 흥미를 느끼고 항탁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너는 물고기가 없는 물을 아느냐? 빗장이 없는 문은 알고 있느냐? 연기가 나지 않는 불, 바퀴가 없는 수레는 무엇이냐?"

"물고기가 없는 물은 우물입니다. 열린 문은 빗장이 없고요, 반딧불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바퀴가 없는 수레는 바로 가마이지요."

공자는 항탁의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항탁은 이번에는 자기가 몇 가지를 묻겠노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거위와 오리가 물에 뜨는 이유를 아세요? 기러기와 학이 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위와 오리가 물에 뜨는 이유는 갈퀴가 있기 때문이고, 기러기와 학이 우는 것은 목이 길기 때문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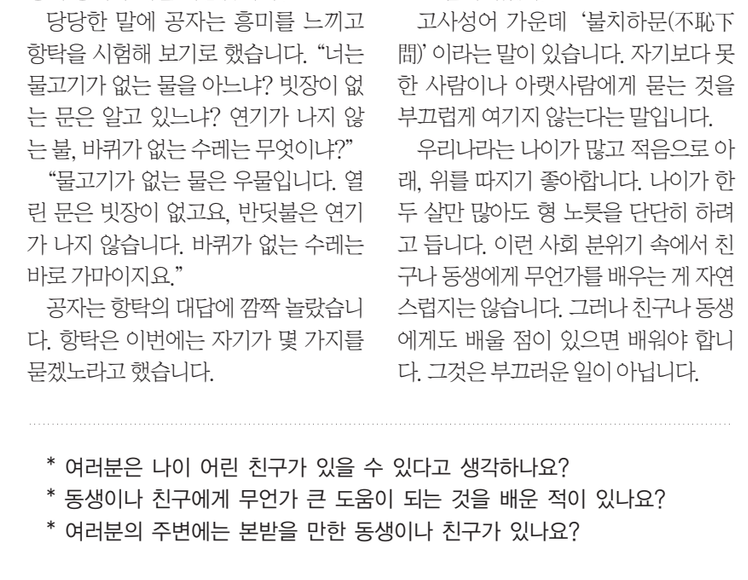
"틀렸어요! 발에 갈퀴가 없는 거북이도 물에 뜨잖아요. 두꺼비도 소리 내 울지만 목은 짧기만 한 걸요."

공자는 항탁의 대답에 껄껄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너를 스승으로 삼아야겠다."

고사성어 가운데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아래, 위를 따지기 좋아합니다. 나이가 한두 살만 많아도 형 노릇을 단단히 하려고 듭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친구나 동생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나 동생에게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 여러분은 나이 어린 친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동생이나 친구에게 무언가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운 적이 있나요?
* 여러분의 주변에는 본받을 만한 동생이나 친구가 있나요?





나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더 많이 배우겠어요

I will not feel embarrassed about making mistakes, and will learn from them.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조앤 롤링(J. K. Rowling, 1965~)은 1995년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완성해 출판사에 보냈지만 퇴짜를 맞았습니다. 롤링은 계속해서 다른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지만 퇴짜도 계속되었습니다. 책을 내기까지 무려 열두 번이나 출판사의 거절 편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책이 나왔지만 출판사에서는 이 책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책을 인쇄할 때 겨우 500권만 찍어서 그 가운데 300권은 도서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던 책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몽고메리(Lucy Maud Montgomery, 1874~1942년)가 쓴 〈빨강머리 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으로 내겠다는 출판사가 한 곳도 없어서 작가는 크게 실망하고 원고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몽고메리는 자기 책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인공의 성격이 밋밋하다는 것을 깨달은 몽고메리는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얼굴에는 주근깨가 가득한 빨강머리 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앤을 주인공을 한 원고는 또 거절을 당했고 몽고메리는 또 다시 원고를 고쳤습니다. 마침내 그 원고는 책으로 나왔고 세월이 지나도 사랑 받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라이트 형제도 수많은 실패를 겪고 나서야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애플사를 세운 스티브 잡스(Steve Jobs, 1955~2011년)도 IT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평가 받지만 수많은 실패 뒤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결과가 안 좋다고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의기소침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꾼 위대한 작품, 발명, 혁신은 모두 실패 뒤에 왔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 여러분이 최근에 겪은 실패는 무엇이 있나요?
*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 실패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방수연등전선 전문 KS정품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 Made in Korea -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 2줄 이상일때 한줄당 가격입니다.
• 22cm, 23cm, 25cm (50구) @65,000 (2줄이상)
• 30cm (50구) @65,000 (2줄이상)
• 35cm (50구) @70,000 (2줄이상)
• 40cm (50구) @73,000 (2줄이상)
• 50cm (50구) @75,000 (2줄이상)
• 1m (50구) @90,000 (2줄이상)
• 2m (25구) @80,000 (2줄이상)

＊국산LED전구 (50개)
＊ @90,000 〈개당 1,800원





바림등(6cm) @2,500원(60개이상)
바림등(8cm) @3,000원(30개이상)



일반연잎 6,000 일반연잎大 6,000 바림연잎 7,500 한지바림연잎 천바림바림연잎 30,000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불자 세상보기

'성완종 리스트' 사태, 탐욕이 빚은 참극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과 그가 남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현직 국무총리와 전, 현직 대통령비서실장, 지방자치단체장, 친박 실세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가 하면 당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생전의 그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구차하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사의 비애를 다시 한 번 더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볼썽사나운 장면을 지켜보는 일반국민들의 심정은 그저 불편할 따름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말하는 '신뢰', '사랑', '의리', '배신' 등의 단어가 과연 적절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고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가 선택한 죽음은 그다지 떳떳한 일로 보이지 않는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건넨 금전적 호의를 순수한 인간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그와 같은 성격의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 간의 '신뢰'나 '의리'는 부정한 이익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동안만 유효하다. 그런데 여기에 '배신'과 '억울'이란 말이 동원되는 것은 어딘가 어색한 조합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알려진 대로 성완종 회장의 초등학교 중퇴경력과 단돈 1000원으로 시작하여 자수성가한 사업수완은 젊은이들에게 닮고 싶은 성공모델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변사람들은 평소 자기사람 만들기에 열중했던 그의 사업방식과 정치행태를 썩 바람직한 것으로만 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우려한 대로 그는 이른바 인맥쌓기의 후유증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불법대출과 각종 이권청탁으로 연명하던 기업과 선거부정으로 얻은 국회의원의 금배지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업가이자 부도덕한 정치인일 뿐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내던져도 좋은 투사나 의인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사회에서 발이 넓은 사람이란 평판은 곧 두터운 인맥을 바탕으로 필요할 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사람을 사귀고 서로 영향을 받는 것은 결코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마치 인간관계의 당연한 귀결인 것처럼 여겨온 우리자신들의 천박함과 미성숙함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심심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여기에는 혈연과 학연 및 지연이 총동원된다.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다. 윤리학에서 말하는 자연주의적 오류에 의하면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어떤 사람이 곧 훌륭한 사람이라는 '가치'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자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듯이 여기면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자괴감을 느낀다. 그와 같은 그릇된 인간관계의 이해와 적용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성공신화를 만들었고 또한 그를 죽인 원인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너무 비약하는 것일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사회에서 중시되고 있는 이른바 '인맥'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어른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개인의 불행한 죽음을 통해 한국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성찰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바람직한 일일 수는 없겠지만 엄연한 현실이기도 한 것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믿는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성완종 회장의 녹취록에서 들을 수 있었던 '신뢰', '사랑', '의리', '배신'이란 단어가 엉뚱한 의미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고유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한 사회가 머지않아 도래하기를 한마음으로 꿈꾸어 보자는 제안을 드린다.

부처님은 〈싱갈로와다 숫따〉에서 진정한 친구사이란 서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인간관계임을 강조하셨지만 경전의 어디에서도 옳지 않은 목적을 위해 친구를 함부로 들먹여도 좋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음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해보았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장애인의 날에 부쳐

아나율 옷, 누가 꿰매 주나?



미영순
전국저시력인연합회장

4월 20일은 제35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요란하게 보이도록 꾸며지는 행사가 매년 진행된다. 민관의 홍보용 일회성 잔치에 눈을 곱게 뜨기는 어렵다. 불자인지라 "불교계에서는 그나마라도?"라고 물을 때가 있다.

'한국판 헬렌켈러'라고 주위에서 불러서 얼떨결에 된 시각장애인 단체의 대표 역할이 16년째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장애인답게(?) 생각할 줄을 몰라 '무늬만 장애인'이라고 비판 받고 있다. 불교계의 지극히 소극적인 장애인 포교에 대해서도 '그런가 보다' 여겨왔다. 불자 대부분도 '장애인'이란 단어야 알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지 못한다. 따지고 보면, 왜소증 환자인 사끼야를 보듬으신 예수보다 아나율의 옷을 꿰매 주신 부처님이 한참이나 선배이신데.

아나율의 실명이란 인과는 '잠을 자지 않은 무리'가 원인이었다. 전생의 몹쓸 업 때문이란 설명은 없다. 인과는 곧 업보라는 말에는 '전생'이라는 정서가 녹아 있는 듯하다. 2015년 현재 장애인에게 대놓고 '응보'라고 말한다. 상담 중에 이따금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불교를 권하기도 한다. 일부 장애인 개신교는 생리적으로 싫어서 사찰에 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생의 죄를 많이 지은 딱한 존재라는 거북스러운 눈길이었다. 전통을 존중하기에 접근성 이동성의 제약은 감수하겠으나, 한 켠에서 끌끌 혀를 차는 할머니는 있어도 다가와 거들어 주는 이는 없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KBS 제3라디오에 흡수된 '사라의 소리 방송'이라는 장애인 라디오에서 '미영순 칼럼'을 6년 동안 진행했다. 유리벽 안쪽 마이크 앞의 나에게 PD는 손신호 대신 라이터불 신호를 보냈다. 이런 시각장애 앵커를 독일 방송이 촬영해 갔다. 수십 명 직원과 봉사자 대다수는 기독교도이고 공개된 불자는 나 하나 뿐이라는 게 늘 가시처럼 목에 걸려 있었다. 그 무렵은 소외계층의 중심이 소년 가장에서 장애인으로 옮겨지던 때, 방송마다 다투어 장애인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BBS불교방송도 '빈자일등'을 한밤중에 방송했었다. 정책 중점이 또 노인 다문화가정으로 바뀜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폭 감축됐지만, 개신교계 방송에선 보다 더 맹렬해졌다.

'장애인 포교 전법단' 결성 소식을 일찌감치 들었다.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을 (손가락이 남지만) 떠올리며 기대와 응원을 보냈다. '장애인포교 전법단장 스님의 포부가 웅대했다. 반가웠다. 이제라도… 감사합니다.'

며칠 뒤 전법단에 전화로 물었다. 전법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전화 속 직원이 중책 소임자는 아니겠지만 대답은, "아직"이었다. 실적으로는 2차례의 '종사자들 제주도 워크샵'을 들었다. 그러고 돌아온 대답은 "더 알고 싶거든 장애포교 거점사찰에다 문의"하란다.

그래서 몇 군데에다 물어 보았다. 거점사찰로 지정된 한 도심 사찰 종무소의 답은, "우리가 거점이래요? 잘 모르는데요"였다. 이 사찰이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운영하고 있어 거점으로 지정된 모양이다. 뇌병변 불자들이 저기 갔다 여기로 와서 월1회 법회를 열고 있지만 장소 제공일 뿐이다.

늦은대로 교계에서 수탁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관이 있긴 하지만, 경험 인력 부족에 마인드도 열정도 결핍이라 종교중립일 수 밖에 없나 보다. 원장님만 스님일뿐이지 직원도, 이용자도 거의 기독인이란다. 진각종이 위탁 받은 시립노인요양원에는 목사나 교도들이 일요일마다 선물 싣고 찾아와 예배를 본다. 유일하게 단주 끼신 할머니는 늘 왕따일 수 밖에 없다.

장애인 법회가, 장애인 포교에 열정 쏟는 분이 계시긴 하다 장애인 시설에 봉사하고 후원하는 불자도 적지 않다. 다만, 불교계 전반의 정서와 관심 지원 부족 속에 위축 소멸됨을 지켜보고 있다. '장애인 포교 활성화'는 난망하다. 현재 불교계는 아나율의 옷을 꿰매 주긴 커녕 찢어 주고 있다.

社說

불교명상 저변 확대에 좋은 기회 되길

힐링 열풍이 불면서 명상 수행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명상을 하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어 스트레스를 훌훌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상은 하고 싶은데 올바른 방법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명상의 진정한 효과를 알리기 위한 관련 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 발원이 이뤄졌다.

불교명상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불교계를 대표하는 명상지도자들이 한데 머리를 맞대고 한국명상지도자협회를 발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장에는 행복마을이사장 용타 스님이 맡았다. 이외에도 오랫동안 참선명상을 연구한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했다. 금강선원 주지 혜거 스님을 비롯해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등이 그들이다.

명상포교는 흔히 21세기 중요한 포교대안이라고 말한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애플 등은 직원 대상으로 명상프로그램을 속속 도입한다. 우리나라에서도 SK나 삼성 등 유수 기업들도 명상을 직원연수 과정으로 편성중이다. 이제 명상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산업, 예술, 심리, 건강, 환경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오는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 각 학교서 발달 수준에 따라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나서준다면 명상의 저변 확대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명상포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명상의 실천체계를 새롭게 확립하고,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유능한 명상 지도자를 양성해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 개발해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5월 관광주간, 불교문화 알리는 계기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광주간이 시작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관광주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전국 지자체, 3000여개 관광관련 업체가 참여한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광주간 동안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자율 휴첩 및 단기방학을 권장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상 학교 중 89%인 1만199개가 자율휴업 및 단기 방학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봄 관광주간에는 지자체 대상 공모에서 선정한 17개 대표 관광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중 하나가 불교계의 템플스테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15 봄 관광주간을 맞아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1만원에 체험할 수 있는 '행복만원(幸福滿願) 템플스테이'를 연다. 전국 각지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77곳에서 아름다운 산사의 봄을 만끽해 볼 수 있다.

봄을 맞아 재정비된 각 사찰의 대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참선, 스님과의 차담, 108배 등 지친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가는 수행 프로그램은 물론, 찻잎 따기, 선무도 수련, 역할극, 손수건 염색, 만다라 명상 등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특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한 트레킹과 숲 명상은 꽃놀이가 그리운 이들에게 제격이다.

서울에서도 관광주간동안 지난해 가을 진행돼 호평을 받았던 '템플스테이 위크'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제 템플스테이는 그 동안 단순한 체험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행복 여행으로 진화해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한국의 유려한 산사와 한국불교문화를 제대로 체험하고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장 포교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문화적으로 친숙해지는 것이 불교는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다.

이번 봄 관광주간을 맞아 온 국민이 청정한 자연 속에서 행복의 의미를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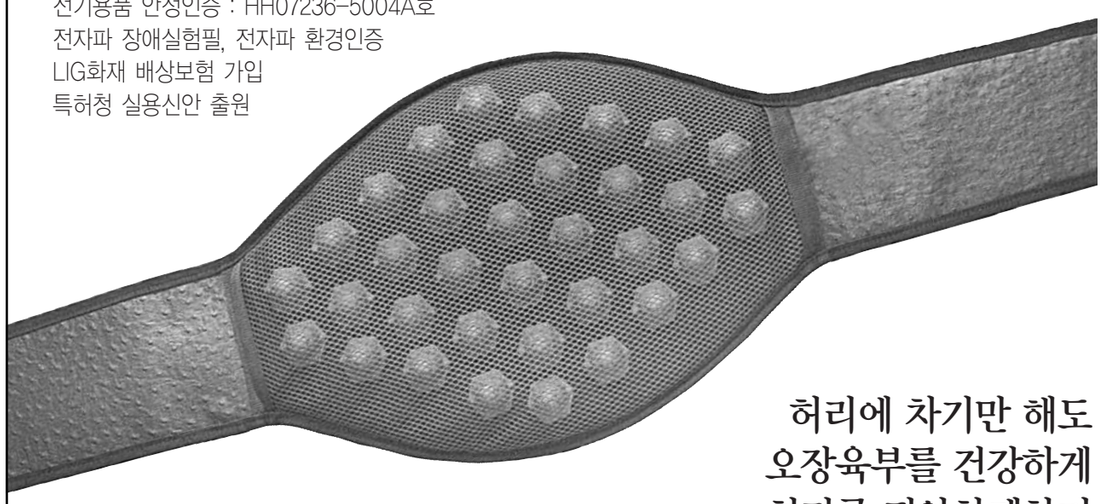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보련 기획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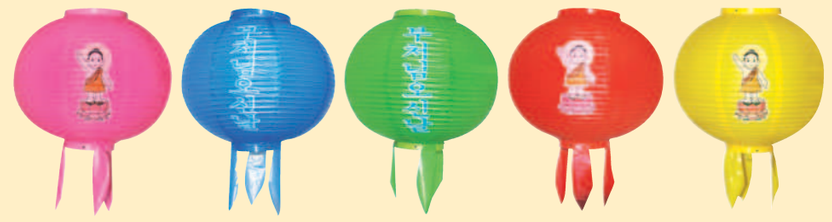




|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불교성지순례전문 마하연투어 since 1994

문의처 : 02)365-7747

청정행 두손모음

특별함

1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거품없는 상품 가격)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여행

www.mahayeon.com

※ 마하연 투어는 추가경비가 없습니다.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달라 5일
실속상품 99만원, 품격상품 11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실속상품 149만원, 품격상품 179만원

북경/백두산 5일 김해공항, 인천공항 출발 129만원

행복한 나라 부탄 & 네팔 8일

히말라야에 감춰진 꿈의 낙원
베율을 찾아 떠나는 티벳 8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129만원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109만원
관음도량 상해/보타.낙가산 5일 109만원
보현도량 성도/낙산대불/아미산 5일 109만원
문수도량 북경/운강석굴/오대산 5일 129만원

디자인 등록원



현 불 샵 단독입점

현불샵이 추천하는 명품청동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 (大)


촛대 (中)


촛대 (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역경
한국불교
역경불사 70년

한 자 한 자 고뇌… 선지식들의 노력

불교계에서는 교육, 포교, 역경을 3대 불사라고 지칭한다. 이 중 역경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경전을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현대까지 한국불교의 경전 대부분이 한문으로 이뤄져 있기에 역경 사업은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다. 이러한 역경은 최근에 들어 디지털 화 등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띄고 있다. 한국불교의 현대화를 통해 불교가 쇠락해 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그 중흥을 도모한 것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0년 10월 7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린 〈인본욕생경〉 시역고 강평회에서 스님들이 번역본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역경에서는 이처럼 한두사람에 의존하는데서 탈피해 교차 검증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광복과 함께 찾아온 역경사업의 시작

불교는 우리나라에 있어 외래종교가 아닌 우리문화의 뿌리로 작용되는 만큼 우리말 경전을 갖추는 일은 한국불교의 막중한 사명으로 다가왔다. 고구려를 시작으로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불전 번역과 해석은 시대에 따라 큰 변화양상을 띄었다.

최초 한글 번역은 세종 때 훈민정음 창제로 시작됐으며 세조 당시 〈법화경〉과 〈금강경〉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불교 탄압과 함께 선종의 불립문자 선풍으로 역경에 대한 관심이 적어져 역경불사는 일부 스님들에 의해 근근히 진행됐다.

하지만 광복을 전후해 근현대에 들어서며 역경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개화 이후 한글이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되며 말 뿐만이 아닌 문자로도 경전을 읽는 바람이 인 것이다. 이를 인식한 근현대 선지식인 용성 스님, 만해 스님, 탄허 스님 등은 역경불사를 진행했다.

종단 차원의 첫 역경사업

하지만 광복 이후 진행된 개인적인 역경은 대장경과 같은 다양한 분야와 광대한 양을 소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종단적인 역경불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1950년대 불교정화운동 이후 1962년 출범한 통합종단은 역경을 3대 사업으로 책정하고 이해 역경위원회를 설립했다. 초기 역경위원회는 6개 분과로 나누어졌다. 기획에는 석주 스님, 번역에 운허 스님, 증의에 자운 스님, 윤문에 법정 스님, 운영에 범룡 스님, 유통에 석정 스님 등 당대 내노라 하는 스님들이 참여했다. 이 중에는 이름을 올린 스님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통합 종단은 만성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때문에 역경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법이 제정되고 역경위원 진용까지 갖추었지만 예산이 편성돼 실제 실행에 들어간 것은 1963년부터다. 종단에서 역경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은 1963년 11월 18일 열린 제5회 정기중앙종회에서다.

이런 가운데 1963년 6월 〈우리말 팔만대장경〉이 출간됐다. 이는 일부를 간추린 불교성전 형태였다. 대한불교청년회가 '성전발간준비위원회'를 결성해 1962년 4월부터 추진한 불사로 편찬위원 대부분이 역경위원들이었다. 즉,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근현대 불교계 전체가 역경불사에 나선 결실이었다.

역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재원마련을 위한 후원회가 결성된다. 먼저 지리산 묘목을 재배하던 지환 스님의 농원을 재원으로 결성된 법륜회와 울산 종현 스님 등이 후원에 동참했다.

하지만 기구는 만들었지만 분규와 부채에 시달렸던 조계종은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동국대 산하로 역경원을 두기로 했다. 당시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법인이어야 하는데 조계종단의 형편으로는 무리였다. 이에 동국대 산하에 기관을 둔 것이다. '동국대 부설 역경원'이 아닌 '동국역경원'이라고 한 점은 독립법인을 할 때를 기한 것이었다. 그 때 마침 정부에서 고전국역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었다.

동국역경원의 탄생

역경위원회는 1964년 7월 동국역경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64년 동국대 부설 동국역경원이 설립된다. 초대 원장은 운허 스님이 맡게 된다.

동국역경원이 발족될 당시 역경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열의는 대단했다. 그 취지문을 보면 동국역경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통합종단 3대 역점 사업 '역경'
1964년 동국역경원 출범, 석학 대거 참여
2000년 〈한글대장경〉 184책 완간 결실
빨리어 경전 번역 초기불교 활성화 계기
개역 및 디지털화, 역경사 양성 과제

'간지스 강변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지던 부처님의 목소리가 메아리 친지도 아득히 천육백년! 최근에 이르러 역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짙어지고 있음에 따라 몇몇 경전들이 옮겨지고 있으나 그 것은 아무런 계획성도 없는 질서 이전의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 간지스 강변에서 메아리치던 그 때의 그 뜻을 귀에 익은 오늘의 우리 목소리로 바꾸어 돌려주자는 것이다. 겨레의 가슴의 이 뜻을 전한다.'

이후 동국역경원에서는 1965년 6월 한글대장경 제1집 〈장아함경〉을 간행한 이래 2001년 해인사 소장 팔만대장경을 한글로 완역했다. 지속적인 역경사업에도 역경불사에 동참한 이들의 생각은 하나로 귀결됐다. 바로 역경인재 양성이었다. 역경을 전담하는 인력을 키워내는 것은 지속적인 역경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과제였다.

역경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당시 역경불사는 고려대장경과 고려대장경에 포함되지 않는 삼장과 한국고승찬술불서를 모두 번역하려면 최소 50년이 걸린다고 보였다. 당시 역경위원들은 대부분 50세를 넘은 상태였다.

조계종은 1966년 수원 용주사에 역장을 설치하고 1967년 5월 22일 제1기 연수생 10명을 선발했다. 연수생들은 30:1이란 경쟁률을 뚫은 수재들이었다. 출가자 5명, 재가자 5명으로 구성된 이들로 무비 스님을 비롯해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월인 스님(법주사), 송원 스님(서울 정각사), 주인 스님 이었으며 재가자는 권영대 전 단국대 교수, 이민식 한국학연구원 전문위원, 송성주, 채영일, 이재수 씨 등이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역장을 든든히 후원했던 관응 스님이 용주사 주지에서 물러나며 역장은 용주사에서 철거된다. 1969년 종단은 역장을 개운사로 이전토록 결의했으나 개운사 측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1971년 봉은사에 역장이 변경 지정됐고 2기 연수생을 받았지만 얼마못가 문을 닫게 된다. 봉은사가 사찰토지문제로 내홍을 겪으며 역장 운영에 난맥이 생겼기 때문이다. 1년 반의 연수과정을 거친 9명에게는 연수증이 주어졌다.

역경불사의 인재양성을 위한 역장과 마찬가지로 동국역경원도 재정부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국고보조금에 의존했기 때문이었다. 1966년 매년 1300만원씩 72년까지 지원 받기로 결정돼 77년까지 총 7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기간 동국역경원은 매년 7~8권의 〈한글대장경〉을 번역 출간했다. 하지만 1980년대 지원이 끊키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어 1980년 11월 역경불사의 원을 세웠던 운허 스님이 입적하자 역경원은 위기에 부딪친 것이다.

역경불사에 원을 세운 이들은 법인이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1984년 11월 동국역경사업진흥회가 발족됐다.

이후 1993년 운허 스님의 상좌인 월운 스님이 동국역경원장에 취임하고 1994년부터 4년간 정부가 지원을 하며 다시 활기를 띄었다. 월운 스님이 앞장서 1995년 동국역경원후원회가 만들어져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정부 지원과 함께 94년에 26책의 〈한글대장경〉이 간행됐으며 95년 28책, 96년 32책, 97년 30책 등 4년간 총 116책이 간행됐다. 그럼에도 고려대장경의 번역불사는 큰 일이었다. 정부의 추가 지원과 동국대 및 후원회 지원 등으로 총 184책의 〈한글대장경〉이 2000년 36년만에 완결된다.

현재 동국역경원은 동국대 교책연구기관인 불교학술원 산하기관으로 있으며 기획부와 편집부, 상임연구원 등을 두고 있다. 한글대장경을 완간한 현재 역경원은 불교고서 번역을 비롯해 콘텐츠를 인터넷 자료로 제공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역경 예규의 제정과 번역사업

1960년대 이후 역경불사의 가장 큰 성과는 역경예규를 제정한 데 있다. 번역을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기에 이 규칙에 따라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한글대장경〉을 편찬하며 국어학자인 외솔 최현배, 일석 이희승 박사 등의 동참 하에 운허, 법정, 서경수 교수 등은 역경예규를 제정한다.

'문장은 구어체 현대문을 사용한다' '문장은 순한글로 쓰되 고유명사나 범어, 번역하기 어려운 술어는 해당 한자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등으로 지금도 범어표기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차로 한자음을 그대로 따라적는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보아 이당시 표기법은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이었다.

또 중요불교용어 270개(추후 600개로 늘어남)를 우리말로 풀어썼다. 죽살이(생사), 바퀴돌이(윤회) 등 현재는 사장되어 쓰이지 않는 말들이 많지만 한글화에 대한 제정 당시의 노력과 열정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불교 각계에서의 역경불사

1990년대에 들어 중앙승가대가 역경불사에 뛰어든다. 중앙승가대는 1993년 역경사를 양성하는 불전국역연구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교양강좌에도 역경분야를 도입하고 현재 역경학과를 개설해 인재양성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 차원에서는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 재직시절이던 2006년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를 발족시키고 원효, 의상, 지눌 스님 등 한국 대표 고승 문집 90여 종을 선별한 〈한국전통사상총서〉를 편찬했다. 〈한국전통사상총서〉는 한글번역과 함께 영역도 함께 진행됐으며 '다자간(多者間) 번역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하게 번역하려 노력한 첫 사례였다. 번역자 한두 사람에게 의존하는 기존 관행을 탈피해 공동으로 번역과 교정 작업을 진행했으며, 한글역자와 영역자가 교차 검토하고 검증하면서 국내외 연구성과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世界佛教 法王廳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품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국제불교지도자협회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ION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시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물 옷을 욕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아쉽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 아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십니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

역경
한국불교
역경불사 70년

바른 신행·불교 대중화 주춧돌



1964년 7월 21일 동국역경원 개원식 당시 모습. 운허, 석주, 법정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우리말 불교성전 出刊
30일 회향. 은佛子의 오랜숙원 성취
通佛敎的인 色彩지녀
한국불교의 實質的土着化 이뤄

1972년 11월 발간된 우리말 〈불교성전〉 관련 기사



2011년 7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한국전통사상총서〉 봉정식. 〈한국전통사상총서〉는 교차검증을 비롯한 공동번역의 산물이었다.



2012년 11월 열린 4부 니까야 완간 간담회를 연 초기불전연구원의 각묵 스님(왼쪽)과 대림 스님

를 최대한 반영했다. 〈한국전통사상총서〉는 2011년 7월 우리말본으로 13권에 이어 2012년 영역본까지 출간됐다.

이와 함께 〈표준금강경〉 또한 편찬됐다. 1924년 용성 스님이 한글로 번역한 금강경 이후 100여 종이 넘는 한글금강경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불학연구소의 주도하에 2년 간의 학술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2009년 1월 20일 편찬됐다. 〈표준금강경〉 편찬은 개인이 아닌 공동번역의 결과물로 번역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여러 번의 윤문 단계를 가졌다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글경전번역사상 처음으로 운문화를 시도했다는 점은 가장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다양한 곳에서 역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역경분야에도 발전을 이끌었다. 그동안 자료수집과 번역자료 공유 등에 난항을 겪었던 역경불사에서 인터넷은 큰 힘이 되었다. 역경사업과 함께 1993년에는 대장경의 디지털화를 위해 고려대장경연구소가 발족돼 전산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 빨리어 번역 돌입

한문경전 번역과 함께 초기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198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일본 불교학자들의 저서를 재번역하는 단계였지만 1987년 선방수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고요한 소리' 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꾸준히번역한 책들을 보급하고 있다. 스리랑카 불자출판회에서 간행되는 〈보리수 잎〉, 〈법륜〉, 〈금구의 말씀〉 등을 펴냈다. 이들 책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인도 등에서 유학했던 스님과 불교학자들이 귀국하였으며 유럽과 미국에서 초기불전 연구에 필요한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등을 습득한 학자들이 동참하며 초기불전 번역이 활기를 띈다.

전재성 박사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빠알리성전협회도 초기불전 번역의 중심 역할을 했다. 1989년부터 초기불교 원전 번역의 원을 세운 전재성 박사는 1997년 세계빠알리성전협회 회장인 리차드 곰브리치 박사의 승인을 받아 한국협회를 열고 10여연간 역경사업에 매달려 빨리 4부 니까야와 함께 빨리 율장 등을 번역했다.

2002년 빨리 삼장의 한글 완역을 발원하고 세워진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은 원장 대림 스님과 각묵 스님이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을 3차로 진행하고 있다. 1,2차를 진행해 디가 니까야 등 4부 니까야와 논장 등과 함께 〈아비담마의 길라잡이〉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을 펴냈다.

역경의 현대화 과제

한국불교계가 역경불사를 시작한지 50년이 흐르는 동안 시대에 따라 역경의 방식도 변해왔다. 한글대장경 또한 개역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현대시류에 맞는 역경사의 양성, 역경의 디지털화 등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동국역경원에서 완간한 한글대장경은 다시금 현재의 언어로 재구성돼야 한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과제에 앞서 언어 표현을 통일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문을 단순히 한글로 옮기는 데서 벗어나 다양한 현대적 언어로 해석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일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과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2006년부터 교육협력을 체결해 한국불교융복합학과(일반대학원 과정)과 불교한문아카데미를 신설해 한문불전 번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 불교학술원은 ABC사업을 통해 불교기록문화유산을 디지털화 해나가고 있다.

그동안의 역경불사가 국고지원에 의존해온 만큼 동국역경원의 역경후원회 활성화를 비롯해 각종 후원조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법보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또한 불교계의 남은 과제다.

한글 역경에 앞장선 선지식 스님들


용성 스님


운허 스님


석주 스님


탄허 스님


월운 스님


지관 스님

용성 스님

이 중 용성 스님은 한글화에 앞장섰다. 용성 스님은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 됐을 때 성경을 비롯한 타종교의 서적이 모두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고 한글역경에 앞장섰다. 1921년 4월 역경을 전문으로 하는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조직했다. 삼장역회는 첫 한글판 〈금강경〉을 출간하고 이후 〈심조만유론〉과 〈신역대장경〉, 〈수심정로〉, 〈선문촬요편집의역〉, 〈대방광불화엄경〉 등 수많은 한글경전을 펴냈다. 용성 스님의 수많은 한글 번역본은 현재 법손인 보광 스님이 대각사상연구원에서 총서 발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운허 스님

젊은시절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운허 스님은 상해 임시정부와 관계가 있었으며 관련 인사들과도 교류가 있었다. 광복 후 운허 스님은 봉선사 스님들을 모아 놓고 이제 해야 할 일은 조국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라며 학교 건립의 뜻을 모았다. 1946년 4월 8일 광동학교가 문을 열었고, 스님은 초대 교장에 취임한다.

1950년 전쟁 발발이후 범어사, 해인사 등에게 교학을 강의한 스님은 1057년부터 역경불사에 본격적으로 매진했다. 석주 스님과 법보원에서 1961년 최초 우리말 〈불교사전〉을 편찬했고, 1962년 대장경 번역의 책임을 맡아 한국불교 역경사에 빛날 업적을 남겼다. 스님은 1964년 동국역경원 초대원장, 역경위원장 책임을 맡아 역경불사의 토대를 닦았다.

석주 스님

강원 재학시절부터 우리말 경전의 필요성을 절감한 석주 스님은 1949년 선학원에서 한글선학간행회를 세우고 〈선가귀감〉을 발간데 이어 1961년에는 운허 스님과 의기투합해 법보원을 설립했다. 당시 법보원 운영과 재정은 석주 스님이 책임졌고, 운허스님은 경전한글화를 담당했다. 앞서 운허 스님은 1950년대 들어 강원 교육에 필요한 책들을 비롯해 율장을 한글화 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었다. 스님과 운허 스님은 최초 우리말 〈불교사전〉을 펴냈다.

이 책에는 강원 학인들과 불교를 처음 연구하는 이들을 위해 만든 것으로 간단하고 알기 쉽도록 해석됐으며 1만6000여개의 표제어를 담고 있다. 운허 스님과 석주 스님의 원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1980년까지 한글 대장경이 80권 출간됐는데 완간된 대장경이 318권인 점을 감안하면 경이로운 수준이다.

탄허 스님

탄허 스님은 전통강원에서 사용하는 초발심자경, 치문 등의 사집, 사교, 대교를 한글로 번역해 강원교육의 한글화에 앞장 섰다. 특히 화엄경과 관련된 방대한 저술을 집대성해 우리말 〈신화엄경합론〉을 출간하는 데에만 17년을 몰두했다. 스님은 사회 통합의 해결책으로 화엄 사상을 강조했다. 또한 7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경전을 역경하고 주석함으로써 현대 한국불교교육의 토대를 바로 세웠다. 탄허스님은 조계종 초대 중앙역경원 원장, 동국역경원 초대역장장(譯場長), 동국대학교 대학선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상좌인 혜거 스님이 스님의 원을 잇고 있다.

월운 스님

운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월운 스님은 역경원 개원 때부터 30년간은 번역위원으로, 이후에는 원장으로 해인사 장경각 속 팔만대장경에 담긴 부처의 뜻을 한글로 널리 펴내는 일에 매달려 온 역경사업의 산역사라 할 수 있다. 월운 스님은 제4대 공국 역경원장으로 취임해 운허 스님의 원력을 이어 1994년 정부지원을 받아 2001년 한글대장경 318권을 새롭게 탄생시켰다. 이뿐만이 아니라 역경후원회를 조직해 기반을 닦았다. 울운 스님은 이후 고래대장경의 디지털화에도 깊이 관여했다.

지관 스님

대표적인 학승으로 꼽히는 지관 스님은 역시 역경불사에 깊이 관여한 자운 스님(제3대 역경원장)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금석문 번역과 계율 역사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스님은 〈한국사상총서〉 〈표준 금강경〉을 비롯해 1991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해 불교문화 사상 전반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기술한 〈가산불교대사림〉과 〈역대고승비문총서〉 등을 편찬했다. 이중 〈가산불교대사림〉은 불교대사전으로 15만개의 항목을 담은 대구모 편찬불사다. 여기에는 불교의 다양한 고전번역과 대장경 편제 전통에 따른 것으로 2019년까지 총 22권이 출간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DIY형 모듈 온수난방 시스템 www.junheating.co.kr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1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2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3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04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서산 : 010-7301-5854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북광주 : 010-3641-0605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보시와 회향 가슴에 새기며

김광호 객원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심리학과)



김광호 교수는 … 1952년생으로 동국대학불교문화대학원 불교아동심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금화사초등불교학교 교장, 조계종 금화사 신도회장, 조계종 대한불교교사대학 부학장, 금화어린이청소년회 대표를 역임했다. 양산대 사회복지학과,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고 현재 경주 동국대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포교대상 원력상, 민족평화상, 국방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어린이 포교는 불교의 미래입니다. 제 목숨과도 같아요.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부산불교문화원 보리수 불교학교’는 오직 어린이 포교를 위해 마련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불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자재들은 최고로 안전한 재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죠. 그저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할 뿐입니다.”

20여년 천진불을 위해 보시바라밀을 실천하고 있는 김광호 교수(64)를 4월 16일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그의 자택에서 만났다. 남산동에 15억원이 넘는 자비를 투자해 어린이 전용 법당 ‘부산불교문화원 보리수 불교학교(이하 보리수 학교)’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를 통해 새싹 불자를 양성하는 기쁨을 들어봤다.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전용 법당을 만들다

5월 말이면 공사를 마치고 6월 초 개원법회 예정인 보리수 학교는 원불 300여 개를 봉안하는 법당은 물론 옥상 놀이터,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법당 안에는 반야심경을 목조에 새긴 부조작품을 후불탱화로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보살, 약사여래, 일광 · 월광보살 등을 봉안할 예정이다.

특히, 김 교수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어린이들의 안전이다. “60여 평의 옥상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서 놀이 기구는 무해한 성분의 제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법당 부처님도 홍송으로 제작해 학생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했죠. 최고의 불사를 위해서는 최고의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던 그가 이렇게 어린이 불교 포교에 매진하게 된 것은 20년 전 부산 금화사 불교대학에 다니면서부터다. 당시 주지였던 대안 스님의 강의에 쏙 빠져 같은 강의를 6년 동안 반복해서 들었고 녹음까지 해 반복해서 공부했다. 이즈음 되자 스스로 강의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그의 가슴에 가장 남는 단어는 ‘회향’이었다. 어떻게 회향할 거냐는 대안 스님의 질문에 그는 어린이 포교를 떠올렸다. “대안 스님께서 예전에 절 지하에서 한자교실을 열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회향을 한다면 어린이 포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또 교사인 아내와 함께하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에 전혀 경험이 전무했던 어린이 포교를 하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안 스님의 지지로 아내 이향화(58) 보살과 함께 1995년 금화사에서 어린이 포교를 위한 천자문 교실을 열었다. 150여 어린이들이 몰렸다. 하지만 금화사 법당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었다. “아이와 엄마가 함께 오니 천자문 교실에 300여 명이 몰렸어요. 결국 금화사 맞은 편 스포츠센터 9층 건물을 하루 15만원을 주고 빌려 천자문 교실을 운영했죠. 간식비와 모든 경비를 사비로 감당했어요.”

하지만 어린이 지도 경험이 전무했던 그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은 역부족이었다. “군대에서 소령으로 전역하고 기업에서 근무를 했던 터라 처음에는 애들을 군대식으로 지도했어요. ‘앉아’ 하면 앉을 줄 알았는데 애들이 ‘무서워요’ 하며 울었어요. 집에 갈 시간인데 가라고 하면 가지 않고 놀다가 넘어져 다치고 부모가 와서 따지고 정말 정신이 없었죠. 물론 건물세와 간식비 등 모든 운영비를 제 혼자서 해결해야 하니 경제적 부담도 컸죠. 6개월만에 천 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됐어요.”

의욕만 너무 앞섰다는 것을 깨닫고 재정비에 들어갔다. ‘대한불교 어린이 연합회’를 찾아 교재와 정보를 찾아 교사를 모았다. 그리고 수용 인원을 조절해 금화사불교초등학교를 새롭게 개설하고 물심양면으로 학생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엄격한 규정과 솔선수범이 교육의 원칙

그는 어린이 법회 구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불교교리, 문화유산답사, 다도 및 해외 탐방 및 산사체험 야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어린이들이 불교적 지식과 문화체험 등을 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내실을 다졌다. 또한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금화사 한자교실 열며 어린이 포교 시작
금정구에 어린이 전용 법당 15억 불사 중
6월초 개원예정… 최고 시설 위해 노력
문화유산답사, 다도 및 해외 탐방도
늦깎이 학생으로 불교심리학 공부에 매진
태영장학회 설립 어린이 포교와 부모교육
문화 포교 위한 서적 20권 집필활동
앞으로 20년 더 어린이 포교 매진 발원

위해서는 부인과 함께 직접 학습지도를 했다. 그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쉽고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니 불교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불교유적지 문화탐방은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이죠. 우리나라 전통문화재 대부분이 불교와 관련이 있으니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 중 하나죠. 또한 불교 4대 명절 같은 경우는 사물놀이 시간에 자진모리와 휘모리 장단에 맞춰 외우게 했어요. 예를 들어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은 48 이렇게 장단에 맞춰 가르치면 아이들이 쉽게 기억을 하죠.”

인성교육에도 큰 비중을 둔다. 저출산 시대인 요즘 아이들 대부분이 홀로 자라다보니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그는 엄격한 훈육으로 아이들을 지도했다.

“3회 이상 무단결석하면 퇴교입니다. 예외가 없죠. 냉정하게 가르쳤습니다. 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지 않으면 바로 지붕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럼 걸어서 집으로 가야 하니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정확하게 정돈을 해놓아요. 욕을 하거나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복도에 나가게 해 죽비를 쳐서 스스로 참회할 수 있도록 했죠. 또 추운 겨울에 절 마당에 나가 108배를 시키기도 했죠.”

이런 스파르타식 교육은 물론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아이들도 김 교수를 따랐고 단 한 명의 결석자도 없었다.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도 우선순위를 불교학교에 두었다. 이러니 동네의 모든 문제아들은 김 교수에게 보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훈육방식은 소문이 자자했다. 급기야는 일부러 그를 찾아오는 부모들도 늘었다.

“입에 욕을 달고 살 정도로 언어 습관이 좋지 않은 학생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현직 교감이었는데도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 저를 찾아왔죠. 그 아이에게 새벽 6시에 어김없이 저희 집에 오도록 했어요. 저는 먼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이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학생이 들어오면 아무 말 없이 108배를 시켰어요. 한 달이 지나자 힘들다며 말 잘 듣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말을 잘 듣겠다는 것은 단지 그냥 반감만 키울 거라는 판단에서죠.”

그렇게 학생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 100일 기도를 마쳤다. 그제서야 학생은 평평 울면서 참회를 했다고. “진심으로 선생님과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 뒤 학생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스승의 날에 두부 스테이크를 만들어 저와 부모님께 극진히 대접하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지금은 고등학교 전교회장을 맡을 정도로 모범적인 학생으로 변했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며 가르치다

물론 이런 엄격한 교육을 위해서는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것도 그만의 당연한 철학이다. “당시 회사일로 일본에 출장을 갔었는데 토요일 수업 때문에 다시 한국을 들어왔다 일본으로 나갔죠. 아이들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지키라는 말을 하겠어요? 제가 그만큼 해야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원칙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그의 지도를 따라온 학생들에게는 상을 주며 격려했다. 일년 동안 개근한 학생들에게는 매년 싱가폴, 태국 등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있다. 엄하게 수업하는 만큼 잘 따르면 보상을 해주고 격려하며 이끄는 것이 그 만의 원칙이다.

부모교육도 그가 중요시 여기는 과정 중 하나다. 학생들의 부모로 구성된 자모회를 운영,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도 함께 훈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부모들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 문제는 반드시 가족 문제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 문제 아동이란 말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가족상담을 하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를 상담해 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가족 상담을 하게 되었죠.”

이런 그의 교육 철학은 끊임없이 연구하며 노력한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20년 새싹 포교에 매진”


부산 금화사에서 19년동안 어린이 포교를 담당한 그는 200여명의 제자를 배출해 내었다.


〈엄마 따라 절에 가기〉, 〈국보 · 보물 문화유산을 찾아서〉 등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해설서 및 불교 관련 지식의 백과사전 등 20여권을 책으로 펼쳐냈다.


지난해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친견.



태영장학회를 설립 매년 개근 학생들에게 해외탐방을 보내고 있다.


홍송으로 제작한 불상. 학생들에게 친근한 모습이 되도록 제작되었다.

결과다. 그의 나이 예순이 넘어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아동심리치료학과에 입학했다. 매일 밤새워 공부해 수석으로 졸업했고 상담심리 1급 · 미술 심리 1급 자격증에 복지사 자격증도 땄다. 이후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동국대 객원교수로 활동중에 있다.

어린이를 위한 그의 노력은 단지 교육으로 그치지 않았다. 포교를 위해 발간한 책이 20여 권에 달한다. 〈엄마 따라 절에 가기〉(혜성출판사), 그의 〈국보 · 보물 문화유산을 찾아서〉(혜성출판사) 등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해설서 및 불교관련 지식의 백과사전을 책으로 펼쳐냈다.

시련 극복하고 어린이 포교 위한 새로운 다짐

물론 이런 그에게도 고비는 있었다. 20년 가까이 자신의 전부를 쏟아왔던 금화사를 나와야 했으니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신임 주지스님이 어린이법회를 반대했어요. 그동안 졸업한 제자만 200명이 되는데 너무 안타까웠죠. 금화사를 나온 이후에는 새로운 법당을 알아봤고 불사가 진행될때까지 저희 집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할 뿐입니다.”

앞으로 조계종단이 어린이 법회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그는 강조한다. “제발 종단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 회관을 만들어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주길 바랄 뿐입니다. 어린이가 없으면 불교의 미래도 없습니다. 종단에서 어린이 불교 회관을 각 시도에 하나씩만 만들어 수행을 겸한 교육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어린이 포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700년 한국불교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삶의 좌우명을 ‘회향’과 ‘보시’라 말하는 그는 서재에 걸려 있는 청담 스님의 서예 글씨인 ‘보시’를 보며 마음을 되새긴다고 했다. 이런 좌우명에 따라 2006년에는 ‘태영 장학회’를 만들었다. 조부인 김정태 씨와 부친 김영욱 씨의 이름에서 따온 ‘태영장학회’는 매년 천만원의 장학금 지급은 물론이고 어린이 포교를 위한 자모회 교육, 어린이 포교를 위한 해외여행 지원 등도 겸하고 있다.

김 교수의 조부는 3 · 1 운동의 최연소 참가자로 19살 때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부친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을 위한 ‘전국유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를 거쳐 최근까지 상임고문으로 활동해왔다. 또한 증조부는 자선사업으로 고종황제에게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조상님들의 업적을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라도 그분들 뵙기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어머니와 외할머니 생신이 음력으로 4월 8일이에요. 어머니가 창원 성주사에서 기도해 태어난 자식이 저에요. 아버지도 불심이 대단하셨죠. 그런 집안 내력이 제가 불교 일을 하고 있는 힘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앞으로도 세상과 나누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한다. “죽을 고비를 4번을 넘겼어요. 지리산에서 조난도 당했고 설악산 흔들 바위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뻔하기도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해요. 어린이 포교를 하라는 부처님의 뜻이죠. 더 이상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여년 어린이 포교에 모든 것을 던졌다면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 시간만큼은 어린이 포교에 매진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나중에 저 세상으로 가서 부처님을 뵈면 부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최고의 어린이 포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노력할 것입니다.”

부산=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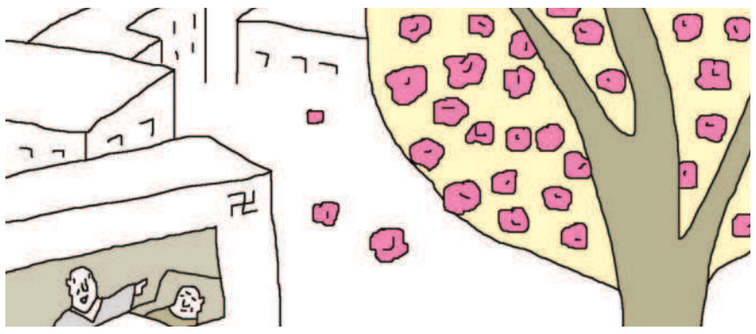
전법일기

조계종 스님의 태고종 사찰과의 인연

저녁 7시 목탁소리가 울리고,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알약…”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는 소리가 관악산 입구에 울려퍼진다. 매주 수요일 관악산 성불암 법당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는 이들이 모인다. 1000일 정진을 서원한 ‘선우회’ 사람들이다.

선우회의 첫 시작은 5명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셨던 녹야원, 오비구의 숫자와 똑같다. 법을 이으라는 뜻의 ‘법찬’이란 법명을 주신 은사스님의 혜안이지 싶다.

도심 속 작은 암자나 포교당은 소수의 신도들로 사찰을 유지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성불암은 더욱 어려운 환경이었다. 도량 자체가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이 아닌 ‘한국불교 태고종’ 사찰인 까닭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다. 사찰 유지에도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림 · 박구원

인연있는 이들은 의아해하면서 묻는다. 왜 조계종 스님이 태고종 사찰에 머물면서 절 살림을 살고, 10년을 훌쩍 넘긴 세월 동안 사찰 보전을 위해 있느냐고. 동국대와 정각원 등에서 받은 보시금으로 왜 성불암의 재정을 감당하고 있느냐고.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인연법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출가를 하기 전 인연돼 해인사로 출가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동국대로 진학해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셨던 분이 바로 지금 성불암에 계신 스님이시다.

비록 종단은 다르지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성불암 스님의 자비심은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스님의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 그 즈음부터 절 살림을 온전히 맡아 해 왔으니 성불암과 인연을 맺은 세월이 십수년이다.

현재는 혼자 거동하실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 되셔서 주위의 도움 없이는 환자용 침대를 벗어날 수 없고, 대소변 역시도 불가능하니 곁에서 보기에 너무나 안쓰럽다. 더구나 치매는 초기에 발견은 했지만 점점 나빠지시니 내가 잘 모시지 못해 그런 것은 아닌가 늘 죄송스럽다. 그나마 공양 잘 드시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모름지기 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면 응당 그 은혜를 빚으로 여기고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갚음은 출가를 떠나 인간 된 도리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내가 지금 조계종 스님이란 이유로 ‘성불암’을 떠나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포교를 하면 더욱 잘 할 수도, 수고롭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을 떠나면 이 곳 스님을 누가 돌봐줄 것이며, 성불암이라는 도량이 유지 될 수 있을까?

비록 스님이 가끔 치매 초기에서 약간 진전된 상태를 보일지라도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을 모두 돌봐줘야 하는 스님을 두고 간다면 이 작은 사찰에서 얼마나 제대로 간병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물론 ‘해인사’로의 출가는 승려로서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특히 해인사는 부처님 법을 모셔놓은 법보종찰이기에 특히 그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있어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크다. 지금 성불암 노스님을 모시듯 머지않아 부족한 나를 자비심으로 탁마해주신 은사스님과 큰스님들의 은혜를 반드시 갚을 날이 오리라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성불암’에서 인연법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늘 그렇듯 신심있으신 불자님들과 인연이 더해졌다. 이들과 천일 동안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의 원을 세웠다. 이러한 원을 함께 해주신 분들과 더불어 ‘선우회(禪友會)’를 결성하게 되었다. 선우회와의 인연은 다음 편에 전하도록 하겠다.



법찬 스님 (서울 성불암 주지)

불교종합쇼핑몰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대행 스님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한 부처님의 모습도 계신 겁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6(남) 저는 식구의 권유로 작년부터 오늘까지 무조건 계속 선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술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좀 하고 있었지만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이 일체 끊어지고 '무조건 선원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되는데, 선원에 들어서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상당히 고요해져서 우선 눈물부터 나오게 됩니다. 또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 제 자신이 현재 가고 있는 마음이 어떤지 점검하고 싶어서 이렇게 무작정 나왔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뭘로 점검을 할까요? 고요한 마음이니깐 된다? 안팎이 없는 고요한 마음이 되셔야 되겠죠? 집에 있으나 변소엘 가나 여기 절에를 오나, 하여튼 당신이 있는 곳곳마다 부처는 계시니까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는 있는 겁니다. 당신이 없다면 모두가 무효죠. 그러니까 당신을 끌고 다니는 당신 주인에게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그저 가난하면은 열심히 지극하게 벌이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이 공부하는 데는 적격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내 탓이지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뭐가 탓이 될 게 있습니까? 부닥침이 뭐가 있고?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죠. 그거를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고 따지게 된다면 이 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몸뚱이가 떨어지기 전에 모든 도리를 알아서 증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론으로만 알고 말로만 알고, 그저 설법을 강백으로서 여여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내 몸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몸 떨어지고 입 떨어지고 말 떨어지면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열심히들 하십시오.

이 공부는 가난하다고 해서 못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못나서 못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모두가 육신 장애자보다도 정신 장애자가 많으니까, 그 정신 장애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살자는 뜻입니다. 부처님도 내내 지금까지 그렇게 설하고 계시고요. 한 말도 한 예가 없고 한 생각도 한 적이 없고 또는 한 가지도 자기가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날까지 하시는 겁니다. 끝간 데 없이 말입니다. 어저께 오늘 내일이 없이, 중간도 없이, 열심히 하세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잘해 나가신다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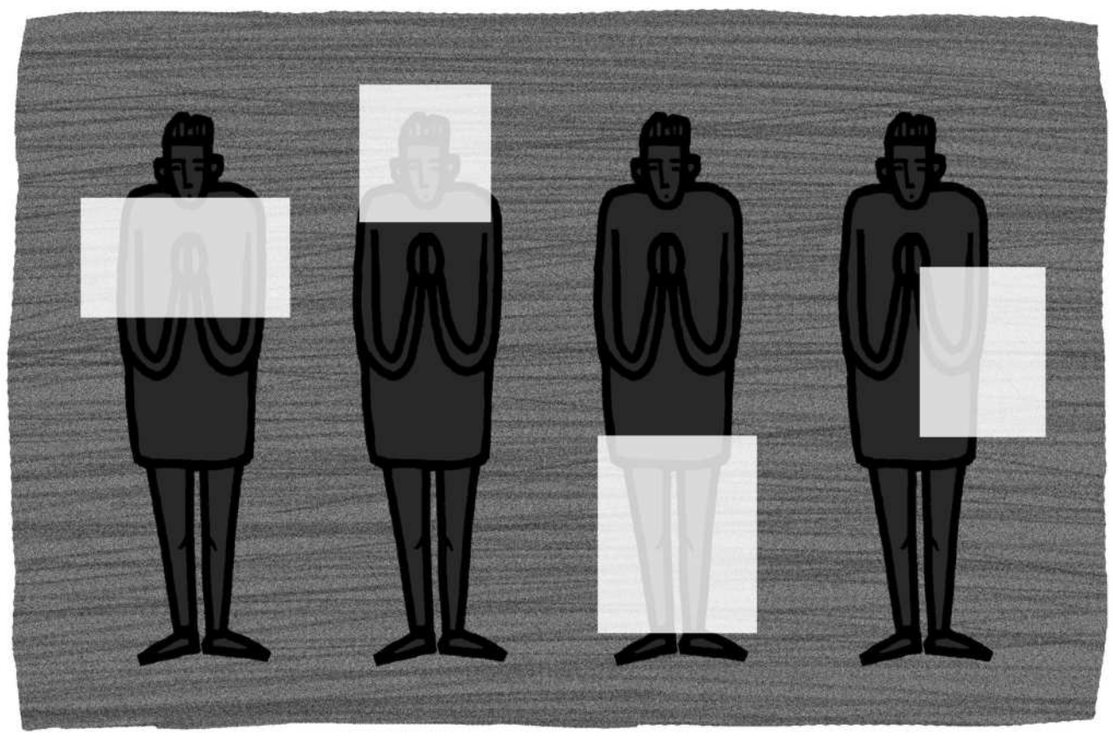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6(남)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자7(남) 제 내자가 본원(本院)과 대구 지원에 한 3년 살다가 지금 그만 납골당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승에 가서라도 산 세상과 같이, 대구 · 부산 · 서울 이런 데 모양으로 꼭 만날 수가 있을는지, 말 한마디도 없이 갔기 때문에 대행 스님께 한 말씀 여쭤 보려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큰스님 인생은 모두가 만났으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났으면 고정되게 그냥 똑같이 또 살고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캠핑 나왔다가 한 철 나는 겁니다. 그렇듯이 구름이 한데 합쳐졌다가 또 그 구름이 증발돼서 비로 내리고, 화(化)해서 비로 내렸다가 또 증발돼서 구름이 되고, 또 비로 내리고 모든 일체 만 중생들이 다 너 나 할 것 없이 용도에 따라서 다 먹어서 부분이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구름이 한데 모였다 흩어지면 또 딴 구름하고 또 모입니다. 딴 구름하고 모이니까 착을 두지 마십시오. 한 철 같이 친구로서 이렇게 지냈을 뿐이지 거기다가 착을 두진 마십시오. 몸이 죽었다 하더라도 거사님의 마음속에, 한마음 속에 다 있는 거고 일체제불의 마음도, 일체 조상의 마음도, 일체 중생의 마음도 모두 내 한 마음에 있다 생각하면 가깝게, 항시 끝간 데 없이 가깝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을 두고 멀리 둘로 보지 마십시오.

질문자7(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자8(여) 큰스님, 저는 요즈음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과정이 잘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스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주인공을 확신을 하거든요. 확신을 하는데 지금 주인공을 저와 같다고는 생각하지마는 이상하게 안 나타나고 발현이 안되는데, 그 주인공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모든 분별심이라든지 아상이라든지, 모든 게 다 없어지면은 저절로 주인공이 발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분별심이 저의 전생의 습에 의해서 생기는 것 같아서 그 분별심마저 주인공에 그냥 놓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그냥 아무런 의심도 안 나고 그냥 마냥 행복하거든요.

큰스님 행복한 것도 거기 놔요.

질문자8(여) 그래 가지고 며칠 전에 친구하고 부산 용두산 공원에 놀러 갔는데,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완전히 극락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의 허공에서 인연들끼리 만나 가지고 비둘기도 날고 친구하고 이야기도 하고 삼삼오오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하여튼 좋았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큰스님 좋으면 됐어요. 사계절 없는 봄날을 만난 듯이 항상 다가오는 것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 잡지 마세요. 그리고 편안하다 즐겁다, 이런 것까지도 감사하게 거기 놓고 돌아가세요.

질문자8(여) 예.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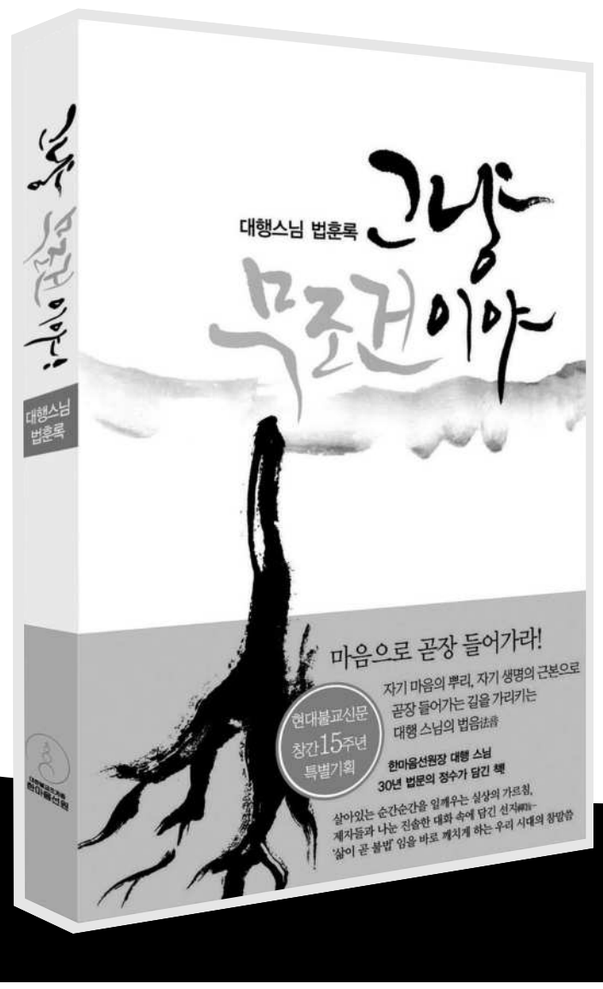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큰스님 질문 좀 하시라 그랬더니 뭐, 작으나 크나 질문은 질문입니다만, 저 보살님이 나와서 하신 말도 모든 게 근중한 겁니다. 다 버릴 게 없죠. '저렇게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데서 되는 게 있거든요. 하하하. 모두 되지도 않는 데서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되는 데서 안되는 거를 또 알게 되고, 반복해서 돌아가다 보면은 '야, 안되고 되는 게 없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일체 만물만생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따져 본다면 한 가정뿐이 아니라 한 몸에서도, 지금 수십억의 중생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다스리는 내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둘로 보지 말고 다 다스려야 이게 화(化)해서 나투면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모든 안팎의 살림살이를 잘하고 갈 텐데, 내 속에 든 악업 선업의 그 업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냥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하고 귓구멍을 통해서 온갖 악한 거는 다 몰아오고, 액운은 다 몰아오고, 좋은 거는 적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마음에 바로 이 수십억의 의식들이 다 따라 줍니다. 다스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기준을 둬서 다 따라 줍니다.

이거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말하죠. '숙명통(宿命通)' 하면은 컴퓨터와 같다고. 과거에 모든 업을 지은 것이 바로 현실에, 인연에 따라서 모두 내 몸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길을 가다 엎드러지면 그 길을 딛고 일어나듯 되놓으세요!

☞ 29면에서 계속

속에 거듭거듭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발로가 돼서 그냥 나오는데,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맡겨 놓으면, 그 숙명통 컴퓨터에 앞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던 게 그냥 다시 입력을 하니까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바퀴에 닿기만 하면 다 타 버린다고 하면 모두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입력됐던 그 자체가 바로 내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동짓날 팥죽을 쑤다가 팥죽 끓는 것을 보고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했더랍니다. 그와 같이 내 몸뚱이 이 속이 팥죽 솥이라면 그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지 딴 데서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깐 팥죽 방울이 자꾸 움죽거리니까 바로 법신(法身)이거든요. 요것도 법신! 요것도 법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그 수십억의 의식들을 다 한마음으로 뭉쳐서 모든 걸 다스려서 거기다 놓고 돌아가신다면, 살림을 하신다면 모든 입력이 됐던 게 다 무너지면서, 오간지옥도 무너지면서, 그 악업 · 선업 업식이 다 무너지면서 이게 놓는 대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입력이 된 대로 또 나옵니다. 그럼 또 되놓고 되놓고, 이렇게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으십시오. 길을 가다가 엎드러지면 그 길을 딛고 일어나듯이. 이열치열이라는 속담의 말도 있듯이.

또 내가 항상 얘기하죠. 천이통(天耳通)하면은요, 무전통신기를 말합니다. 이게 '불교' 하는 것도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라면, 바로 교(敎)는 그렇게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통하는 거나, 보이는 데서 통하는 거나, 날아다니는 새들이 통하는 거나…. 모두 우리네가 잘못 생각을 해서 '아이고, 저거는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저래.' 이러고 남을 원망한다고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면 미국 말을 못해서, 내가 못해서 통하지 못하는 거지 그 사람네들이 못해서 통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꽃이라든가 풀이라든가, 내가 못 듣는 생각은 안 하고, 그쪽에서 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쪽이 못합니까? 모두 통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이 국토가 한 국토지 두 국토가 아닙니다.

그러니 천이통 해서 이게 통하는 거를 말하자면, 수없이 무전통신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표현을 한다면. 지금 너무도 잘 아시죠? 천이통을 무전통신기로 표현해도 된다, 타심통(他心通)을 탐지기로 표현해도 된다, 또는 천안통(天眼通)을 천체망원경으로 표현해도 된다, 신족통(神足通)을 팩시밀리로 표현해도 된다. 우리네 이 살림살이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두가 지금이나 그때나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하고 부서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그 뜻은 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간다면, 그렇게 그 입력됐던 데서 나오는 거를 다시 입력을 하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얼굴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몸이 있고 뜻이 있고 이렇듯이, 모든 게 그렇게 부딪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한 몸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소리가 저 바깥에서 나면은, 싸움을 하거나 이런다면은 눈으로 보는 동시에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단도 내립니다. 그러니 동시지 어디 따로따로 있습니까? 이름은 따로따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 모두가, 일체가 다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을 끌고 다니는 당신 주인에게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그저 가난하면은 열심히 지극하게 벌이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五蘊)의 오신통(五神通)이 그저 자꾸 같이 동시에 돌아가니까, 이 마음 한군데다 모든 것을 한데 뭉쳐 놓으면 놓는 대로 통신이 되고, 놓는 대로 작용이 되고, 놓는 대로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그놈이 있으면 할 것이고 그놈이 없으면 못할 거고 그놈이, 모든 거는 영원한 친구 그놈이….' 그러기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본래자성불(本來自性佛)이라고도 하고,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하고 뭐, 별 이름이 다 있죠.

여러분도 집에서 별 이름 다 가지고 있죠? 아버지라는 이름, 형님이라는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죠? 어머니, 할머니 뭐 할 거 없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거 할 때, 할머니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딸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아들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남편 노릇 할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아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얘,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아들 노릇 하고, "여보!" 그러면 "응, 왜 그래?" 그러고 남편 노릇 하고, "아버지!" 그러면 "얘, 언제 들어왔니?" 하면서 아버지 노릇도 잘하거든요. 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멋진, 자성(自性)의 이 멋진 묘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모든 게 거기에서부터 두뇌로 통신이 돼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사대로 통신이 되면 온통 들고 나면서, 하나의 생각이 수십만 개로다가 입자가 돼서 들고 나면서 일들을 하거든요.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심(無心)과 유심(有心)이 다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작용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쌍방이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100% 불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전력은 하나지마는 갖다가 잇는 데는 줄과 줄을 한데 이어야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발전이 되고 또 창조력을 기르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작용하는 도리를 하나로 말하지만 그 하나도 작용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찰나찰나 화(化)해서 돌아가니까 없다고 한 것입니다. 평등공법(平等空法)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뚱이가 있을 때 이 공부를 모두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스님네들만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는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마음은 다 마찬가지죠. 절에 입산을 해서 있다 할지라도 속가에서 살림하는 거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마찬가지죠. 입산을 해 가지고도, 살림을 하는데 요거는 요렇게 해서 '내 살림, 내 거' 이렇게 한다면 모든 게 이 부처님 법에 그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같이 나누어 먹고, 들어오는 대로 나누어 입고, 서로서로 남의 원망을 하지 않고,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에 계율도 지킬 수 있고 질서도 지킬 수 있고, 무조건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살면서, 또는 입산을 해서 어느 도량에서 산다 하더라도, 형제들이나 한 가족을 차이를 두고 항상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는 내 아래야.' 하고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아래가 바로 내 스승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풀 한 포기도 내 스승이요, 내 아랫사람도 내 스승이요, 잘못하는 걸 봤을 때 그 잘못하는 걸 보고도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고, 잘하는 걸 보고도 느끼는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 아님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말을 하자면 일체 만생, 만 중생이라고 해도 되지마는 만물만생에 들고 나면서…, '들고 나며'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들고 나면서 찰나찰나 화(化)하면서 나투는 부처님의 뜻은 불바퀴가 돌아가는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 나투는, 화해서 나투는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러니저러니, 이게 잘하느니 저게 잘하느니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 부처님의 발 꼬리도 못 쫓아갑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한 부처님의 모습도 계신 겁니다. 풀 한 포기가 살아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계신 거고, 지수화풍이 있는 것도 부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말세가 됐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행동이 부처님의 법이요, 여러분의 그 모든 움죽거리는 그것이, 바로 화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보현신입니다. 화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또다시 요다음에 만나면은 질문을 그런 걸로다가 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말로 그냥 떨어뜨린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말로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를 제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움죽거려야 컴퓨터도 움죽거리는 반면에 컴퓨터는 사람의 마음을 다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능가할 수도 있죠.

그 마음의 뜻을, 부처님께서는 삼천 년 전부터 '마음 떠나서는 일체 만법을 행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설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법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비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음과 마음이 서로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 아들이 잘못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고, 내가 술 먹지 않고 또는 화투 치지 않고, 하하하…, 또 나가서 잘못되지 않고, 가다가도 그냥 차에 잘못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지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분, 한군데다가 뭉쳐서 놓는 작업을 열심히 하십시오. 일체 만법을 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모든 걸 닥치는 대로 거기 맡겨 놓는 것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서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용광로에다가 전부 넣으면, 그냥 넣기만 하는 작업을 하면은 생산이 되는 건 저절로 생산이 돼서 다시 나오죠? 연탄도 그냥 가루로다가 다 몰아서 넣으니까 연탄이 되어서 나오고, 연탄이 되어서도 차곡차곡 나가는데, 연탄을 만드는 데서는 다 같이 만들지만, 집집마다 나누어 가는 데는 다 각자 집으로 갑니다. 모습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두 다르지만 말입니다.

비가 내리면은 일체 만 중생들이 다 그 물을 먹고 살죠. 그러면서도 물을 감사하게 생각도 안 합니다. 모두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 그 빗물을 아니 먹는 게 없는데도 그러니 그렇게 양식을 내려주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 한 번도 해 본 예가 없고, 또 온기가 항상 꺼지지 않게 여러분 앞에 있는데도 감사한 줄 모르고, 불도 감사하게 쓸 줄 모르고, 바람 공기도 감사하게 생각지 못하고, 딛고 다니는 자기 흙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모든 게 나 아님이 없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전부 나 아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내가 잘나서 산다고 한다면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뭐, 땅을 딛고 다니지도 말고 물도 먹지 말아야 하고 아예 그냥, 그렇게 해야죠, 뭐.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아셔서, 먼저 작업할 게 바로 그거라는 말입니다. 과거 씨는 현실의 싹이 돼서 그 싹에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 속에 씨가 들어 있는 줄 모르고 과거로, 바로 내가 나기 이전, 그 과거로 돌아가서 찾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건 오산입니다. 그리고 나를 끌고 다니는 놈이 그놈이라는 걸 알고 무조건 '그놈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놈으로부터 해결해라. 그놈으로부터 나 아닌 내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 줄 수 있다.' 하고 일체 만법을 다 거기다가 놓는 작업으로써 생활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만 그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92년 4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 급 과 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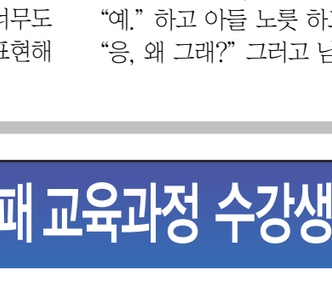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보조파이프 옵션
KW-BRD300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KW-BS200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양 제수 운반
고소 연등 설치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전동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써스펜션 (강력한 추진력)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장!"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